•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683 호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6월 11일(음력 5월 8일) 수요일(주간)



"학생은 고객 아니다"
8 홍기삼 前 총장 학술세미나



"대숲에서 나를 찾다"
10 표충사 녹음명상 템플스테이



분단 넘어 평화통일로!
11 시방세계-민추본 평화통일순례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17 선지식-행복마을 용타 스님

불교 학회 '소통의 바람' 불까

밝은사람들, 연찬회 발표·참석자간 소통 모색
교재 先제공·사전질문 접수 등 새 시도 눈길

#사례1=지난 5월 17~18일 동국대에서 개최된 불교학결집대회. 대회 소식에 17일 새벽잠을 설치며 대구에서 상경한 A씨는 접수 후 자료집을 받고 행사장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인도불교, 중국불교, 선불교 등 10개 분과마다 15분 단위로 줄 잇는 발표에 자료집을 넘기며 강의실마다 기웃거리기 바빴다. A씨는 "자료집을 미리 봤더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사례2=5월 22일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동국대에서 열렸다. 4명의 발표자가 논문을 발표했다. 정기총회까지 겹친 날이라 발표시간도 토론시간도 촉박했다. 시간 경과를 알리며 목탁을 울리는 사회자 모습은 야경꾼 같았다. 청중도 적어 학회가 열린 다향관 세미나실은 빈자리가 많았다.

학회를 찾는 이들은 항상 목마르다. 발표논문을 미리 받아 읽고 싶은 지적호기심에서, 또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TV 토론 프로그램처럼 질의·응답이 열띤 토론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소통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갈망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이 ▲교재의 선제공 ▲사전질문 접수 ▲학술연찬회 모두를 연출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끈다.

6월 14일 10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밝은사람들의 제5회 학술연찬회 교재는 단행본으로 출간돼 이미 전국 서점에 배포됐다. 미리 발표자들의 원고를 모아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운주사刊)로 출간한 것. 기존 학술세미나는 당일 배부된 자료를 단시간에 발표·토론하고 끝내던 것이 관례였다.

이를 위해 밝은사람들은 제4차 연찬회를 마친 2007년 12월, 연찬회 주제를 정하고 발표자를 선정했다. 상당수 학회가 대회 2~3개월전 발표자를 정하는 것부터 달랐다. 발표자는 초기불교: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유식불교: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선불교: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 서양철학: 박찬국 교수(서울대), 심리학: 권석만 교수(서울대), 생물학: 우희종 교수(서울대)로 관련 분야의 권위자들이다.

좌장 김종욱 교수(동국대)는 발표자들에게 집필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발표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최대한 주제에 부합된 논문을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기획부터 자료집 출간까지 소요된 시간은 2007년 12월 열린 제4회 학술연찬회 후부터 6개월여가 소요됐다.

발표자와 참석자의 소통을 가로막던 교재를 먼저 발간하고 나니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다.

행사 당일 주제발표 시간을 줄이고, 토론 시간도 늘렸다. 짜임새 있는 진행을 위해 참가자들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질문을 접수받는다. 밝은사람들은 이를 발표자에게 행사 전 전달해 충실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재 선제공, 사전질문 접수, 토론시간 확충 등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의 변화가 기획에 의한 것이라면 당일 행사는 철저히 연출된다. 김종욱 교수는 "사회자 역할이 바뀐 것이 이번 학술연찬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시계만 보는 것이 아닌 교재, 토론내용, 질문 등 행사의 A부터 Z까지 모두 연출자 입장에서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이런 학술연찬회의 변화에 대해 박찬욱 소장은 "교계에는 자극을 주고, 교계 밖에는 불교의 진면목을 소개하고자 시도된 것"이라 설명했다. 박 소장은 앞으로도 밝은사람들의 학술연찬회 교재를 '밝은 사람들 총서' 씨리즈로 행사 전 먼저 발간해 제공할 예정이다.

학회에서 발표자와 참석자는 자료집을 매개로 소통한다. 발표논문이 영어로 쓰였고 한국어로 말이 오가도 학회에서의 모든 대화는 발표논문에 한정될 정도로 자료집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밝은사람들은 주최자와 발표자에 정체됐던 학회를 소통시킬 혈을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받는다.

미래학자들은 "지금은 정보 공유의 시대다. 소통되지 않는 정보가 권력이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한다. 철저한 기획과 연출로 학회에 '소통'의 바람을 몰고 온 밝은사람들의 '욕망'은 변화의 동력이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호남 불자들"美 쇠고기 재협상을"
호남지역불교단체(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전남포교사단, 광주불교교육원, 호남불교문화원 등)는 시민 1만여명과 함께 5월 30일 광주 충장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도회 및 촛불집회를 가졌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관련기사 3면>

社告

현대불교 '이상시문학상' 제정

개방적 아방가르드 추구, 禪과 문학의 접목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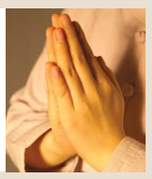
'현대불교'가 시 전문 계간지 〈시와세계〉와 공동으로 '이상시문학상'을 제정한다. 이상(李箱)은 1910년 9월 23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1937년 4월 17일 일본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한 식민지 시대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이다. 그러나 그가 지향한 문학적 태도는 온건한 모더니즘이 아니라 과격한 모더니즘이고 그런 점에서 아방가르드 정신으로 요약된다. 그의 시는, 문학은, 예술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미적 부정과 이런 현실 속에서 생산되는 문학, 글쓰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는 점에서 동시대 모더니스트들과 구별되고 이런 차이가 아방가르드 정신과 통한다. 물론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끝났다. 그러나 광의의 아방가르드, 전위는 살아 있고 살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소수의 전위가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아방가르드는 문학과 예술의 제도성에 도전하고 답답한 전통과 인습과 미학을 부정하고 일상과 예술, 일상과 문학의 단절을 즐기는 부르주아 시학의 허위와 위선을 비판한다.

이 시대 우리 시가 답답하고 핏기가 없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은 이런 의미로서의 전위성, 도전성, 실험성, 한마디로 아방가르드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상의 시정신, 문학정신, 예술정신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는 문학상이 요구된다. 한편 21세기 우리 시의 전위는 한물 간 서양 아방가르드의 모방이 아니라 동양적 사유를 이론적 토대로 할 필요가 있고 선(禪)은 우리시의 후기 현대성뿐만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처한 21세기 서양철학의 동양적 대안이고 이 시대 방향을 잃은 우리 삶의 화두이다. 요컨대 선은 우리 시의 아방가르드가 지향해야 할 이론적 토대이고 실천적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한물 간 모더니즘이 아니라 개방적 아방가르드이다. 따라서 '이상시문학상'은 이상의 단순한 모방이나 아류가 아니라 이상의 아방가르드 정신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선불교적 감성과 직관과 사유를 지향하는 시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현대시, 시조, 동시, 가사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개방성, 지적 모험, 치열한 자기희생을 보여주는 시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11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05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적
금 강 염 주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석과 음이온, 약알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값 245,000 | 02)723-0909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 관 불 수 향
전단향이 그윽한 향탕수로 관불,관욕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농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02)3663-6777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금강경' 한글본 편찬사업을 보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이웃종교의 <성경>이다.

<성경>과 비견될 한국 불교의 스테디셀러는 단연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일 것이다. <금강경> 종류 또한 방대해서 도서사이트에는 200종이 넘는 <금강경> 번역 · 해설서가 검색된다.

개신교도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출간했다면, <금강경> 출간은 철인(哲人)의 진리 희구 때문일까? 반야의 가르침처럼 무애하고 상(相)을 여읜 <금강경> 탓일까?

출가수행자, 불교학자는 물론 이웃종교인까지도 출간한 <금강경>을 보면 가히 대도무문(大道無門)이다.

이런 가운데 2008년 7월 <금강경> 한 종이 더 출간된다. 200여종의 개인적 불사 동안 침묵을 지켰던 조계종이 ▲구마라집 한역본을 기본으로 범본(梵本)까지 대조해 ▲공동번역 결과물로 ▲수차례 윤문과정을 거치고 ▲운문화 작업 후 표준본을 출간 · 보급한다니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우선 편찬사업에 소요된 2년여 1억여원의 사업기간과 비용은 여느 사찰 불사만도 못할 만큼 초라하다. '모든 상을 깨뜨리라'(破相) 가르치는 <금강경>을 종단 표준본이라는 상(相) 안에 가둬 다른 견해를 이단시하지는 않을지, 200여종으로 나툰 <금강경>이 종단 표준본의 위세에 주눅 들까 노파심도 든다.

교계 일각에서는 <금강경> 표준본이 왜 필요한지를 되묻거나, "그 예산으로 <금강경> 표준화에 앞서 <한글대장경> 오역부터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해 <금강경> 표준화 사업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비판도 드세다.

<금강경> 편찬은 글자의 정확함 못지않게 그 뜻의 온전함이 생명이다. <금강경오가해>가 육조 · 부대사 · 야부 등 선사의 작품인 것은 수보리에게 설해진 설법 너머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아는 눈 밝은 선원 수좌스님들의 안목이 지중함을 반증한다.

<금강경>을 한역한 구마라집은 413년 입적하면서 "<금강경> 번역에 오류가 없다면 다비를 해도 혀는 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의 말처럼 그의 혀는 타지 않고 남았다.

6월 1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는 <금강경> 편찬사업 회향을 앞두고 마지막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 구마라집 닮은 선지식을 만나고 싶다.

종무원 '자기계발' 팔 걷었다

조계종 일반직, 신행교육 강화·포살 청규 제정 등 계획

"변화하는 종무원,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붐, 공무원들의 살아남기 위한 평생교육이 일반화된 요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자발적인 교육체계 수립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이 최근 공개한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교육계획 개요(안)'에 따르면 일반직 종무원들의 평생교육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개발로 불교를 향도하는 신심있는 종무행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변화를 읽어내고 변화를 추구하는 종무원'이란 목표아래 수립된 이 계획안은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이란 조직의 비전과 미션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안에 따르면 평생교육체계는 신입종무원, 입사 년차별 교육, 팀장 및 팀별 교육으로 대상을 구분해 불교소양교육과 직무능력향상교육, 교양교육(양성평등, 친절, 정치 · 경제 · 문화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입종무원들은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조계종사와 불교사 등의 강의를 듣고 사찰의례를 습의하는 2박3일 일정의 사찰 수련회를 거치는 신입교육을 받게 된다. 입사 6개월 이내 종무원들은 3개월 과정의 기본교육을 받고, 3년차까지 종무원은 불교대학(2년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불교대학을 수료한 4년차 이상 근무자들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유마경> <범망경> <육조단경> 등 경전공부와 함께 안거기간에 1차례 포살법회를 열어 자율적인 수행 분위기도 조성하게 된다. 각 단계별로 수련회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올초 각 부서 국장 및 팀장급으로 종무원교육체계 수립팀을 구성, 2개월간 발제와 토론 등 논의를 통해 수립된 것. 이미 지난해 직무교육과 소양강의를 진행한 총무원은 올해부터 신행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해 왔다.

올해 남은 교육은 사찰수련회와 하반기 종무원 불교대학과정이다. 내년 이후 입사자는 새 교육체계에 따라 신도기본교육과 불교대학과정을 사찰에 가서 밟도록 할 계획이다.

종무원들의 신심을 증진시키고 자기계발을 유도하는 이러한 교육체계는 지난 5월 22~23일 양평 남한강연수원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전체연수에서도 드러났다. '변화하는 종무원,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란 주제로 열린 종무원 연수 입제식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은 종단과 불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철한 신행,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종무원들은 이 연수를 통해 바람직한 종무생활을 위한 행동규범(청규) 제정을 결의하기도 했다.

정 · 관 · 경제 · 종교계 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인들과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종무원들. 이들은 직무의 전문성과 함께 확고한 불심으로 불법을 홍포하는 실질적인 포교사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기획실 박정규 홍보팀장은"업무상 만난 분들이 불교에 호감을 갖거나 좀더 공부하고 싶다고 말할 때는 교리 공부와 수행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철밥통'이란 오명을 듣던 공무원들도 생존을 위한 치열한 자기계발 시대에 들어선 요즘, 불교일꾼들의 의욕적인 발심에 불교 중흥의 희망이 엿보인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buddhapia.com

종지협 지원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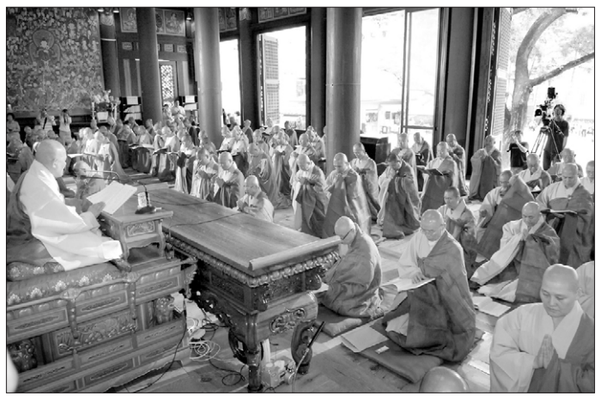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가 지역의 종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제3회 지역종교문화행사 지원공모사업' 심사결과를 6월 2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행사는 △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해설이 있는 다문화 종교순례 △ 제5회 원주 종교가을음악회 △제9회 생명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음악회 △흔의 소리 – 전북 종교예술제 등 4개 사업이다.

지원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각각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총 18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된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포살법회 봉행

지관 스님 포살법사로…조계종 스님 8696명 결계 신고



6월 3일 지관 스님을 법사로 봉행된 조계사 포살법회. <사진=박재완 기자>

"대중 가운데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이와 청정치 못한 이는 없습니까?"

"이 대중 가운데는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이와 청정치 못한 이는 없습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6월 3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지관 스님을 포살법사로 스님 206명이 동참한 가운데 직할교구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하안거부터 시행하는 결계 및 포살제도에 따라 각 교구본사별로 결제기간 중 포살법회를 한 차례 실시하도록 돼있는 가운데, 직할교구인 조계사는 5월 30일 불국사에 이어 두 번째로 포살법회를 봉행한 것.

이날 법회에서 포살법사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 지켜야 할 10가지 중대한 계율인 십중대계(十重大戒)와 그보다 가벼운 48가지 경구계(輕垢戒)를 100분 동안 설했다.

이번 포살에 앞서 조계사에 결계신고를 한 스님은 모두 900여명. 이날 포살에 참석한 스님 이외의 700여 스님들은 6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청화, 혜총, 원학 스님 등을 포살법사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조계사에서 포살법회를 갖는다. 불국사, 조계사에 이어 나머지 23개 교구본사와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에서는 결계신고를 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각각 날짜를 정해 포살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이 올 하안거부터 시행한 결계신고에 동참한 스님은 모두 8969명(6월 3일 현재)으로 전체 재적승 1만3576명(2007년 현재)의 약 6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 총무부 관계자는 "교구본사별로 아직 결계신고가 완전히 취합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결계 신고기간(5월 29일)이 지났지만 계속 접수를 받아 가능한 많은 스님들이 결계신고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결계신고율이 예상보다 낮아 결제기간에도 계속 결계신고를 독려하고, 당분간 계도 및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봄에 첫 결계록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中·미얀마 구호성금 1억2000여만원 모금

미얀마 사이클론과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피해를 받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불자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6월 4일 현재 중국 · 미얀마 구호성금 약 1억2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사회부 관계자는 "불자들이 보살심을 발휘해 중국 · 미얀마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6월 30일까지 불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양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을 전개한 결과, 모두 1억6500여만 원이 답지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6월 15일 태안에서 전달식을 겸한 서해안 피해복구 기원법회를 열고 1차 지원금 4166만원을 뺀 1억2334만원을 피해 불자가정에 생계비와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미얀마 · 중국 이재민 돕기 성금 접수 : 국민은행(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023501-04-127811, 문의 : (02)2011-1830.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필름 광고

불교계도 '美 쇠고기 반대' 나섰다

교계단체 잇단 성명서 발표…대불련 시위참여 공식 선언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밤마다 촛불이 켜진지 6월 5일 현재 29일이 지났다. 촛불집회 초기, 침묵을 지키던 불교계가 정부의 수입고시 발표를 전후해 성명서를 잇달아 내면서 광우병 쇠고기 반대운동에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법안)는 5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와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 지원 · 한상범)와 불교평화연대(공동대표 진관 · 무원 · 황정 · 현종)(이하 불교인권연대)도 5월 3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불교인권연대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를 "전 국민을 평생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한심한 처사", "민족과 국가의 자존을 내팽개친 노예근성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6월 2일에는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정현)가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불련은 6월 2일 '폭력진압으로 시민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식 시위참여를 선언했다.



6월 3일 서울 시청 앞 촛불집회에 참여한 동국대 학생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에는 청화 스님(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계종 교육원장), 원택 스님(녹색연합 공동대표, 겁외사 주지), 지현 스님(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청량사 주지) 등 사회원로와 각계 인사 114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청화 스님 등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가 지난 20년간 국민의 피 ·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방 불교계도 나섰다. 5월 30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 광주전남 포교사단, 광주불교교육원, 호남불교문화원 등 호남지역 불교신행단체가 광주시내 충장로에서 시민 1만여 명과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광주불교인 기도회'를 여는 등 전국 각지의 지역불교계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교계는 발표 단체와 발표시기가 달라도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완전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민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교평화연대 조혜은 간사는 "지속적인 촛불집회에 나서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재협상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촛불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불자는 "1만명 이상이 매일 촛불을 밝힌 지 한 달이 다 돼 발표된 불교계 성명서는 뒷북"이라며 "전 국민이 간절히 호소하는데 조계종 총무원 등 불교계 지도부가 힘을 보태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북한 동포 돕기 '넘치는 온정'

JTS 대북식량지원 성금 모금에 시민 참여 줄이어

"동포가 굶주린다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북식량지원을 위해 대국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JTS에 무려 2억8900만원(5월 31일 현재)의 성금이 모였다. 정토회 산하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이 북한사회 동향을 보고한지 일주일만의 일이다.

JTS는 동포의 밥상 체험 캠페인 '미안하다 동포야'를 전국 13개 도시에서 5월 26~31일까지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JTS 이사장 법륜 스님은 북한사회 동향을 알릴 때부터 11일간(6월5일 현재) 단식하며 대북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터넷 포털, JTS 계좌, 거리캠페인 모금함에 동포의 굶주림을 가슴아파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쌓인 것이다.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도 있었다.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에서 직원과 원아 가족들이 200만원을 모아 전달한 것이다. 원아 20여명은 또한 5월 27일 JTS가 부산항에서 밀가루 200톤을 선적할 때도 찾아와 격려의 노래를 부르고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띄우기도 했다.



6월 29일 북한에 긴급식량 20만톤 지원을 호소한 수경 스님 등 종교사회 지도자들이 쌀독 채우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어떻게 쓰일까. JTS는 현재 중국에서 옥수수를 매입하려고 노력 중이다. JTS는 '북한 해외동포원호 위원회'와 연계된 단체기 때문에 평양 이외의 타 지역에서는 활동이 가능하다. 우선 시급한 식량분 부터 중국에서 사들여 굶주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 함경도 주민들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항에서 선적한 밀가루 200톤은 현재 나진항에 도착, 함경도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된 상태다.

JTS 김애경 사무국장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보며 활동가들도 큰 자극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빨리 육로를 열어 북한 사회에 당장 필요한 곡물 20만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JTS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종교 · 사회지도자들은 6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주민 6~7월 아사를 막기 위한 식량 20만톤 긴급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을 비롯한 종교 · 사회지도자 16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을 살릴 방법은 오직 한국정부의 긴급지원밖에 없으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우선 살려놓고 보는 것이 인도주의정신"이라 강조하며 북한에 20만톤 식량을 긴급지원 할 것을 정부와 국민에 촉구했다.

김강진 기자

"서울·경기 땅에 생명·평화 심는다"

생명 평화탁발순례단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이 5월 31일부터 100일 일정으로 서울 · 경기지역 탁발순례를 시작했다. 이번 순례는 9월 초까지 계속되며, 일주일 단위로 서울 · 경기 · 인천 각 지역을 도보순례하게 된다. 순례단은 경기 여주 · 양평 · 남양주를 시작으로 용인, 동두천, 평택 등을 거쳐 인천 · 강화 · 옹진에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생명평화탁발순례는 매년 3월, '생명과 평화'의 근원적 해결을 기치로 시행돼 왔으나 올해는 현안인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시민사회종교단체들과 함께 연대 해결하기 위해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에 합류, 일정이 늦춰졌다.

순례단은 "이번 생명평화탁발순례는 '평화의 눈으로 한반도 대운하와 선진대안문명사회를 생각하는 순례'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한반도 대운하계획 철회하라"

영남지역 조계종 9개 교구본사 공동성명서

영남지역 조계종 9개 교구본사가 한반도 대운하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등 9개 본사는 6월 2일 대구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6월 12일 오후 3시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9개 교구본사의 공동명의로 발표된다.

운하백지화불교행동 정우식 사무국장은 "영남지역은 대운하 사업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여론이 대운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12일 성명서가 발표되면 영남권 불교계 여론이 '대운하 반대'를 명확하게 표명하게 되므로 대운하 계획 철회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 말했다.

김강진 기자

"고압송전탑이 수행환경 훼손"

영천 전륜사, 종교활동 위축 등 피해 호소

경북 영천의 한 사찰이 고압 송전탑으로 인해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조계종 9교구본사 동화사 말사인 영천시 청통면 전륜사(주지 진구)는 지난 5월 25일 "한국전력이 전륜사와의 약속을 어기고 5월 23일 야밤에 기습적으로 사찰 정면에 고압 송전탑을 설치했다"며 '청통변전소내 신설송전탑 이설 요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륜사는 이어 5월 31일 동화사 앞으로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사찰 옆을 지나는 18개의 고압선과 쇠붙이 송전탑이 주는 위압감과 거부감 때문에 사찰에서의 수행과 종교활동의 기능이 위축됐고 신도들이 발길을 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륜사 주지 진구 스님은 "지난 2004년 완공된 인근 변전소와 송전탑의 영향으로 사찰 스님과 신도들한테 이유 없는 병이 나타나고 있고 휴대폰이 불통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전력이 2004년 8월 사찰과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선로를 묻거나 전신주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최근 일방적으로 송전탑 공사를 벌인 뒤 항의 민원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전 대구전력관리처 관계자는 "사찰 앞에 송전탑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송전탑으로 인한 사찰의 경관 훼손 등은 주변에 큰 나무를 심어서 가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불교방송, 10월 IPTV 서비스

BBS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6월 5일 IPTV로 사업영역을 넓혀 이르면 10월 본방송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1일 영담 스님의 IPTV 등 영상사업 진출 선포 이후 BBS는 5월 29일 방송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 신청을 마쳤다. 편성제작국을 방송제작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TV 방송을 위한 조직개편도 마쳤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등록제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청 후 1개월 내 사업자로 등록될 예정이어서, BBS는 PP등록 후 9월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한다.

조동섭 기자





사도세자 불교식 제향 복원

6월 24일 용주사서…246주기 맞아 100년만에 봉행



당쟁의 소용돌이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도세자<영정사진>를 추모하는 불교식 제향이 100년만에 복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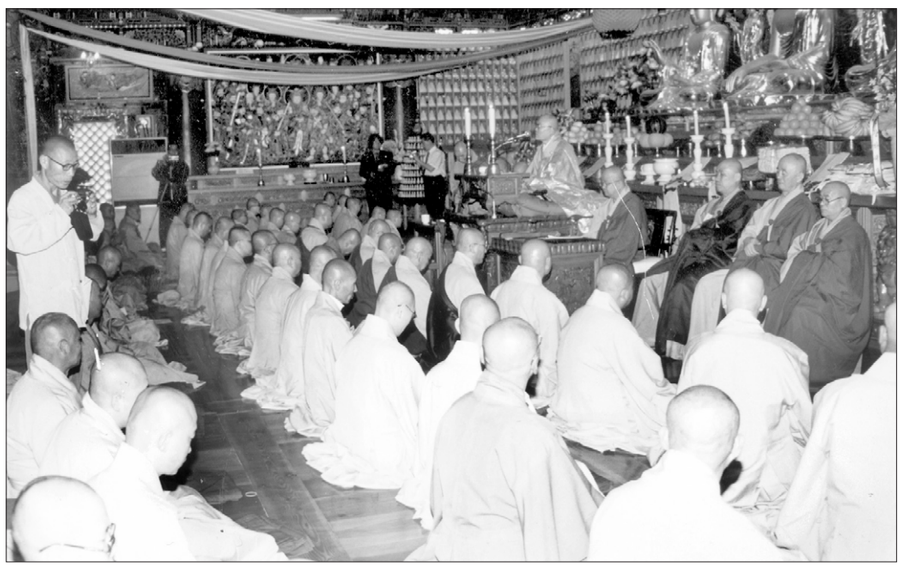
용주사(주지 정호)와 경기문화연대(상임수석대표 문석창)는 246주기 사도세자의 기일을 맞아 100여년 동안 단절 되었던 제향을 복원, 6월 24일 오후 7시 용주사에서 사도세자 246주기 제향을 봉행한다.

이날 제향은 오후 5시 융릉(사도세자릉)과 정조대왕 초장 왕릉터 참배, 오후 7시 홍살문 복원식에 이어 용주사 대웅전에서 본 행사가 시작된다. 타종(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과 헌향 및 헌화(융·건릉봉향회), 개식사와 봉행사(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사도세자 행장 낭독에 이은 제향의식은 독경, 다례, <부모은중경> 독송, 진혼 살풀이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문화재청장과 경기도지사의 추모사, 시민대표의 추도시, 경기문화연대의 '효 문화비전' 선언 등이 진행된다.

용주사 포교국장 덕림 스님은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 정조의 능인 융릉과 건릉(사적 206호)은 우리 효 문화의 상징이고 융·건릉이 있는 용주사는 효의 본찰(本刹)"이라며 "이번 제향은 정조의 효 정신과 문화를 되살려보자는 취지로 일제강점기 이후 명맥이 끊긴 것을 복원해 사도세자 246주기를 맞아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도세자의 불교식 제향 복원은 지난 해 8월 10일 정조대왕 207주기를 맞아 100년 만에 불교식 제향을 복원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극한 효심의 군주였던 정조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부친 사도세자의 제향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종실록에 따르면 1907년 고종(高宗, 조선 26대 왕)이 왕위에서 물러나던 해 용주사에서 제향을 올렸다는 기록만 남아 있을뿐, 그 이후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MBC 인기드라마 '이산' 촬영지로 주목을 받은 용주사는 사도세자(융릉)와 정조(건릉)의 명복을 비는 능침(陵寢, 묘역)사찰로 1790년 정조가 옛 길양사 자리에 중건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삼화불교 비구·비구니 28명 탄생

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총무원장 혜인)은 5월 30일 여주 백화사에서 제 10회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법회 및 하안거 입제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수계산림법회 수계자는 비구 17명, 비구니 11명 등 모두 28명으로 대학졸업 학력이상, 평균연령 38세의 스님들이다. 김성우 기자

스리랑카복지타운 도선사서 위탁키로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 위탁자로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가 결정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사회부 관계자는 6월 3일 "그동안 종회 종책모임 화엄회가 현지 답사에 나서는 등 여러 단체에서 관심을 보였던 스리랑카 복지타운 운영자로 초기에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혜자 스님이 주지로 있는 도선사가 위탁자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무원장스님이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일정을 마친 후인 17일경 도선사와의 협약식에 이은 공식발표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스리랑카복지타운은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지난 2004년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한 복지시설. 2만5천여평의 부지에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이 운영되며 오는 7월 8일 개원한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조 도의 국사 추모 다례재

조계사 대웅전서 봉행…조계종, 종조선양사업 지속 추진 방침

조계종의 원류인 가지산문을 개창했던 조계종조 도의 국사의 기일을 맞아 추모 다례재가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6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원로회의 차석부의장 밀운 스님 등 원로의원 8명을 비롯해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종회의장 자승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상단불공을 식전행사로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행장소개와 총무원장 스님의 추모사, 밀운 스님의 종정 법전스님의 법어대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다섯 번째 도의 종조 다례재를 봉행한 조계종은 종조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달 중국 난창 우민사에서 도의국사 구법기념비 제막식을 가진데 이어, 오는 10월 중국 남화선사에서 순례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종조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우 기자



6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에서 종정 법어를 대독하는 원로의원 밀운 스님. <사진=노덕현 기자>

신도관리 강화 프로그램 개발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 기획실은 가람지기 3.0버전 재무관리 프로그램에 신도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를 연동, 입력의 2중 등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수정 개발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도관리 프로그램에서 접수 처리된 기도, 불사, 제사, 인등, 연등, 회비 등의 입력데이터를 재무관리 3.0버전에서 일별 또는 기간별로 해당 결의서에 바로 등록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했다.

설치를 원하는 사찰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의 가람지기 재무관리 3.0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된다. 김성우 기자

'남북통일기원' 백고좌 법회 개최

대구 법왕사서 18일부터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기원을 위해 한국불교의 선지식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법왕사 큰법당에서 '경·율·론 삼장'을 주제로 6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8회 백고좌대법회를 개최한다.

법왕사는 6월 18일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법문을 시작으로 입제해 무진장 스님(동산불교대학장), 도문 스님(죽림정사 조실) 등의 설법을 진행한 후, 100일차인 9월 30일 종진 스님(해인사 율주) 법문으로 회향과 함께 보살계 불명수지 법회도 봉행한다.

백고좌 법회는 100분의 큰스님을 모셔 100일 동안 법문을 듣는 법회. 올해 제18회를 맞는 대구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대표적인 백고좌 법회로 평가 받고 있다.

실상 스님은 "올해 백고좌법회는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발원을 담아 준비했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왕사는 6월 18일 백고좌법회 입제 전인 17일 저녁 7시에는 범능 스님, 이상 스님, 유진박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를 연다. 6월 20~22일에는 설악산 오세암과 봉정암 순례법회도 열 예정이다. (053)766-3747 조동섭 기자

봉원사, 청소년에 장학금

서울 봉원사 불자 신행단체인 원각회(회장 노대행심)는 6월 11일 설법전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06년부터 장학금을 수여해 온 원각회는 이날 어려운 형편에도 꿋꿋이 학업에 정진해 온 유수진 양 등 남녀 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원각회 노대행심 회장은 "매년 장학금 전달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상임법사 일운 스님과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소중한 정성들을 밑거름으로 장차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불교생태복지에서 '생명 위기' 해법을"

불교사회복지연구소 학술포럼 개최

대규모 천재지변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생명위기시대의 불교복지의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6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생태! 불교복지를 만나다'란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불교사회복지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생태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1부는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생태!! 왜 이 시대의 화두인가'란 주제발표와 오지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의 토론이, 2부는 김정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의 '생명위기 시대의 불교복지' 발표와 최경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각각 진행된다. 이어 3부는 장희정 단국대학교 강사의 '사찰!! 대안교육을 품다' 발표와 이에 대한 동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대원 스님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02)723-5101 노덕현 기자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불교 철학적 신념 '新경제이론' 으로

해외불교칼럼


'불교경제학' 은 불교철학적 신념에 따라 사람마다 선을 행해 온건 타당한 인간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경제이론이다. 사진은 주식 시황판의 모습.

'불교경제학(Buddhist Economics)' 은 불교 철학적 신념에 따라 사람마다 선을 행함으로써 온건 타당한 인간사회를 발전시켜간다는 비교적 새로운 경제이론이다.

독일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와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부하고 후학을 지도한 에른스트 슈마허 박사가 미얀마의 초대수상인 우누의 경제자문역을 맡던 1955년에 처음 사용한 이 용어는 1966년 동명의 논문을 발표한 이래 불교경제이론의 대명사로 굳혀진다. 뒤이어 1973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재출간 되어 27개 언어로 번역된 그의 저서는 타임스지에 의해 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영향력을 끼친 100대 명저 중 하나로 선정된다.

이를 계기로, 불교국가인 부탄의 경우에는 정부가 앞장을 서서 불교적 정신유산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등을 제안하게 된다. 이는 불교경제학의 요체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국민총생산지수(Gross National Product Index)로 대표되는 통상적인 경제지표와 병행하여 탈 경제적인 행복감(non-economic wellbeing)과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획기적인 실험이라 하겠다. 그 이외 여러 지역에서도 불교적 이상을 일상경제생활과 조화시키고자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불교가 아시아에서 세계전역으로 전파되면서 역사, 문화, 전통, 인습이 전혀 다른 현지의 불자들이 부딪치는 현실적인 애로점들이 적잖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복합적 경제 환경에 직면한 불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적 지식과 연구, 또 구체적 실천방안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07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제1차 불교경제학 토론회' 가 개최되고 전체 참가자 약 50명 가운데 95%에 달하는 서구 지역의 불자들이 동참한다. 헝가리의 코르비누스대학 기업윤리학센터 및 부다페스트 불교대학 동서연구소가 공동 발의한 동 토론회의 기본취지는 불교경제학의 이론과 실천을 연구 개발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상호 연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경제학의 이상과 실천 모델을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참석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8년도 제2차 토론회의 세부 일정이 최근 확정됐다. 태국의 우본라차타니 대학에서 12월 초에 개최되는 동 회합은 정치, 사회, 인종, 문화 등 상호대치적인 여러 측면들을 조율하고, 특히 상이한 종교 및 경제 배경을 조정하여 가능한 합일점을 모색하는 자리다. '자본주의 및 기독교문화가 기반인 사회에서의 불교'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불교문화 속의 불교의 위상' 등이 의제에 오른다.

이를 위해 서구전문가들은 불교경제학 이론을 신규문화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토의하는 한편, 동양 측에서는 당면한 현실정황으로부터 불교경제학의 이론체계를 도출하고자 숙의할 것이다. 그리고 동서 양측의 종교지도자들은 각 해당 신도들에게 종교와 경제가 양립 발전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2008년 12월 1일부터 나흘간 태국의 마히돌 대학 살라야 캠퍼스에서는 '소비자주의 시대의 불교' 를 주제로 별도 회의가 개최되며, 11월과 12월에는 국민총행복지수 등의 분과별 토의도 열린다. 역사적으로 일부 종교 유파들의 선교는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며 흔히 현지인의 착취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대체로 무자비한 무력행사와 강제점령 등 먼저 충분히 겁을 준 다음, 선교집단이 등장하여 학교, 병원, 구호기관의 설립 등 찢겨진 영혼에 사탕발림을 하며 개종(改宗) 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식민제국주의의 첨병인 현지 주구(走狗) 등을 양성하여 장기수탈구조를 체계화한다. 이것이 로마제국의 팍스 로마나(Pax Romana)에서 개발되어 근대서구 열강의 식민지 아귀다툼 가운데 숙성되고 대영제국의 공동번영(Commonwealth)으로 전승된 식민침탈의 전형이자, 종교와 경제가 야합해온 빤한 공식이다. 불교경제학은 이와 다르다. 즉, 더 많이 가지려 다투는 폭력적 독점욕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고 서로 기꺼이 나누자는 비폭력적 공존 및 상생(相生)의 실천개념이다.

출처 : Small is beautiful, Missionaries(answers.com) 등
편역 :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 don't lose my temper at all! 이젠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



A father gave a bag of nails to his little boy with a bad temper saying, "Every time you lose your temper, hammer a nail in the fence!" The first day the boy had driven 37nails into the fence. As he found it easier to hold his temper than to drive those nails into the fence, the number of daily nails gradually dwindled down. At last, he proudly told his father, "I don't lose my temper at all!" And the father said, "Good! From now on, pull out a nail every time that you can hold your temper!" After several days, the young boy could say, "Dad, all the nails were pulled out." The father took his son by the hand and led him to the fence. "Excellent! But look at the holes in the fence. The fence will never be the same. When you say things in anger, they leave a scar just like this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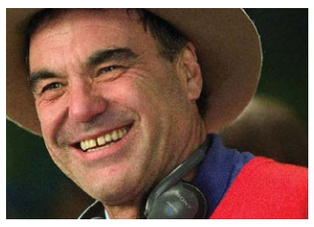
아버지가 성질이 거친 아들에게 한 봉지의 못을 주며 말했다. "화가 날 때마다 이걸 한 개씩 담장에 박도록 해라." 아들은 첫날 서른일곱 개의 못을 박았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그는 못을 박느니 화를 참는 게 더 쉽다는 걸 알았다.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랑스레 말했다. "이젠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했다. "잘했구나, 그럼 이제부턴 화를 참을 수 있을 때마다 박힌 못을 한 개씩 뽑도록 해라." 며칠이 지나자 아이가 말했다. "아빠, 못이 다 뽑혔거든요."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담장으로 데리고 갔다. "참 잘했다. 그런데 여기 담장에 난 구멍들을 봐라. 이젠 담장이 예전과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 네가 화를 내며 말할 때마다 이 구멍들처럼 상처를 남기는 거란다."

번안 :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월드스타 ★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❸

"모든 종교가 옳다고 생각해요"

영화 '하늘과 땅' 서 불교적 메시지 전달
"억지로 하지 말고 되어 지도록 놔둬야"



그럼 할리우드의 영상전법사 올리버 스톤 감독의 작품 중 불교적 색채가 가장 두드러진 '하늘과 땅' 에 대한 인터뷰로 돌아가 보자. 기자가 말한다. "감독님은 이 영화의 끝 언저리에 이런 내레이션을 내놓고 있어요. '만일 스님의 말이 옳다면,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 생겨나는 것이라면, 고통(suffering)은 우리에게 오히려 선물이 되는 것이며…또한 고통은 우리가 약해지려 할 땐 강해지도록 이끌어주고, 두려움에 떨 때 용기를 주며, 어지러운 혼란 가운데 지혜를 주며, 또한 우리가 부질없이 집착하지 않도록 하며….' 대개 이런 얘긴데 말이죠. 그런데 이건 불교의 중심교리일 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크리스천의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감독님이 가톨릭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까닭은 뭘까요?"

"부정적이라니요? 그건 전혀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저는 불자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지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이슬람이든 가톨릭이든 그밖에 무슨 종교든 다 좋습니다. 또한 불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한 종교든 무엇이든 옳다고 여기지요.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편하게 대하는 겁니다." 기자가 되받는다. "그렇군요. 아마도 제가 지닌 종교관의 한계인 것 같군요." "글쎄요, 그보다는 불교의 포용성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실 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제가 관객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기독교적 원죄의식의 강요, 그리고 고통의 강요였죠." 사실 원죄(Original Sin)란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이들에겐 상당히 당혹스런 단어다. 출생 당사자가 누구와 미리 의논을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출생이 곧 원죄의 발단이라면 죄인으로 태어나게 한 부모는 천천지원수란 건가? 그렇다면 산부인과의 신생아실은 새 생명을 반겨 맞는 희열이 아니라 비탄의 울부짖음으로 채워져야 하나? 그리고 장례식은 고운 인연과의 아쉬운 헤어짐의 장이 아니라, 또한 명의 죄인을 영구 폐기처분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나?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혼란만 더할 뿐이다. 이는 오늘날 모든 서구불자들이나 올리버 스톤 도반도 다 마찬가지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원죄의식의 강요, 고통의 강요, 그 부분은 주인공인 리리에 못잖게 감독인 저 자신마저 매우 혼란스럽게 했죠. 잘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성화나 성상은 온몸에 못질, 채찍질을 당한 피투성이의 사람들을 상상하여 묘사한 거죠. 저 역시 이 영화 속에 고통의 상징으로 예수의 고상을 얼핏 삽입했어요. 그것이 기독교적 배경을 지닌 남자주인공이 보여준 고통에 대한 인식이자 반응일 테니까요. 그러나 불교적 환경에서 성장한 리리는 그와 다른 길을 택하죠. 고통에 임해 굳이 순교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보다는 스스로 노력하여 차근차근 자기변화를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불교에는 늘 어디엔가 숨구멍이 트여 있어요. 그런데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에게선 그런 유연성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트남전쟁의 영웅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미국사회와 자본주의가 가하는 중압감 때문에 점차 폐쇄되고 경직되어 가는 거죠. 자아의 평가에 극도로 가혹한 그는 결국 인생의 패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기독교적 성장환경에서 비롯한다고 봐요. 그러나 베트남전쟁의 희생자로서 자본주의사회인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그녀는 달라요. 삶이란 곱든 밉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올곧게 살아가다보면 길은 트이게 마련인 것, 그것이 그녀의 불교적 인생관인 거죠." 문득 타이거 우즈 도반의 엄마보살님이 아들에게 한 말이 떠오른다. "삶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삶이 그냥 되어지도록 놔둬라." 또 다른 할리우드 영상전법사인 조지 루커스 도반은 '스타워즈' 시리즈를 통해 불교철학의 총체적 법문을 장엄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펼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올리버 스톤 도반은 이처럼 우리 불자들이 날마다 부대끼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 곧 생활 속의 불교를 미려하고 섬세한 영상물을 통해 쉽게 풀어 보여준다.

성휴 스님



일주문



원로의원 동춘스님 미얀마 구호성금
조계종 원로의원 동춘 스님은 6월 4일 총무원을 방문,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미얀마 재난구호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구리·남양주 불교환경연대 물사랑 축제
구리 · 남양주 불교환경연대 대표 혜만 스님은 6월 14일 오전10시 '제1회 가족과 함께하는 물사랑 축제'를 연다. (031)577-1761



김영배 교수 일석국어학상 수상
김영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중세국어자료역주와 남북한방언연구에 남긴 업적으로 제6회 일석국어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6월9일 오후6시 서울 힘춘회관에서 열린다.



공불련 수계법회 봉행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하복동 회장은 6월 14~15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공무원불자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739-1080



대불청 전국청년대회 개최
대한불교청년회 박법수 회장은 6월 14~15일 광주 무각사에서 제27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02)738-3385



고려 사경문화 강좌 열어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은 6월 14일 오후 2시 대전시립미술관 1층 세미나실에서 '고려의 사경문화'를 주제로 강좌를 연다. (042)602-3216

서희건설, 동국대에 발전기금 10억원 기부



서희건설(회장 이봉관 · 사진 오른쪽)이 동국대(총장 오영교)에 학교발전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 5월 30일 동국대 총장실에서 열린 학교발전기금 약정식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학교발전을 위해 작지만 힘을 보태고 싶었다. 108프로젝트 발전기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인사

BBS 불교방송(이사장 영담) 방송제작국장 전승환, 경영기획실 기획심의팀장 류재호, 방송제작국 편성전략팀장 박상필, 방송제작국 기획제작팀장 김형만, 방송제작국 포교제작팀장 문태준, 보도국 신문팀장 배재수, 기술영상국 라디오기술팀장 박성일, 기술영상국 영상촬영팀장 허선명.

동국대 서울캠퍼스 사업개발본부장 김채환, 대외협력단장 이선인.

"부자는 작은습관부터 시작"

불기협, 장만순 지점장 초청 강연



"월급 통장부터 CMA로 바꾸세요. 적립식 상품에 10년만 투자하면 목돈이 생깁니다"

6월 2일 서울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열린 '불교와 경제' 주제의 강좌는 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가 교계 기자간 친목과 소양 함양을 위해 처음 마련했다. 경제전문가 장만순 지점장(하나대투증권 청담지점 · 사진)이 강연했다.

장만순 지점장은 중학교 때부터 불교학생회 활동을 해온 불자로 연세대 졸업, 단국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하나대투증권 청담지점에서 근무하는 불교 인재다.

장만순 지점장은 '한국경제전망 및 주식투자로 부자만들기'를 주제로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현황을 살펴라 ▲금융상품 트렌드를 읽어라 ▲작은 습관부터 가져라 ▲직접투자는 4~5년 정도 장기적으로 하라 ▲적립식 투자를 적극 활용하라고 강연했다.

장 지점장은 세계경제를 "미국경제 부진, 중국경제 고성장 지속, 일본경제 회복세 정체, 유럽경제 완만한 둔화추세"라 설명하며 "현재의 고유가 등 원자재 인상은 세계적 저금리에 따른 원자재 투기세력 때문"이라 말했다.

그는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나,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져 어둡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장만순 지점장은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 "일시적 하락을 보이는 것은 수급상황이 바뀌면 재급등 할 수 있지만, 강남 · 파주 · 일산 등 버블세븐 지역에서 하락 조짐이 보이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다음의 재테크 수단으로 그는 주식투자를 권했다.

장 지점장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유가로 대체에너지가 주목받고, 환경 및 건강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며 관련 종목들의 투자를 권했다.

그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나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와 비교했을 때 코스피 지수의 미래는 밝다"며, "한국증시는 2015년까지는 상승할 것"이라 말했다. 장만순 지점장은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이 등장으로 기관 등의 주식매입이 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장 지점장은 "부자는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0.2% 이자를 주는 월급통장부터 5.4% 이자의 CMA로 바꾸자"고 권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재정자립과 개산 100주년 사업에 최선"

세민 스님, 조계사 주지 취임식서 밝혀



"조계사의 재정 안정과 2010년 개산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초하루법회를 겸한 주지 취임식을 조용히 봉행한 세민 스님은 조계종 직할교구 조계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사찰 재정자립에 최우선 과제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민 스님은 취임사에서 "과중한 부채로 조계사 안정과 발전이 장애를 받고 있어 재정자립을 위한 343일 조상천도재를 봉행하겠다"며 "2010년 조계사 개산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와 종지종풍 수호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세민 스님은 또 "전 주지 원학 스님께서 추진하셨던 불사를 이어받아 조계사가 제2의 도약을 이루고 종단과 한국불교가 안정과 번영을 맞이하도록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민 스님이 계획한 천도재는 오는 6월 28일 입재해 2009년 6월 5일 회향된다. 기도 기간 동안 모두 7차례의 49재가 진행된다. 세민스님은 해인사 주지 소임을 맡았을 때도 '1021일 천도재'를 봉행해 해인사 재정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지 취임식을 소리 내지 않고 간소하게 치른 세민 스님이 천도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포교 1번지 조계사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우 기자

문화재 환수법안 발의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



해외로 무단방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5월 30일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은 국회에 발의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서 문화재 환수와 활용정책 수립을 입법화했다.

법률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해외문화재 환수와 활용추진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장은 10년마다 문화재 환수와 활용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외문화재환수 및 활용추진단이 실무 지원을 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에 상당수의 문화재가 유출됐지만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계로는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보존 · 관리를 위한 보호 조치가 불가능해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연꽃 전통문화체험 열어



서울 성동구립 '연꽃 어린이집(원장 장명자)'은 5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미타사(주지 상덕) 앞마당에서 제 8회 '연꽃 전통문화체험'을 열었다. 행사에는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가했다. 노덕현 기자

옥천경찰서불자회 해인사 순례



옥천경찰서 불자회(회장 전동호)는 5월31일 경승회 지원 스님을 지도법사로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 해인사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회원들은 군민의 안전과 옥천경찰서의 발전을 기원하는 108배를 올렸다. 손효선 기자

감로심장회 무료검진 실시



(사)대한불교감로심장회(이사장 정명)는 6월 1일 진주시 망경동 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 상반기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개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는 5월 20일 경주시 강동면 종무원사에서 총무원장 운산,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 등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종무원 개원 및 신임 종무원장 혜봉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나주 죽림사 주지 진산식 봉행



나주 죽림사 주지 재연 스님(사진오른쪽에서 두번째)의 진산식이 6월 4일 죽림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죽림사는 조계종 제18교구 백양사 말사다. 진산식은 1부 진산식 2부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봉행됐다. 양행선 전남지사장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수치의 비밀 ◆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6. 28(토) 오전 9시 ~ 6. 29(일) 오후 1시(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각 반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0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성인병 (당뇨 · 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뽕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뽕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지친 마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남양주서 한의원 운영하며 지역민에 인술 펼치는 성덕 스님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다. 병원에서는 흔히 몸의 병만 치료한다. 한 번 상상해보자, 지친 마음까지 편안히 다스릴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어떠할지. 돈 없는 사람도 박대하지 않고 문턱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병원이 곳곳에 있다면 얼마나 훈훈할까.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마을에 이름난 한의원이 하나 있다. 한의원이니 당연히 한방으로 병을 잘 고쳐 유명할 것이다. 여기에다 더 특별한 비밀이 숨어있다. 이 병원 원장 한의사가 '스님'이라는 사실과 이 한의원은 궁핍한 사람에게서는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6월 3일 남양주 '삼의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성덕 스님을 찾았다. 병원도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돈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싶었다. 아무리 스님이 운영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돈 받습니다. 단지, 돈이 없다고 해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몇 번 인터뷰를 고사한 스님이 말했다.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해왔는지 조차 잊었다는 스님. 별로 내세우고 싶지 않아서인지 자신의 '보시'이력을 상세히 밝히기는 꺼려하는 듯 했다.

그럼에도 스님 주위에서 살펴본 이들은 스님이 어떻게 복지행을 실천하는지 알고 있다. 자신의 행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스님을 대신해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 이홍표 이사장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침술 봉사 해주신지는 벌써 30년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에는 몽골 고려사에서 4박 5일 동안 수백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기도 했다"며 "스님은 항상 대중을 위해 애쓰시는 분"이라 밝혔다.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한의사 성덕 스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침술 봉사를 하는 모습.

스님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에는 서울 금강선원 2층에서 침술봉사를 펼치고 있다. 정해진 일정은 이 정도지만 스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다. 스님은 남양주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마을 의료봉사는 수시로 나가고 조그만 지방 사찰에도 가끔 찾아가 의료봉사를 행한다.

소문을 들은 환자들이 직접 삼의한의원에 찾아와도 스님은 기꺼이 맞아들인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한의원 2층에 방사까지 마련한 스님이다. 스님은 "편하게 치료받고 가시라고 마련했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더 덧붙였다.

"혹 주위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세요. 그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지적 시각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병원에 찾지 못한다.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면 어김없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스님의 복지행이 소중한 것은 굳이 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부담 없이 병을 고치며 따뜻한 마음까지 가져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리라.

스님이 남양주로 내려온 것은 3년 전쯤이다. 약 35년 동안 서울 제기동에서 3대를 이어온 한의원을 운영해오다(스님의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한의사였다) 모두 버리고 '사찰 주지' 소임에 더 매진하고자 남양주로 내려왔다. 그러나 스님의 의술과 보시행을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의원을 다시 열어달라 계속해서 청한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결국 다시 한의원 문을 열 수 밖에 없었다.

스님은 삼의한의원에서 매일 오후 1시~7시 진료한다. 오전 시간에는 스님 본연의 업무, 즉 사찰 업무를 본다. 삼의한의원 바로 옆에 있는 지혜정사가 스님의 사찰이다.

스님이 한의사라는 사실은 여간 특이한 일이 아니다. '한의학'자체가 동양의학이다 보니, 불교사상과 맥이 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한의사가 불교에 심취한 경우는 있지만 말이다.

"스님들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 한의학이라는 전문 영역을 갖고 있으니 포교도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 참 좋거든요."

소리 없는 봉사가 때로는 훨씬 더 큰 울림을 준다. 요란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귀히 여긴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든 소리 없이 일하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성취감이나 보람 이런 감정도 없어요. 그저 내 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것이지요. 모든 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저 그렇게 살 겁니다."

남양주/글 · 사진=김강진 기자



"창문 밖 세상이 보고싶어요"

다발성경화증 앓는 이달의 환우 송진희씨

송진희(26·사진)씨는 10년째 창문 쪽만 보고 있다. 병으로 시력을 잃은 지 오래지만 창문 너머 세상에 대한 궁금증은 송씨 가슴에 늘 자리 잡고 있다.

송씨가 처음 다발성경화증이라는 낯선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99년 2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였다. 한 번 발병된 병은 악화일로로 나아가 시력까지 앗아갔다. 학교생활도, 검정고시도 치지 못했다. 혼자 힘으로 밖에 나갈 수도 없다. 다발성 경화증은 희귀난치성질환의 하나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질환이다. 이 병의 특징인 감각 및 운동마비 · 언어장애 · 시력 장애 등을 송씨는 그대로 겪고 있다.

투병을 시작한지 10년.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잠깐 병세가 좋아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병은 증상이 악화되고 완화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그래도 항암치료의 예후가 좋아 혼자 앉을 수도 있게 됐다. 송씨는 병원에서 현재 상태에 맞는 '마페라 항암제'를 사용하면 경과가 더 좋아질 것이라 들었다. 하지만 5회 투여에 1100만원이 발생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치료를 주저하고 있다. 그동안 송씨의 치료에 들어간 치료비만 1억 6천 만원. 송씨의 부모님과 오빠는 신용불량자가 되기에 이르렀다.

창문 밖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그날까지, 송씨는 견뎌낼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김강진 기자

복지현장을 달리는 사람들

"이론·실무 겸비한 복지인 될 것"

복지현장에서는 흔히 현장과 이론 모두 갖추기가 힘들다고들 한다. 이론과 현장이 적절히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안산 부곡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선) 김민정 부장(38)은 그런 이상과 현실을 잘 조합해 불교사회복지의 터전 안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복지인이다. 김 부장은 어떻게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고 있을까.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김민정 부장



김 부장이 불교사회복지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것은 1994년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송파가정파견원봉사센터에서 일하게 됐다.

"그땐 불자라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불교 쪽을 의식한 것도 아니고 학교 선배 소개로 각현 스님과 인연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벌써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적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이 이동을 거듭하는데 김 부장은 이렇게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분명 불교사회복지 안에서 무엇인가 봤기 때문일 것.

"입사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었지요. 연꽃마을 법인단체에서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구요."

김 부장은 지난해까지 안산1대학과 경원대학, 2개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를 맡은 바 있다. 꿈을 이룬 것이다. 복지관 부장이라는 자리가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역시 그에게 가장 힘이 된 것은 스님들의 '칭찬'이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회복지사였던 그에게 "잘 한다"는 칭찬 한마디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그도 직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주기 위해 애쓴다.

연꽃마을과 인연 불교사회복지 첫 발

대학 강단서 사회복지학 강의 맡기도

현장과 이론을 모두 아우르는 것은 김 부장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학교와 복지관에도 모두 도움이 된다. 복지관에서는 이론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김 부장이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이다.

김부장의 '복지 화두'는 단연 불교사회복지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교사회복지가 가진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고 한다.

"불교의 '인연'은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있으면서 불자들이 끈끈하게, 그러나 조용조용하게 도와주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불자 봉사자들은 보이지 않게 노력하세요. 그래서 항상 배운답니다."

요즘 그는 '안산'이라는 지역사회복지와 불교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도 고민한다.

"지역사회에서 우리 복지관의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합니다. 자비 실천을 통한 맑고 향기로운 세상 만들기, 그것이 저희의 사명인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관장 스님과 자비를 실천 할 수 있는 마음과 맑고 향기로운 지역 만들기를 최종적인 사명으로 삼자고 늘 이야기합니다."

스님들에게서 '복지의 마음'을 배웠다는 김 부장. 앞으로는 사회복지 현장, 이론에다 불교사회복지정신까지 더한 깊은 마음의 사회복지를 행하겠다고 다짐한다.

"올바른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을 다하는 복지인이 되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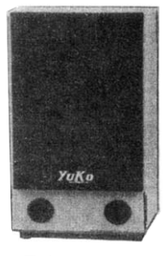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오시는 길 ▷



"학생은 고객 아닌 가르칠 대상"

홍기삼 前 동국대 총장 불교문화연구원 학술회의서



5월 30일 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에서 홍기삼 前총장은 인문학 위기를 진단하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은 고객이 아니라 엄히 꾸짖고 가르쳐야할 대상이다. 엄히 가르치되 그 보다 깊은 사랑으로 항상 보살피고 혼신의 힘을 다해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

대학가를 휩쓴 기업경영 마인드를 비판하며 진정한 대학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홍기삼 前 동국대 총장은 5월 30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원)이 '한 · 중 · 일 삼국의 불교와 인문학의 소통'을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인문학 위기를 진단하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기삼 前 총장의 이번 강연은 동국대 총장 퇴임 이후 첫 공식행사 참여다. 교계에서는 상시입학 정원관리시스템 등 동국대 내부 반발을 대변해 '대학 구조조정 전도사'라 불리는 오영교 총장(동국대)에게 던진 메시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홍기삼 前 총장의 기조강연 중 인문학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비판한 대목은 오늘의 대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홍기삼 前 총장은 "대학을 슈퍼마켓으로, 교수를 슈퍼마켓 점원으로 설명한 총장도 있었다"면서, "대학도 경영의 대상이지만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경영과 달리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경영이다. 상품(학문)을 팔기 위해 고객(학생)의 비위를 맞추거나 상품을 매개로 이득을 취하려는 기업적 경영마인드에는 반교육적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자는 상거래가 끝나면 관계가 청산되는 상인이 아니다. 자식의 미래를 염려하는 부모와 같이 제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학자의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 前 총장은 "교육부는 정원 축소와 지원금을 연계하는 등 대학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학과 학문저질화의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는 대국민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기삼 前 총장은 인문학 위기와 대학 및 교육행정의 반교육적 행태의 원인을 교육과 대학 본질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의 교육 참여 때문으로 봤다.

한편 지앙즈치앙 연구원(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은 '중국의 현대성 시야로 본 근현대불교'에서 현대성의 시야에 맞춰 중국 근현대 불교 흐름을 살폈다. 그는 현대불교학의 방법이 불교의 본성과 어떻게 조화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남동신 교수(덕성여대)는 '한국불교사의 인식과 방법론'을 발표했다. 남 교수는 "한국불교의 특성으로 호국불교가 지목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전에서 말하는 호국은 국왕이 각종 재난에서 국토를 지키는 것이다. 호국을 불교가 위기로부터 국가(국왕)를 수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김승호 교수(동국대)는 '승가문학에 있어 자아표출과 그 문학사적 의의'를 통해 "담론 주체로서의 자아의 현시 여부가 유가문학과 승가문학을 가름 짓는다"고 주장했다.

오오타니 에이이치 연구원(일본 남산 종교문화연구소)은 '근대 일본불교사 연구의 방법론'에서 근대일본불교사 연구방법론을 ▲역사학적 접근 ▲사회사적 접근 ▲불교사적 접근 ▲운동사적 접근 ▲제도사적 접근 ▲문화사적 접근 ▲사상적 접근 ▲구축주의적인 접근으로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석가모니 가르침은 탈권력"

김호성 교수 인도철학회에서 주장


5월 30일 부산 동아대에서 열린 인도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힌두교의 불교에서의 권력과 탈권력의 문제'를 발표한 김호성 교수(좌).

제18대 총선 이후 불교의 정치참여가 회자되는 가운데, 석가모니의 근본 가르침은 '탈권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5월 30일 부산 동아대에서 '인도종교와 정치이념'을 주제로 열린 인도철학회(회장 법산) 춘계 학술대회에서 김호성 교수(동국대)는 '힌두교와 불교에서의 권력과 탈권력의 문제'를 발표했다.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독당과 평화통일가정당의 출현을 정교분리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그는 "불교계에서도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 전제했다.

김 교수는 불교의 정치참여에 대해 <바가바드기타>의 왕법과 해탈론의 겸수론과 <붓다차리타>의 해탈법 전수(專修)를 통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왕법과 해탈법의 겸수와 전수를 극명히 나타낸 것이 <붓다차리타>"라고 말했다. 그는 "<바가바드기타>에서 아르쥬나는 가주기에는 왕법을 실천했고, 노후에 임서기를 맞아 해탈법을 실천했다"면서 "싯다르타는 임서기에 행해야할 수행을 가주기부터 실천했다"고 비교했다. 김호성 교수는 "불교의 입장은 왕법을 겸수하던 힌두교와 달리 해탈법만을 전수하는 출가주의적 입장이었다. 이는 권력이 아니라 탈권력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고대 인도사회는 삶을 ▲스승 밑에서 학습하는 청년 시절의 범행기(梵行期) ▲가정에서 생활하며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가주기(家住期) ▲가정과 재산을 아들에서 물려주고 숲 속에 들어가 은거하는 임서기(林棲期) ▲숲 속의 거처까지 버리고 완전한 무소유로 걸식하고 더러는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생활에 들어가는 유행기(遊行期)의 4단계로 나눴다.

한국불교학회 김선근 회장 체제 출범



6월 19일, 박세일 교수 초청 강연으로 활동 시작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가 6월 1일 김선근 회장(동국대 교수 · 사진) 체제 출범으로 새 전기를 맞았다. 김선근 회장은 2007년 11월 17일 제34회 한국불교학회 평의원회의에서 선출됐으나 제4차 불교학결집대회 이후로 회장 임기가 늦춰졌었다.

6월 3일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김선근 회장은 "'정법을 보편화 하는 학회, 교단을 빛나게 하는 학회, 불교를 세계화 하는 학회' 슬로건에 맞춰 학회운영을 하겠다"며 해주 스님(동국대), 김상현 교수(동국대), 김용표 교수(동국대) 등을 부회장으로, 학술이사 조성택 교수(고려대), 기획이사 안성두 교수(금강대), 총무이사 하춘생 교무처장(동방불교대학) 등 임원진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각 전공 및 종립학교, 지역 등 모든 것을 안배해 한국불교학 발전을 위한 인재를 두루 등용했다"며 임원진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불교학회 임원진은 5월 31일부터 6일 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도 가졌다. ▲학회의 적법 운영 강조 ▲매학기 2회 상임이사회의 정례화 등을 결의하고, 불교학술진흥상 지원 확대, 산스크리트어 표현 등 불교학술용어 3000여개를 학술지 등을 통해 상용화할 계획도 정했다.

한국 불교학의 세계화를 위해 학회 홈페이지를 개편 · 보완해 영문정보를 제공하고, 연 1회 영문저널도 발간한다. 세계최고 석학을 초청해 국제학술회의도 연다. 학회가 발행하는 <한국불교학>도 학진 학술지 등재 유지를 위해 편집위원회와 별도로 문장교열위원회 등을 둔다. 또 인문사회학 분야 SCI인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등재를 추진한다.

한국불교학회의 새 비전은 '일류학회를 통한 인재불사'로 집약된다. 김 회장은 "33천에 기인한 3만3000명의 월 1만원 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교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박세일 교수(한반도선진화 재단 이사장, 서울대 교수) 초청강연을 연다. 조동섭 기자

'승가교육' 7집 발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승가교육> 7집을 발간 · 보급한다.

<승가교육>은 격년 발행되는 승가교육기관 전문지로 2년간 진행된 교육과 종지 종풍에 관련된 사업을 점검해, 승가교육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승가교육> 7집에는 ▲<금강경> 표준본 편찬 ▲<선원청규> 편찬 ▲간화선 대중화 사업 ▲<선요> 등 강원교재 해석 논란 ▲봉암사 결사에 동참했던 혜명 스님과 묘엄 스님 인터뷰 등 최근 종단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불학연구소 현종 스님은 "<선요> <도서> 등 종단본 승가교육교재에 대한 교계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 <승가교육>을 통한 활발한 토론이 교재 표준화 작업으로 이어져 종단 정체성 확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승가교육>의 강원교재 해석 · 토론 등은 <선요> 등에 대한 학술적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놓는 계기로 평가된다. 노덕현 기자

건봉사 템플스테이 및 수련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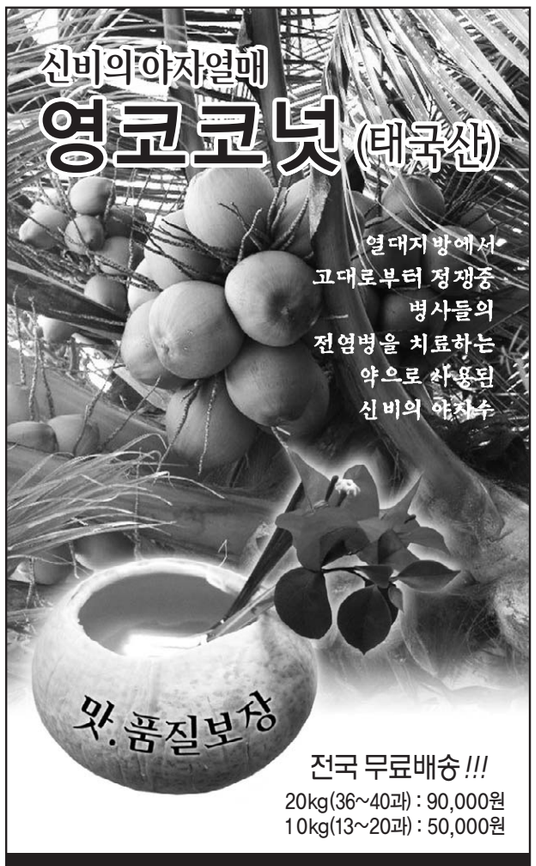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치아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금강산 건봉사는 아미타 염불 만일 기도도량이자
임란당시 사명대사가 승군을 일으킨 호국도량입니다.
이 유서깊고 아름다운 천년고찰 건봉사에서
바쁜 생활에 지친 분들의 삶의 재충전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시

◆일 시 : 1차 _ 2008년 7월 11 ~ 13일
(2박 3일, 일반인 선착순 30명)
2차 _ 2008년 7월 18 ~ 20일
(2박 3일, 일반인 선착순 30명)
◆참가비 : 70,000원
◆준비물 : 필기도구, 운동화, 우산
◆입금계좌 : 농협 247-01-251767(예금주 : 건봉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봉사 종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3)682-8100~2,011-9800-5798 / 팩스 682-5994

우)219-900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지 합장



전국 무료배송 !!!
20kg(36~40과) : 90,000원
10kg(13~20과) : 50,000원

■ 판매처 : (주)굿모닝푸드시스템 031)794-1418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96401-01-160654
예금주 (주)굿모닝푸드시스템

卍 한글 한문 겸용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 · 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게하고 집전자의 작은 애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를(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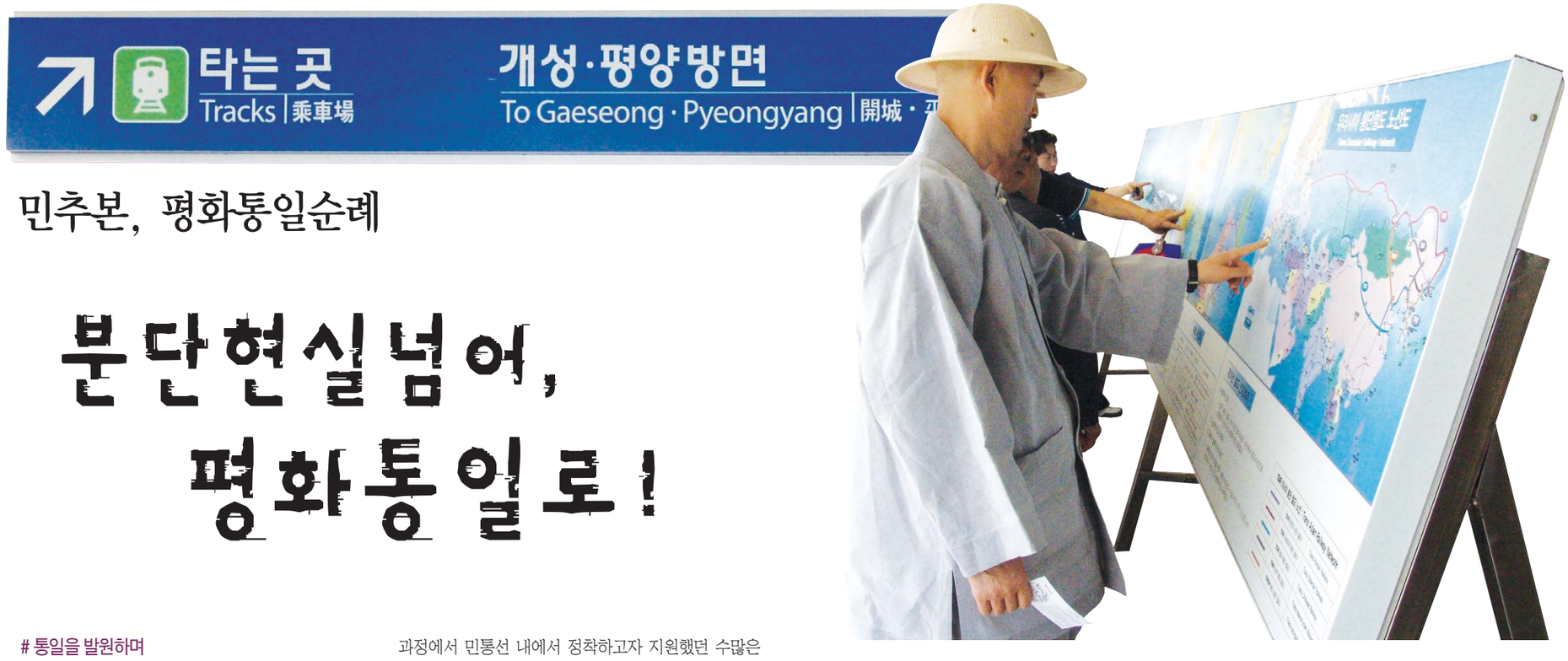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옷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24시간 상담환영 홈페이지 www.yeraeam.com



민추본, 평화통일순례

분단현실넘어, 평화통일로!

통일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분단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통일'의 실체가 잘 와 닿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철책과 철조망, 삼엄한 '안보' 아래에서 갈라진 채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막연한 '분단'이라는 문제를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가 5월 31일 '통일정토를 찾아서 떠나는 2008 평화통일순례'길을 마련했다. 7월까지 5차례 평화통일순례가 진행되는데, 이번은 그 두 번째였다. 이번 평화통일순례에는 민추본 사무처장 성묵 스님과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박석율 사무의장, '간잽이' 이동삼 명인,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 8명 등 총 31명이 참가했다. 모든 일정은 <안녕, DMZ>의 저자 최현진씨의 상세한 설명 속에서 진행됐다.

 # 통일을 발원하며

참가자들은 도라산 전망대로 가기 위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서야 했다. 민통선 내 지역은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문자들은 국방부에 명단을 제출하고 민통선 경계 검문소에서 다시 신분증 검사를 거쳐야 한다.

도라산 전망대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통일을 발원하는 '깜짝 법회'를 봉행했다. 참가자들은 불상도 경전도 없이 눈앞에 펼쳐진 북녘 땅을 보며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세웠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 겨레에게 지혜를 심어 주시어 우리 민족의 드높은 기상이 경의선 철도를 따라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라산 전망대는 북한 땅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다. 육안으로 개성 송악산과 시내가 보일 정도다. 바로 코앞의 개성을 구경밖에 할 수 없는 기분, 참가자들은 참담함을 느꼈다. 북한 비무장지대 마을 기정동에 설치된 거대한 인공기와 남쪽 비무장지대 마을 대성동에 설치된 태극기가 서로 마주 보며 경쟁하듯 펄럭이는 모습은 우리의 분단 현실을 일깨워줬다.

 # 분단 속 '삶'의 질곡, 통일촌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여느 시골마을과 다름없이 평화롭고 따스한 이 마을은 이름이 '통일촌'이다. 이곳은 재래종 '장단콩'을 복원, 생산해내고 있다.

통일촌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꽤 고통스러운 역사를 거쳐야 했다.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민통선 내 황무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민통선 내에서 정착하고자 지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뢰 피해를 입었다. 팔 · 다리,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가며 일궈온 논밭인 것이다.

아직도 통일촌을 비롯한 민통선 내 마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길이 아닌 곳은 모두 지뢰밭인데다 비무장지대 깊숙이 자리 잡은 대성동을 제외하고는 세금 혜택도 못 받는다. 또 개간 해놓은 땅의 원주인들이 땅문서를 들고 찾아와 소유권을 주장,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례들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통일'이전에 이들은 삶의 터전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 철마는 대륙으로 달릴 준비가 됐다!

통일촌에서 버스로 약 10여분 정도면 남한 최북단 철도역인 도라산역에 갈 수 있다. 도라산역은 경의선 철도의 시발역이기도 한데, 이후 TSR(시베리아횡단열차)과 TCR(중국횡단열차)로 연결, 유럽대륙으로 뻗어나갈 준비가 한창인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2002년 개성까지 개통된 화물열차가 하루 1번 운행되고 있다. 남쪽으로는 서울역까지 하루 4번 열차가 운행된다.

도라산역은 '통일한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분단으로 반도국가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통일 이후에는 그야말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희망찬 앞길을 보여주는 곳이어서일까,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들은 그 어느 코스보다 도라산역을 찾았을 때 즐거워했다. 미래로 나아갈 이곳의 철길을 걸으며 "앞으로 통일 한국의 주춧돌이 되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 철책, 철조망 없어져야

이밖에도 평화통일순례단은 실향민들의 애향을 담고 있는 임진각, 율곡 이이가 머물렀던 정자 '화석정'과 세종대 명재상 황희의 유적지 '반구정' 등을 돌아보았다. 모두 파주시 안에 있는 유적지들이다. '화석정'과 '반구정'이 분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이들 유적지 부근을 살펴보니 남한군사분계선 인근은 그 어디를 가도 철책과 철조망이 눈에 띄고, 삼엄한 감시 때문에 함부로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된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점점 잊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진짜 우리의 현실을. 현실을 봐야 미래가 보인다. 현재 분단 현실을 잘 챙겨야만 아득하고 추상적인 '평화통일'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파주/글 · 사진=김강진 기자kangkang@buddhapia.com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중-2672호
코한방(韓方)
코막힘,비염,축농증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막힘,비염,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원장 노 동 일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동일한의원
50M
죽전네거리
연지카바레
어촌마을횟집
성서IC
구병원
두류네거리
☎ 053)552-8800

“길에서 죽은 동물들아 미안”

거제 금강사 로드킬 야생동물 위령제

인간의 무관심 속에 길에서 죽어간 동물들의 혼을 기리기 위한 ‘야생동물 위령제’가 6월 5일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에서 열렸다.

이번 위령제는 일반인에게 로드킬(Road-kill)의 실태를 알리고 범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거제 금강사는 2010년 착공 2017년 완공할 거제~통영간 고속도로가 지나게 된다. 대웅전와 거리 33m, 높이 17.9m. 산신각에서는 불과 15m 정도 거리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게 된다. 주지 성원 스님은 “이 공사로 인해 생태계는 교란에 빠져, 멧돼지와 고라니, 꿩 등 야생동물의 로드킬은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말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회는 “거제지역에는 이미 수백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차에 치어 죽거나 인간이 만든 시설물에 갇혀 죽음을 당하고 있다”며 “난개발은 자연을 파괴하고 생물의 멸종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위령제에서는 야생동물의 로드킬 문제를 다룬 황윤 감독의 생태다큐멘터리 ‘어느 날 그 길가에서’를 상영했다. 박지원 기자

“茶향처럼 맑고 향기롭게”

제14회 동래차밭골문화제 열려



금어사 선다회가 햇차공양 시연회를 선보이고 있다.

제14회 동래차밭골문화제가 5월 31일 오후 2시 금강공원 내 금어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수확해 만들어진 햇차를 다함께 공양하고, 시인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담소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차밭골다신제를 시작으로 능소화나무 헌다례, 말차오방선 명상 헌공다례, 부산시민 차밭골 시사랑백일장, 30인 숲길시화전과 시낭송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렸다. 또 차밭골 동인지의 네 번째 출판 기념봉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림사 주지 명예 스님, 문화예술원 김혜광 원장, 천주교 김계춘 신부, 부산평화방송 김성주 신부, 시조시인 30명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 · 구독
문의 (051)632-0064

푸른 대숲에서 나를 찾다

밀양 표충사 녹음명상 템플스테이


대나무숲에서 명상 체험을 할 수 있는 표충사 녹음명상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얻고 있다.

힘들고 지친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고파 들어온 산사. 하지만 산사에서의 1박2일이 흐른 지금, 그들은 놀랍게도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준비를 한다. 내 뜻대로 되는 법이 없는 세상을 현명하고 즐겁게 맞는 방법. 산사수련회에서 배우고 간다. 5월 31일~6월 1일 1박2일간 밀양 표충사에서 열린 ‘녹음(綠陰) 명상 템플스테이’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새벽 예불로 천지를 깨우다

6월 1일 새벽 3시. 부족한 잠을 깨우는 목탁 소리로 하루가 시작된다. 표충사(주지 청운) 템플스테이에서 맞는 새벽은 천지만물을 하나 둘 깨우는 사물의 소리로 시작된다.

템플스테이를 지도하는 혜원 스님은 “쇠가죽을 붙여 만든 법고는 땅의 짐승을, 구름 모양이 섞인 운판은 하늘의 날짐승을, 물고기 모양의 목어는 물 속 생물을, 범종은 천상과 지옥의 중생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며 참가자들에게 불전사물의 울림을 설명했다.

이어 모든 참가자가 법당에 모여 첫 새벽예불을 시작했다. <천수경>, 석가모니불 정근, 참회와 발원, <반야심경> 등 새벽예불, 108배, 온돌방 참선으로 약 3시간동안 진행됐다.

아침 공양 후 청운 스님은 참가자들과 차를 마시며 “불교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돌아가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자연에서 묵은 마음을 털다

표충사의 템플스테이가 타 사찰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바로 ‘녹음명상 프로그램’ 때문. 표충사를 둘러싼 밀양 재약산은 울창한 대나무숲과 사자평 갈대숲, 산들늪이 있어 자연에서의 녹음명상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산길을 따라 십여 분 걸어가면 3만5000평의 아름다운 대나무숲에 다다른다. 이곳은 과거 원효 대사의 창건 터인 죽원정사로, 참가자들은 대나무숲속 바위 위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잎의 소리에 집중한다. 이어 사자평의 억새밭을 둘러본 후 층층폭포와 흑룡폭포 계곡도 산책했다.

또한 천연 생태의 보고로 최근 보존의 목소리가 높아진 산들늪 생태체험도 진행됐다. 밀양참여시민연대 이수완 위원장은 “생태계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템플스테이에서 산들늪 생태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찰 주변 불교문화재와 더불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사찰 뿐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면서 참가자들에게 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행의 끝은 즐거움

예불과 녹음명상을 마친 참가자들이 다시 선방에 모여 앉아 1박2일간 달라진 내면을 관찰했다. 소감문을 통해 이곳에 오게 된 이유와 자책했던 능력, 안분지족의 마음까지 풀어놓았다. 어느 한 사람 허투루 하는 이 없이 사뭇 진지한 가운데 회향식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소감문에 1박2일의 깨침, 성찰, 인고의 과정을 그대로 담았다. 무거운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들른 산사에서 당당하게 현실과 맞서는 법을 배우고 돌아간다.

표충사 녹음명상 템플스테이는 매주 토요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주말을 이용해 산사 체험과 더불어 자연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055)352-1150, www.pyochungsa.or.kr

박지원 기자hdbp@hanmail.net

통영 용봉사 옥와불 점안

통영 용봉사(주지 혜명)에 대형 천연옥와불상이 봉안된다. 용봉사는 6월 15일 오전 천연옥와불점안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점안되는 와불상은 길이 12m 높이 2.4m 규모다. 금강불교 총무원장인 혜명 스님은 7년간에 걸친 불사를 회향하면서 “희유한 선몽으로 취옥석을 발견하고 어려운 가운데 불사를 완성하게 됐다”며 “많은 불자들이 점안법회에 동참해 신심을 증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모든 중국인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한국티벳센터 광성사 중국지진희생자 위한 기도회

한국티벳센터 광성사(주지 소남갈첸)는 6월 1일 오후 4시 법당에서 ‘중국지진희생자를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티베트 고승 빨덴 닥빠 스님은 특별법문에서 “쓰촨성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중국인들이 빨리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며 “티베트는 중국정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유감은 없기에 티베트와 중국 모두 자비심으로 평화롭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기도문을 참석한 신도들과 함께 낭독했다.

한편 광성사는 15일과 22일, 29일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공성과 연기’에 대한 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교복입고 씩씩하게 자라요!”

“할머니 혼자서 절 키우시는데 교복을 사달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했어요(김찬욱 · 17 · 다대고).” “이 교복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저보다 어려운 아이들 돕는 사람 될래요(배태준 · 14 · 다대중).”

5월 26일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부교육청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교복 전달식’이 열렸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본 행사는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정형편에 그늘지지 않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이래 매년 부처하는 복지관에서 교복지원이라는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승낙했다”고 교복지원사업에 동참하게 된 뜻을 밝혔다.

한편 5월 26일에 열린 ‘사랑의 교복 전달식’은 학생 60여명과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오순임, 사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정석한 과장, 내원정사 약사회 안병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사에서 서부교육청 오순임 과장은 “경제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봉 스님은

연등 손수 만들어 판매 수익금으로 교복 지원
80여 청소년에 점심·저녁 제공…활성화 계획

님오신날을 전후로 전 직원이 자원봉사자들과 뜻을 모아 연등을 손수 제작 후 판매해 거둬들인 수익금으로 교복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교복을 지원받게 된 학생들은 부산시 서부교육청 다대동 일대 5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이들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한부모가정 세대, 조손가정 세대, 장애인부모가정 세대 자녀들로 중 · 고등학교 1학년 42명을 선정해 각각 하복 상의 2벌과 하의 1벌씩 지원했다.

기존 교복 한 벌의 가격은 수십만 원대로 교복사마다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이번에 교복을 제작한 교복사의 한 벌 가격은 겨우 7만2000원. 복지관 측과 연계해 원재료 값만 받고 제작하고 있다. 교복지원업체 틴메이드 사장 전이수(53)씨는 “아내가 봉사활동

“예전에 KBS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 한 가정을 후원한 적이 있는데 이때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다름 아닌 교복 지원이었다”며 사랑의 교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랑의 교복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는 한편 저녁 학습지도나 평일 석식지원 등도 계획 중”이라며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뜻을 밝혔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김미진 과장은 “교복을 제작하기 위해 치수를 재다 보면 또래 아이들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마른 학생들이 많은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리부족 탓”이라며 “현재 매일 80여 명의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중 · 석식 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해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사부대중 선 물
지압슬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 · 동 깔창
쪼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재)한중원
한국불교 대승 조계종 입종안내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국불교대승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고자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불기 2552년 4월 15일 창종 하였습니다. 불법홍포의 일선에서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종정 성 수(聖壽)
원로원장 관 각(觀覺) 종회의장 경 공(經供)
총무원장 법 광(法光) 사정원장 성 해(性海)
♠ 입종 구비서류
(1) 입종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호적초본 1통 (4) 여권용 사진 4매
(5) 승려증빙서류 (전 종단 승려증, 사찰 등록증 사본)
(6) 사찰 전경사진 (내외)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 010-4457-6556

3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목탁제조전문
영천목공예사
http://www.ycwoodart.co.kr
실용신안등록 · 디자인등록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작품
영천목공예사의 목탁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국내산 살구나무로 제작한 수작업 목탁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죽비
옻칠 수작업 목탁
수작업 목탁
수작업에 사용한 옻칠은 생칠로 일반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아닌 나무 속까지 침투시키는 칠을 먹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결을 자연그대로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입니다.
목탁제작 3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맑고 청아한 목탁소리를 찾기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300년된 산살구나무로 작업한 제품
경북 영천시 언하1동 167-1번지 054)334-9757 / 011-540-9757
[농협 757-12-096397 안종식]

buddhanews.com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난치병 어린이 성금전달

미숙아로 태어나 '팔로씨사징'(심장질환의 일종)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마음 따뜻한 자비의 성금이 전해졌다.

전북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5월 30일 고창군 신림면 이건민(1)군의 치료비로 100만원을 전달하고 "새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라"며 격려했다.

이군의 부친 이주행씨는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되니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건민이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복지관장 무공 스님은 "이건민 군과 맺은 인연을 복지관의 관훈처럼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보호사업을 통해 소외 받는 지역아동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건민군에게 전달된 의료성금은 4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제8회 '난치병어린이돕기 3000배' 정진기도 대회에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센터 전 직원이 참여해 1배 100원씩 3000배 정진을 통해 모금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양사 템플스테이 삼성 간부 650명 참가

국내 대기업 간부사원들이 기존 연수의 틀을 벗고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다.

장성 백양사(주지 성오)를 찾는 대기업 간부들은 삼성전자(대표이사 이윤우)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650여명이다. 매회 30여명씩 18차례에 걸쳐 백양사에서 참선, 108배, 발우공양 등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자기충전을 할 예정이다.

5월 30일 1차 입제식에서 성오 스님은 "고찰에서 가슴에 담았던 업무 등을 털고 자연을 마음껏 담으면 몸와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문정 실장(백양사 종무실)은 "이번 사찰체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고, 자신을 낮추는 하심과 발우공양을 통한 검소함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불교문화연구 시동 걸렸다"

5월 30일 호남불교문화연구소 개소



5월 30일 전남대에서 열린 호남불교문화연구소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중표 교수.

이웃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세가 약했던 호남에 처음으로 불교문화연구소가 생겼다.

5월 30일 전남대에서 열린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창립대회 및 창립기념 학술세미나에는 법인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행법 스님(광주불교교육원 학장), 수진 스님(담양 용화사 주지)을 비롯해 강정채 총장(전남대), 김민영 대표이사(부산저축은행)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을 맡은 이중표 교수는 "호남불교의 연구는 그 영역의 방대함과 내용적 특성상 전문가 그룹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며 창립취지를 말했다. 이 교수는 "호남불교문화연구소는 호남지역 최초의 불교연구소일뿐더러 종립학교 이외에 설립된 것은 전국 최초"라 설명했다.

그동안 호남불교문화연구는 중앙 학자의 답사나 문헌 고증에 의지했다. 지역학자의 연구도 단편적인 연구에 그치고 개인 역량의 한계로 큰 결실을 얻기 힘들었다.

이중표 교수는 "호남불교문화연구 결과를 시민강좌 · 현장 답사 등으로 지역민과 함께 공유할 것이다. 연구소를 호남불교 연구의 허브로 만들어 호남불교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개소식을 기념해 열린 학술발표회에는 조명제 교수(신라대)가 '조선후기 부휴문파의 동향과 사상'을, 이경화 교수(전남대)가 '호남지역 마애불의 사적 해석'을, 한순미 교수(전남대)가 '호남지역 사찰 공간의 문학적 형상화'를, 배종민 교사(전남과학고)가 '월남사지 연구 경향에 대한 검토와 전망'을 발표했다.

한편 호남불교문화연구소는 소장 이중표 교수와 조윤호 교수(전남대 철학과)를 비롯해 지역 불자 교수들이 회원으로 참가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나는 누구인가'


금산사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참선을 하고 있다.

금산사 집중수행프로그램

일상생활에 지친 바쁜 현대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자신을 찾는 수련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선 나를 깨치다'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은 8월 23~26일(3박 4일), 27~31일(4박 5일) 서래선원에서 개최된다.

프로그램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자신의 수행의지를 다짐하는 예불, 스님으로부터 바른 호흡법과 참선을 배우고 '참 나'를 밝히는 좌선, 하심을 일으키는 108배, 깨어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전달하며 음식의 소중함과 평등한 공양을 의미하는 발우공양, 운력, 포행, 간경(금강경 독경), 염불 등의 집중 수행으로 진행된다.

금산사의 전통문화와 불교의 진수인 참선을 체험하고 어머니의 품속 같은 모악산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수행하는 이번 '선, 나를 깨치다'의 참가자격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KTX를 이용하는 참가자는 10% 할인이 가능하다. (063)548-4441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소년 불자들 많이 오세요"

7월 22일 광주파라미타청소년 캠프 개최

광주파라미타청소년 전국연합캠프 준비가 끝났다.

7월 2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열릴 제11회 파라미타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위해 전국 파라미타청소년 실무자 워크숍이 전남 화순에서 열렸다. 파라미타 전국 지도자들은 행사가 열릴 현장 견학과 행사 준비를 점검했다.

10회에 걸쳐 전국 청소년 불자들이 참여해 온 파라미타청소년 전국연합캠프는 제11회 캠프를 맞아 불교 청소년행사로는 처음 광주전남지역을 찾는다.

'푸른 마음 밝은 꿈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며 전통놀이체험, 유적답사, 물놀이 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본부장 도제 스님(파라미타 광주지부장)은 "이번 파라미타 청소년연합캠프가 열악한 광주전남 청소년 포교의 획기적인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라미타 광주지구는 5월 29일~6월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열고 연꽃 컵등 만들기, 염주만들기 등을 선보여 참가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홍보부스를 준비한 이동배 교법사(파라미타 광주지부 사무국장, 정광고 교법사)는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연등축제를 통해 인기가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 전 북 지 사 : (063)910-5199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익산 마한 거사림회

"불교 생활화와 이웃사랑 실천"

한적한 휴일 오전, 익산시 금마면 평범한 시골 마을의 한 밭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였다. 호미, 괭이 등 농기구를 들고 모인 사람들은 익산 마한 거사림(회장 박중근) 회원들로, 오늘은 마한 거사림 농장에 고구마, 가지, 배추 등의 씨를 뿌리는 날이다.

익산 마한 거사림은 2002년 1월 불교의 생활화와 이웃 사랑 실천을 목적으로 익산지역 거사들 50여명이 모여 창립해 독거노인을 돕기 시작했다.

마한 거사림 농장은 2006년부터 선천성 기형과 성장장애를 앓는 어린이 치료비를 후원하면서 시작됐다. 회원들은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기로 중지를 모았고, 박중근 회장은 흔쾌히 농지 600평을 무상 임대했다. 여기에 거사림 회원들이 노동력을 보태며 마한 거사림 회원들의 농사는 시작됐다.



더 많은 후원위해 수익사업 시작 몸소 땀흘리며 직접 농산물 재배

마한 거사림 회원들은 봄에는 고구마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심는다. 수확기마다 현지 장터를 열어 직접 판매까지 한다.

거사림 회원들은 겨울에도 쉬지 않는다. 손수 메주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에만 메주를 통해 200여만원을 마련했다.

박 회장은 "농사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기대만큼의 수익을 얻지는 못한다. 하지만 땀 흘리며 몸소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면서 회원간 결속력을 다진 것은 가장 큰 결실"이라며 흡족해 했다. 마한 거사림 회원들은 요즘 조경수로 인기 있는 회양목도 키운다.

마한 거사림은 봉사활동도 제일이다. 2005년 진안 수해, 2007년 익산 태풍 피해, 12월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 등에 발 벗고 나섰다. 익산 보석축제, 마라톤대회 등 지역행사에서는 도우미로도 활동했다.

익산에서 푸른 조끼 차림의 '마한 거사림' 회원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마한 거사림은 '익산불교인의 밤' 행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마한 거사림 회원들은 신행활동도 뒤지지 않는다. 년 2회의 강도 높은 수련회를 통해 인근 지역 사찰을 순례하며 법회를 갖는다. 또 천천마한클럽(1000명이 1000원씩을 모아 후원하는 비영리 법인)을 통해 불자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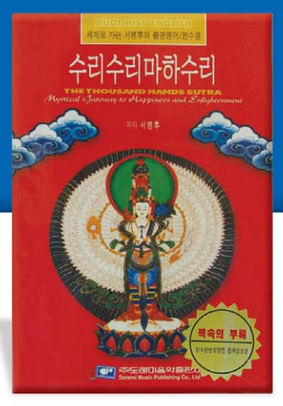
익산 불교의 동량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마한 거사림 회원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박중근 회장은 "마한 거사림 회원들의 소망은 익산 미륵사지가 속히 복원되고 옛 백제 불교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용봉사 동양 최초 "천년 옥와불 점안식" 대법회

7년전 부처님의 선몽으로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취옥석을 발견하여, '대중과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겠다'는 서원으로 불사를 진행하여 오늘에야 원만 회향하였고 마침내 길이 12m 높이 3m의 동양 최초 옥 와불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사를 위해 무루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점안법회에 참석하시어 옥와불 부처님의 가피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금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용봉사 주지 혜명 합장

일시 : 불기 2552년 6월 15일(일요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 용봉사 옥와불 보전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40번지)
문 의 : 055)649-5959 / 010-9244-3358



동양 최초 옥와불 기도도량 용 봉 사

충청지역 문화재 사찰 안전 '적신호'

개태·법주·가산사 전각 균열 심각…붕괴위험 대비책 시급

충청도의 대표 사찰이라 할 수 있는 논산 개태사(주지 양산)와 속리산 법주사(주지 노현), 옥천 가산사(주지 지승)의 문화재 안전에 비상 신호등이 켜졌다. 대웅전 및 석탑이 보문 제219호로 지정된 개태사의 경우 대웅전 내에서 낙토(落土), 뒷벽에서 균열, 기와가 떨어지는 등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태사 주지 양산 스님은 6월 3일 "지난 1일 대웅전에서 불자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천장 일부의 흙덩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어 현재 대웅전 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또한 대웅전 뒤쪽도 벽의 심한 균열과 기와가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 출입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문식 단국대(사학과) 교수는 "개태사 대웅전이 보수공사를 한지 20년이 지났고 대웅전 뒤 10m도 채 되지 않은 곳에 나 있는 도로의 위치와 대웅전의 붕괴 조짐과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며 "공사 차량의 빈번한 이동으로 도로 지반이 흔들려 대웅전의 낙토나 균열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산시 문화재 담당자는 "현장 조사를 다녀왔으나 곧 붕괴되거나 인명피해를 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며 "굳이 사람의 통제를 막으려면 사찰 내에서 제지를 하는 방법뿐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보물 제 916호로 지정된 법주사 원통보전 역시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통보전의 후면 왼쪽에 위치한 모서리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꺾여있었다. 보수한 지 30년이 경과돼 기둥 일부에 심한 균열현상이 일어난 것. 단청의 경우도 곳곳이 탈색돼 본래의 색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무의 표면을 보호하는 도료도 떨어져 나가 목재의 속살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보은군청 문화재 담당자는 "원통보전의 경우 육안으로 봐도 분명히 안전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어 문화재청에 해체 · 보수비 8억 3천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그러나 고건축은 한 번에 붕괴되지 않고 서서히 기울어지는 특징이 있어서인지 문화재청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논산 개태사 대웅전 옆 도로 진동으로 인해 무너진 담장과 대웅전에서 떨어진 흙(오른쪽).

전통사찰 제 65호인 옥천 가산사 역시 극락전 대들보 및 석가래, 기둥 등에서 심한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문의 단청이 벗겨져 있는 상태다. 또한 영정각(시 · 도 기념물 제115호) 내 습기를 없애기 위해 외부에 설치된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실정이다.

옥천군 문화재 담당자는 "현재 요사체가 슬레이트로 지어져 냉 · 난방에 취약해 2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며 "그러나 예산이 언제 집행될지는 군에서는 대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자체 문화재 담당자는 한결같이 "2008년 문화재 보수에 대한 국고 지원 신청을 마친 상태이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책정 받는다 해도 올 해 말이나 돼야 예산이 집행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세 사찰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당국의 정밀조사와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손효선 기자

우리 지역 부루나존자

하늘빛식물원 이경숙 원장

"꽃과 더불어 불심도 가꾸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속리산 길목에 자리 잡은 '하늘빛 식물원'. 이곳은 토종 야생화 2만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절실한 불자였던 이경숙(54) 원장은 지난 15년간 하나 둘 모아온 토종 야생화를 가지고 6월 2일 식물원을 개원했다. 4000여 ㎡의 정원과 160㎡ 규모의 온실이 마련돼 있는 식물원에는 800여종의 토종 야생화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이 꽃들은 모두 이 원장이 손수 키워온 것이다.

식물원에 들어서면 온실과 정원에서 연꽃잎을 축소해 놓은 모양의 깽깽이풀, 자주색 꽃이 피는 솔나리 등 보호식물이 보인다. 또한 이 원장이 특별히 애정을 보이고 있는 연한 붉은색, 붉은 자주색 또는 흰색으로 꽃이 피는 이질풀 등 토종 야생화가 다양한 색깔의 꽃들을 피운 채 방문객들을 반긴다.

전국 사찰 다니며 토종 야생화 수집
"스님들에게 꽃 공양하며 살고 싶어"

이 원장은 "소장하고 있는 토종 야생화가 꽃을 피우면 이웃들과 함께 감상하는 것이 즐거웠고, 그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하게 꽃들을 모아왔는지도 모르겠다"며 "이제는 이웃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 식물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가 처음 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5년 전, 이웃으로부터 토종 야생화 한 포기를 선물 받고 나서였다. 당시에는 꽃에 관심이 없어 별다른 생각 없이 다른 친구에게 넘겨주고 까맣게 잊었는데, 꽃을 피운 친구의 초청으로 야생화를 감상한 뒤 야생화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 후 지금까지 전국의 사찰과 산을 돌아다니며 하나 둘 야생화를 모아왔다.

이 원장은 토종 야생화를 찾아다니며 많은 사찰을 다녔고, 많은 스님을 만났다고 한다. 그때마다 불교와의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불심은 더 강해졌다고.

식물원을 개원하기 전에도 이 원장은 부처님께 꽃 공양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께 무료로 꽃을 나눠주곤 했다. 물론 개원 후에도 식물원을 찾는 스님들에게는 무료로 꽃을 나눠드릴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토종 야생화를 모으고 재배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토종 야생화를 재배하고, 보존하는 데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언제든 식물원 문을 열어 두고 토종 야생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히 들렀다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토종 야생화에 대한 재배 방법을 필요로한 사람에게는 무료 강의를 해줄 생각이다. 문의 (010)9286-1645. 손효선 기자

◆바로 잡습니다

682호 마곡사 친환경 방생법회 개최 기사중, '법주사 주지 법용 스님'을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또 우리 지역 부루나존자 기사중 '이인숙씨'를 '이숙인씨'로 정정합니다.

日에 전파된 백제불교 조명

옥천 관성정서 백제성왕 추모제 봉행

삼국시대에 일본으로 불교를 전파한 백제 성왕(聖王, ?~554 · 26대) 추모제가 5월 30일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옛 관산성(管山城) 터에 자리잡은 관성정(국궁장)에서 처음 열렸다.

역사학자 최병식(도서출판 주류성 대표)씨와 연기향토박물관(관장 임영수)의 주관으로 옥천군과 옥천문화원 등 문화단체가 함께한 이 행사에는 옥천 불교사암연합회와 옥천 제2201부대(연대장 대령 최경식) 등 각 기관 · 단체장 100여명이 참석, 성왕과 백제군 전사자 2만9천여 명의 넋을 기렸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성왕 영정 봉안식과 육법공양(등 · 향 · 꽃 · 차 · 과일 · 쌀) 헌다례, 천도(遷度)의식, 역사 강연 등이 진행됐다.

영정봉안식에서는 성왕의 영정(影幀)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좌평 4인의 신위와 오른쪽에는 2만9천여 명의 백제 군사 신위가 놓인 제단이 설치된 가운데, 옥천 한용택 군수가 제사장을 맡고 제례의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백제시대의 종교 사상과 미술 문화, 제조 기술의 발달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금동대향로(복제품)에 향을 피워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서울대 최몽룡(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삼국시대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전적지 중 한 곳인 관산성과 성왕의 죽음에 대한 사료가 미흡해 앞으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성터 주변에 신라의 승전비나 고분 터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상월원각 대조사 34주기 열반대재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서…2만 불자 추모행렬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上月圓覺 · 1911~1974) 대조사 제34주기 열반대재가 5월 31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원명 스님(태고종 교육부장), 송정 스님(미륵종 총무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송광호 · 주호영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만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천태종 정산 총무원장은 추모사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로 고통을 겪던 시절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며 민족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다"며 "천태종과 불교계만의 어른이 아니라 식민지 백성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고 절망한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일으켜주는 보살의 화신이었다"고 말했다.

15세에 법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상월 스님은 1945년 소백산 기슭에 구인사를 창건하고 66년 맥이 끊겼던 천태종의 중흥을 이끌었다. 67년 1월 종단을 당시 문화공보부에 정식 등록한 뒤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종단 3대 지표로 삼아 포교에 진력하다, 74년 4월 27일 법랍 49세로 입적했다. 손효선 기자

'선남선녀 인연' 프로그램
해외 교포들도 참여 가능

이젠 해외에서도 불자들간의 '선남선녀 인연 맺기'가 가능해졌다.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6월 3일 태고종 해외특별교구 종무원장 종매 스님과 대성사에서 진행중인 '선남 선녀 인연맺기' 프로그램 해외 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혜철 스님(태고종 중앙홍보원 홍보국장)과 종매 스님은 '선남 선녀 인연맺기' 국내 회원과 해외 교포 불자들이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선남선녀 인연 맺기'는 대성사가 2005년 2월부터 '옥천 대성사' 카페(http://cafe.daum.net/dasungsa)와 대성사 홈페이지(http://www.dss.or.kr)를 개설한 뒤 결혼이나 재혼을 원하는 불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대성사 대웅전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모임은 전국에서 미혼 남녀들이 찾아온다. 그 결과 현재 대성사 카페와 홈페이지에는 모두 5000여명의 불자들이 회원 등록을 한 상태다. 손효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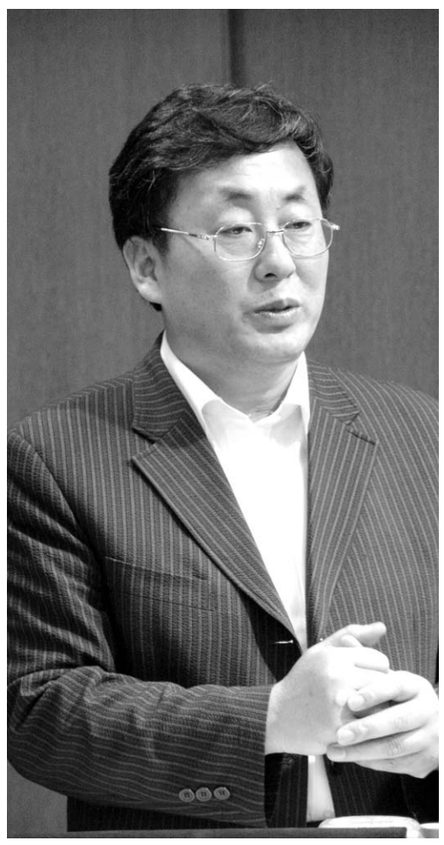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전화: 서울 02)585-1141 / 부산 051)505-2434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성장 카이로프락터 양성 | 성장 카이로프락틱 개강
포교! 스님의 능력이 경쟁력 입니다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최면지도자 과정 (2개월) 매주 1회 총 8회
대 상 • 스님,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 격 • 초보자 및 실직 · 정년 퇴직자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7월 3일 (선착순 20명) 6월 수시접수함
● 키크기는 영양(31%), 운동(20%), 환경(16%)등 후천적 요인이 실제 77%를 점하고 있다. 매일의 생활습관으로 거의 80%의 성장 발육 촉진을 시킬 수 있다.
● 키는 골단연골(성장선)이 성장호르몬과 기타 호르몬의 작용으로 골막에서의 영향으로 충분한 혈액을 받아서 성장이 된다. 성장호르몬의 촉진은 20세 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며 성장호르몬촉진 제4스텝 명상법과, 척추 스트레칭, 발육촉진의 식단으로 최대의 성장선 발육을 기대할 수 있다.
● 본원은 귀하를 유능한 운동처방사로 탈바꿈 전국학생 80%의 측만증으로 인한 성장발육장애와 작은키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키크기프로그램으로 여법한 포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 해동체육지도사 2기 부터는 최상의 성장 크리닉을 함께 강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붓다의 가르침, 21세기 새로운 리더십 대안

강사 : 이동연(인천 한누리교회 목사)
주최 : 참여불교재가연대
일시 : 2008년 6월 3일
장소 : 만해NGO교육센터

목회자의 눈에 비친 붓다의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

개신교 담임목사가 '참여불교 마이리더스 포럼'의 다섯 번째 강연자로 나섰다. <최고마케팅 경영자 예수>를 통해 예수가 펼친 리더십을 비즈니스 관점으로 재해석했을 때만 해도 특색 없는 성직자였다. 자기 종교를 찬양하는 그저 그러한 내용이려니 미루어 짐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을 재조명한 <리더십 불변의 법칙-왜 붓다는 인류 최고의 리더인가>의 저자임을 아는 순간 상황은 달라졌다. 그때부터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지닌 목회자'라는 수식어를 그의 이름 앞에 동반해야 했다. 근래에 자신의 종교 밖 신앙형태를 이토록 극찬한 성직자가 있었던가? 이 날 강연회에서 이동연 목사는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이야말로 21세기 새로운 리더십의 대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봉사와 회향의 삶을 지향하는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신선한 기획력이 돋보였다. 청중과 함께한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종교나 사람을 각각의 주제로 하면 어려운 대화이지만 인류 공통의 문제이기에 오늘의 대화가 가능했다."고 발언했다.

저의 모태신앙은 불교입니다. 가을이 오면 할머니와 함께 내장산에 자리한 절에 다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읍에 교회가 들어왔고 네 가지 영적 원리의 말씀과 만났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은 최고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천국을 통해 '사람에게 닥친 한계 상황을 완전히 극복해주는 세계'를 보았고 회심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절에 갔을 때는 몰랐던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지닌 절대 유일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 이뤄진다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 속에는 종교적인 논리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시장 논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도는 했지만 제가 그동안 믿었던 신과 현실의 신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반면 오히려 불교인들에게는 은택을 입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저에게는 아이가 10여 년간 없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기복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일종의 '저주'로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아이를 안주는 이유는 '숨겨진 죄'가 있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를 선교사로 쓰려고 아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신이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원불변의 진리라면 변함없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시대 따라 변화하는 성경말씀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포비아적 두려움에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공허증에 빠졌고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종교란 과연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줄 수 있는가. 저의 포비아 상태가 극에 달한 와중인 결혼 11년째에 드디어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대단히 힘들구나. 그러나 나는 대단히 너를 사랑한다." 교회는 헌금만 걷어갈 뿐 틀에 박힌 내용일색이었습니다. 3천 년 전에 자연 속에 살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현재 힘듦은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붓다의 가르침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반해 불교는 따름의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반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임을 알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붓다는 자신을 섬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신이 계셔서, 완전하고, 선하고, 의롭다면 왜 세상에 악이 있는가."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명박 장로를 통해서 미친 쇠고기를 수입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그 책임은 각자가 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 합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업(業)에 의해 선한 보상과 악한 보상을 받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은 재앙을 통한 구원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고많은 사람 중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합니다. 선택받은 나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철저히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타자를 무시하는 논리입니다.

 # "너 자신이 되어라."

모두가 부자를 칭찬하고 추구합니다. 모두가 욕망하는 대상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생명 창조의 시대에 맞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너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자부심을 지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원죄'의 논리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했더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에 인간의 무의식은 굉장한 콤플렉스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붓다는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명체를 지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의 차원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중요치 않은 개개인의 인정을 통한 긍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등명(自燈明) · 법등명(法燈明)'입니다.

싯다르타에서 붓다로 성도하는 순간이 최상의 긍정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저는 '내가 긍정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은 편안해졌고 내면의 힘이 생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남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출발입니다. 억겁의 업에 대해 긍정적인 자신이 되십시오.

 # "너 자신을 강인하게 하라."

바로 바라밀(도피안)입니다. 과연 어떻게 향하는 것인가. 해답은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지혜, 바로 여섯 바라밀입니다. 나에게 선을 쌓는 행위입니다. 보시를 할 때는 조건을 달지 않아야합니다. 붓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보시는 결국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왔으니 감사하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시를 베푸는 것이 자랑할 거리라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를 헤아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넴이 바로 보시입니다. Enjoy NOW! 바로 붓다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직자로서 겸소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직자는 세속을 버리고 궁극의 길을 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강조합니다. 왜 붓다는 제자들에게 탁발하도록 했을까요. 바로 겸손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승려는 붓다의 깨달은 내용으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성직자는 청빈합니다. 인류 역사상 성자이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떤 목적인지가 중요합니다. 붓다는 과정이 이끄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한 사람의 목숨이 한 숨의 순간임을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찰나에 집중하면 그 자체가 환희발심입니다. 그 자체로 나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삶을 소중히 하십시오. 심리적으로 약해지면 절대 현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순간의 집중'이야말로 전 인생의 집중과 같습니다. 순간에 친절하다면 전 인생이 친절해집니다.

 #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라."

기독교에서는 내 모습 이대로 가지만 결국 변화되길 원하는 결말인 반면 불교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곱다고 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의 긍정, 타인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붓다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현재 한국에 만연한 비하주의적인 생각을 우려합니다. 타인은 있는 그대로 존중되어야합니다. 붓다는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상처를 모두 존중하였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타인의 정서를 헤아릴 줄 아는 리더야말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가문을 묻지 말고, 외모를, 재산을, 이념을 묻지 말라. 천한 가문일지라도 행실이 좋으면 귀한 가문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붓다는 운명론이 아닌 현실 의지론을 설하셨습니다. 내 업장을 소멸하고 쌓는 주체는 스스로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내 결정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유 결정이 가능하도록 성장한다면 이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책임이 주어진 주체적 인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인간 속의 불성(佛性)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성이란 인류 보편적으로 내재된 선한 성격입니다. 그것을 보양시키고 양육한다면 누구나 선한 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순간의 집중이 인생의 집중… '자위 결정' 중요
'일체유심조'로 '현재의 고통 벗기' 해답 찾아



이 의식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초심자나, 정확한 의식이 필요한 전문가 모두, 다른 페이지를 찾지 않고 모든 의식을 집전하실 수 있습니다.

新刊 通用佛教 · 齋禮儀範 案內

○ 불교의범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송주편	제 2장 예경편	제 3장 전각예경편
제 4장 불공편	제 5장 모든법회	제 6장 방생
제 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제 8장 점안편	제 9장 이운편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10장 수계편	제11장 고사편

○ 재례의범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시식편	제2장 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제4장 장 四十九齋	제5장 재공편	제6장 기제사
제7장 靈魂結婚篇		



불서총판 책나라 02)739-7451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화제의 책 "기도의 비밀"
한 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화제의 신간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훼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기도상담 중생의 고통을 보듬는 관음정사에 오시면 손빛 기도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음출판사_필름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譯經'으로 보는 중국불교





중국 불경의 탄생
이종철 지음
창비 펴냄 | 1만7000원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완전한 대화'는 가능한가?

인도 대승불교의 중심개념인 '공(空, śūnya)'과 중국의 '무(無)'가 대화를 나눈다. 불교 수용당시 중국은 이미 독자적인 문화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작가는 이러한 중국이 인도문화를 수용하여 변용화 하는 거대담론의 통로를 불경의 역경사로 열어 보인다.

인도불전과 한역 사이의 만남을 돌이켜 보면 그 과정에 중국의 역경사가 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이 번역 작업으로 융합되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 중국의 거대한 역경사를 거시적으로 소묘한다. 역경가의 거봉으로 꼽히는 구마라집 이전의 고역기(古譯期), 구마라집 이후 현장 이전의 구역기(舊譯期), 현장 이후의 신역기(新譯期)의 세 번역시기를 사정권에 두었다.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한역불전 역경가들의 생애와 번역의 과정을 사료에 근거해서 복원한다. 더불어 그들의 번역이 중국에 끼친 사상사적 문화사적 의의를 조망한다.

역경사의 관점으로 인도불전의 한역이 시작된 시점은 기원후 2세기 중반 경. 8세기 밀교의 도입을 하한선으로 삼아 한역불전의 시대는 끝났다. 후한에서 송대에 이르는 거의 1,000년의 한역사를 언어학적 역사적 이해의 기초로 삼는다. 인도불교로 대표되는 인도문화와 중국문화로의 화해와 원융의 과정을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조망한다. 더불어 중국의 역경사에서 독자가 얻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을 밝힌다. 문학적 요소가 강한 구마라집식의 대승경전과 철학적 요소가 강한 현장식 논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한글 역경 작업에 있어서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를 시사하는 부분이다.

문헌학을 토대로 불교철학을 연구해온 이종철(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불교철학) 교수는 철학과 언어학의 영역을 넘나들어왔다. 중국문화가 인도불교를 원형적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역경의 과정은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불완전한 이해에서 완전한 상호이해로 향하는 도정은 인도불전의 중국적 변용과정으로 현실화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중국문화가 인도불교를 원형적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역경의 과정은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만화로 재구성한 아함경



마음밭을 일구는 사람
김장열 글 그림
솔바람 펴냄 | 6000원

"아난다야.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도록 하여라.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가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을 것이니 용기를 갖고 나아갈지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난다 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마음밭을 일구는 사람>이다. 진리의 등불을 밝힐 줄 아는 삶의 참다운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하셨던 말씀을 정리한 <아함경>의 내용 중에서 열아홉 편만을 뽑아 엮었다. 마음이 지닌 근원적인 갈증은 갓 샘에서 길어 올린 청량한 물 한 잔만이 달랠 수 있는 법. 부처님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고스란히 담아 현대인들이 지닌 마음의 갈증을 해소한다. 만화의 형식을 빌려 쉽고 재밌게 구성하였다.

작가 김장열은 월간 <설법>에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를 연재해왔다. 현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와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그리고 <만화 백유경> 등이 있다.

가연숙 기자

고려인의 불심을 동화로



오천 만자의 기적, 나무에 새긴 팔만대장경
윤영수 글 정소영 그림
산솔수북 펴냄 | 6800원

"바로 저것 이니라! 한 글자를 새기고 부처님께 한 번 절을 올리는 저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만 마침내 대장경은 완성될 수 있는 것이야."

<오천 만 자의 기적, 나무에 새긴 팔만대장경>속에 담긴 고려인의 불심(佛心)을 동화로 선보인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쟁의 소용돌이를 이겨낸 선조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팔만대장경 경판에 담긴 역사 정신을 문화유적과 함께 소개한다. TV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 작가들이 만든 한국사 시리즈 중 스물다섯 번째다.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보다 컴퓨터 게임을 더 좋아하는 '성주'는 주말 아침 부모님과 함께 해인사로 향한다. 모든 것이 불만인 성주에게 팔만대장경을 새긴 각수(刻手)가 나타나 750년의 역사를 거슬러 몽골의 침략을 받고 있는 고려로 간다. 한 글자를 새기고 한 번 절을 올리는 각수 '충서'와 만난 성주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라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염원하며 완성해낸 대장경에 마음을 새긴다.

가연숙 기자

세계 종교대표자들의 대화



세계종교올림픽
샤피크 케샤브지 지음 김경곤 옮김
궁리 펴냄 | 1만1000원

"하나의 종교만을 아는 것은 아무 종교도 모르는 것과 같다."

종교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다양한 세계의 종교 대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대화의 장을 연다. 어느 종교가 가장 훌륭한가, 누구의 신이 가장 지혜로운가, 세계 5대 종교와 무신론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정한 승부를 낸다. '종교 올림픽'이라는 참신한 발상으로 추리소설 기법을 이용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미 10여 년 전에 출간되어 독일 · 이탈리아 · 그리스 · 터키 · 러시아 · 일본 · 중국 등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이래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책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학이나 종교나 윤리체계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철학이기보다는 실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윤리 체계를 넘어선 해탈의 수단입니다. 깨달음과 존재와 사물들의 진정한 본질의 인식으로 이끄는 것"이 불교임을 내면의 침묵보다 세상의 소음에 더 익숙한 청중들에게 승부수를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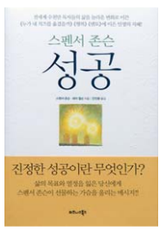
가연숙 기자



■ 스승
김태준 · 소재영 엮음 | 논형 펴냄 | 1만4000원

민족국학의 스승 27인의 만남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마음의 어버이, 사회의 등불로 받들어 모시고 싶다는 바람을 모아 스승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에게 사제의 정(情)을 일깨운다.

"스승의 도는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꿰뚫어 볼수록 더욱 튼튼하다. 바라볼 때 앞에 있더니, 홀연히 뒤에도 있더라." 높고 튼튼하여 사방으로 넉넉한 스승의 도와 만난다. 스승의 이야기에 담긴 민족의 정신과 국학의 정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울린다.



■ 성공
스펜서 존슨 · 래리 윌슨 지음 | 안진환 옮김
비즈니스북스 펴냄 | 1만원

"당신은 행복하게 성공하는 길을 알고 있나요?"

<행복> <멘토>에 이어 나온 인생의 지혜 3부작의 완결 편이다. 글로벌 밀리언셀러 작가 스펜서 존슨이 인생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일깨운다. 삶의 목표와 열정을 잃은 이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행복한 성공을 꿈꾼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작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니'라는 주인공의 성장 여행을 통해 보여준다. 평생의 힘이 될 소중한 지혜를 전해주는 멘토와의 만남 속에서 진정 행복하게 성공하는 비결을 깨달아 간다.



■ 선관책진(禪關策進)
운서주굉 지음 | 광덕 역주 | 불광출판사 펴냄 | 2만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 명나라 말 항주 운서산 일대에 총림을 창설하여 선종을 펼친 운서주굉 스님의 조사법어를 모았다. 황벽 스님 이하 역대 조사들의 39법문, 조사 스님들의 정진담 24조 등 옛 조사 60여 분의 발심(發心) · 수도(修道) · 오도기연(悟道機緣) 및 설법을 수록한 선입문서다. <선관책진>은 예부터 제방 총림에서 선가의 입문제일서(入門第一書)로 널리 알려져 왔다. 참선의 실제 길잡이로 1960년 범어사 선원에서 현토로 처음 발행된 것을 다시 손질하여 자상한 역주를 달았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3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절을 기차게 잘 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6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7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8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9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10	내 안으로 떠나는 행복여행	대화	장승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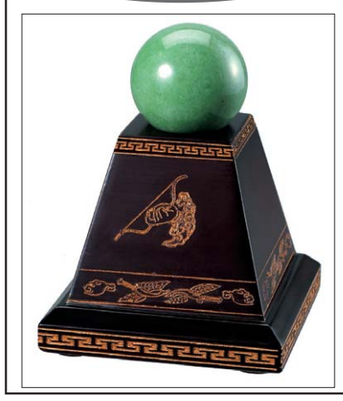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조선후기 불화 그린 스님 이렇게 많았나?"

'조선후기승장 인명사전-불교회화'
2400여 불모 행적 · 계보 총망라



조선후기 화승 의겸 스님의 '감로도' 부분. 1736년 작이며 선암사에 모셔져 있다.



불교미술 연구 기여 할 시리즈 '주목'
소조이어 두번째 '공예' 인명사전 준비

불교에 있어 조선시대는 고난의 시절이었다. 왕조의 통치 이념이 배불로 일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억불의 시대에도 분명 불교는 있었다. 숭유억불을 표방한 왕조의 궁궐 깊은 곳에도 민초들의 다락방과 부엌에도 불교는 삶의 힘줄로 존재했다. 조선시대의 불교문화유산이 당시의 활발한 불교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불화(佛畵)를 보자. 현존하는 고려불화의 수는 손에 꼽지만 조선시대의 불화는 부지기수다. 대부분이 임진왜란 이후의 작품들이다. 임진왜란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찰이 병화를 입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사찰의 중건이 활발했다. 자연스럽게 스님들이 불사를 주도했고 조소와 회화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스님들도 등장해 그 기예를 산문별로 전승했다. 불모의 역할이 사자상승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사의 특정 부문을 전공하는 스님들이 귀하게 여겨졌고 불사도 활발했다는 증거다.

지금과는 달리 조선 시대에는 불사(佛事)와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스님들이 따로 있었기에 그들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다. 불상 조성이나 불화 제작, 경전의 판각 등을 맡아 불사에 전문적으로 동참한 스님들을 공역승(公役僧) 혹은 승장(僧匠)이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교계와 미술학계는 조선 후기의 유산들을 '보이는 것'만 보았다. 불보살을 소재로 하는 조소와 회화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승장들의 이야기를 등한시 해 왔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까지 전해져 온 작품이 어느 때 누구에 의해 조성되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보이는 것'만 보고 마는 일이 아니겠는가?

불교미술사 연구의 권위자 안귀숙 교수(홍익대)는 일찍이 조선후기의 승장에 주목했다. 그래서 '조선후기 불화승의 계보와 의겸비구에 대한 연구' 등 이 분야 연구의 선구자적인 논문을 내 놓았다. 그의 제자인 최선일 교수(명지대)도 마찬가지다. 사제의 인연으로 만난 두 학자가 완성한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회화>(양사재 4만 6000원)는 불화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승들의 기록을 총망라한 노작이다. 조선 후기 회화 작품들의 화기와 사적비 등을 꼼꼼하게 추출하고 비교 분석하여 무려 2400여명의 승장들에 대한 기록을 묶은 사전. 1598년에서 1910년까지 사찰을 장엄한 불화들을 그린 스님들에 대한 기록이 한 곳에 정리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연구자들에게 큰 부조를 한 셈이다. 책을 살펴보면 두 학자의 긴 노력과 높은 열정이 책의 지면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불사에 직접 동참했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이 책에 앞서 최선일 교수가 낸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소조>는 1600년부터 1910년 사이에 조성된 불교 소조들의 작자를 망라해 주목 받았다. 이 사전에는 942명의 승장들에 대한 기록이 실렸다. 임진왜란 이후 300년간 전국에서 활동한 승장들의 기록이다. 출판사는 '조선후기 승장' 시리즈 두 권에 이어 '불교공예' 분야의 인명사전도 내 놓을 계획이다.

홍익대 김리나 명예교수는 "불교문화의 이해를 위해서 승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못 박으며 "이 사전은 앞으로 불교회화사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치하했다. 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도 "이 책 한 권으로 조선시대 후기 불교회화를 그린 화사들의 전모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사들의 실체, 활동영역까지도 규명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이 책은 불화는 물론 한국 불교미술 전반에 걸친 연구의 활성화와 심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권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숨

래리 로젠버그, 미산 스님 · 권선아 역 | 한언 | 2006

최훈동(한별병원장/서울의대 초빙교수)

있는 그대로 관하기 안내



'나'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져
부처님이 했던 숨공부…명상 수행의 핵심

상담실에서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삶의 무게에 버거워 짓눌려 신음하고 그 무게를 감당 못하여 죽음에 이른 분들도 많다. 이런 분들도 심리치료를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두루 성찰한 치료 후반기에는 종종 "지금까지 괴로워했던 게 하잘 것 없고 가치도 없게 느껴진다"는 말을 한다. 그동안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되새기고 꿈에도 잊지 못하고 집착했던 게 허망하고 붙잡고 있을 가치 없고 버릴 수 있는 가벼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다. 이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고 짧지 않지만 결국 인식의 전환에 이르러 통찰에 이른 분들의 삶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한다.

선가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방하착하라'는 말이 있다. 모두 놓아버리라는 말이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놓아버릴 수 있다면 진정 자유로워질 터인데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놓았다 해도 끝끝내 놓지 못하는 게 있으니 '나'에 대한 집착이다. 무시당할 때 화나는 나, 칭찬받을 때 우쭐대는 나, 과거의 상처가 회상되면서 괴로워하는 나, 미래의 일에 잘 될까 걱정하는 나. 내 것은 무엇이든(이 몸이든 마음이든 가족이든 물질이든) 뺏길까봐 손상될까봐 두려워하며 애지중지한다. 이것은 결국 상대방과 대립하여 갈등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 윤회의 순환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아집을 놓을 수 있을까?

잘 놓아버리는 공부법으로 부처님은 호흡공부를 강조하셨다. 호흡공부하면 호흡을 조절하는 조식(調息)법을 떠올리지만 부처님은 호흡을 있는 그대로 관하라 하셨지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라 하지 않으셨다. 호흡을 조절하면 '에고(나)'가 일어나고 욕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호흡을 보는 것은 호흡을 놓고 맡기는 태도이다. 간섭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공부. 이러한 태도가 성숙되면 일상에서 감정이나 마음의 흐름에도 적용시킬 수 있게 되어 크게 놓을 수 있고 그냥 흘러가게 놔둘 수 있다. 숨공부는 부처님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안거에 드실 때마다 몸소 수행하신 공부이다. 명상(선)수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맛지마니까야>에서 새내기 수행자부터 원로 수행자에 이르기까지 숨공부를 강조하셨다.

빨리어경장(니까야) 가운데 <아나빠나사띠수타>는 숨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경전이다. <아나빠나사띠수타>는 시중에 나온 단행본으로는 래리 로젠버그의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숨>(미산 스님 · 권선아 역 2006년 한언)이 자상한 현대적 해설과 함께 뜻이 간단 명쾌하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자기자신 내면에서 찾아

오늘의 禪語 ㉒ 견문각지

많은 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뭔지 찾아보라" 또는 "어떤 놈이 보고 듣고 하는지 그 놈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놈을 찾으면 깨달은 것, 부처가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처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말도 없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찾으라" 또는 "영혼의 존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말로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표현 그대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존재를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존재라면 무얼까? 영혼일까? 불성일까? 영혼과 불성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오염된 마음 제거하면 청정심 저절로 드러나
불완전한 언어 사용 않는게 교리 곡해 않는 일

사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사물을 인식할 줄 아는 주체인 마음을 자각하라" 또는 '그 마음을 성찰하라'는 뜻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는 "부질없이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라" 또는 "다른 곳에서 깨달음을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좀 학술적인 설명입니다만 "보고 듣고 하는 이 놈이 뭔지 찾아보라"는 이 말의 원문은 '견문각지(見聞覺知)'입니다. '견문각지'란 눈으로 모양을 보고(見), 귀로 소리를 듣고(聞),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육체로 촉감을 느끼고, 생각(뜻)으로 모든 사물을 인식(=覺知)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6식(六識) 작용을 가리킵니다. 6식의 주체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의식입니다. 즉 심식(心識)이 객관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 견문각지입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와 혀 육체로 냄새와 맛, 촉각을 느끼지만, 눈과 귀, 혀 등은 단순히 보고 듣는 창구의 역할만 할뿐 그 꽃이 무슨 꽃이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분석·판단하는 능력은 모두 지각기능 즉 의식(意識)이 전담합니다. 따라서 "보고 듣는 놈이 누구인지 그 놈을 찾으라"는 말은 결국 사물을 지각할 줄 아는 그 놈, 즉 견문각지의 주체를 찾으라는 말이며, 그 놈이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 즉 심식(心識)을 가리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깨달음)'라는 유명한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선과 악, 미(迷)와 오(悟), 각(覺)과 불각(不覺), 중생심과 불성, 오염심과 청정심, 감성과 이성, 집착과 무집착 등이 공존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마음을 찾는 것이 순서일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갖가지 욕망에 찌들어 지금은 아주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을 제거하면 청정심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또 기쁨과 슬픔, 분노와 욕망 등 갖가지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의 실체를 찾으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어느 것을 발견해도 되지만 역시 1순위는 청정심입니다.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뭔지 찾으라"는 말은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한다면,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영혼을 찾으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영혼을 찾으라는 뜻으로 사용하거나 이해한다면 그것은 절대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불성을 찾으라는 말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불성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합니다. 불성이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속성, 또는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나 인자(因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가 영혼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성의 정의를 잘 모르는 소치로서 교학적, 학문적 토대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불교어와 선어는 모두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할 경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개념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 말 역시 그 일종입니다.

사실 이 말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반문사와 동의어로서 화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혼을 찾으라는 말과 혼동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해석한 것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말로서 불완전한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어란 그 개념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물질이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소실이 본처를,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듯 나중에는 엉뚱한 해석이 만연하여 원형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잡초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라고 곡식은 정성들여 가꾸어도 메마르는 법입니다. 곡식을 잘 기르고자 한다면 먼저 잡초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유위법에서 무위법인 화두 참구로 깨달아

서른살 홀로된 후 불교에 귀의 40년동안 집에서 수행
도겸 스님 만나 무자화두 듣고 밤낮으로 '무자' 참구

㉒ '무자' 화두 타파한 법진 할머니

무자(無字)' 화두를 타파한 것으로 알려진 법진(法眞) 할머니는 쟁쟁한 역대 선사들과 함께 <전등록>에 이름을 올린 여 선객이다.

<전등록>에 따르면 법진 할머니의 성은 허씨요, 송나라 고종 임금 때 사람이다. 남편은 장태사였고, 아들 장덕원은 정승이 되었으므로 진국태(秦國泰) 부인이라 하였다. 서른 살에 홀로 된 후 불법을 좋아하여 40년 동안 집에서 수행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한번은 도겸 스님을 만나 무자화두를 듣고는 밤낮으로 '무자'를 참구하였다. 그러면서 경전도 읽고 예불도 하였는데, 도겸 스님이 대혜(大慧, 1089~1163) 선사의 말을 인용하여 할머니에게 말하였다.

"화두를 참구하려면 경 보고 예불하는 일을 쉬고 일심으로 참구하여 한 생각이 계합한 후에, 다시 경도 읽고 예불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일심으로 참선하였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놀라 깨면서 홀연히 깨치고 이런 게송을 지었다.

"꿈속에 봉황 타고 허공에 올라가니/ 알겠네, 이 내 몸이 하룻밤 여관임을/ 그동안 잘못 배운 한단(邯鄲: 아름다운 걸음을 걸은 조나라 한단 사람들) 걸음 알고 보니/ 한 마리 산새 소리 봄비마저 넉넉하네."

할머니는 이 게송을 대혜 선사에게 보냈는데, 대혜 선사는 이렇게 평하였다.

"아들이 재상된 것은 그리 귀할 것 없지만 쓰레기통에서 여의주를 얻은 것은 참으로 귀하니라. 그러나 이것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나니, 집착하면 다시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느니라."

한편, <인천보감>에서도 법진 할머니의 수행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어록에 따르면 법진 할머니는 과부가 되고부터는 화장도 안 하고 채식을 하고 헌옷을 입고 지냈으나, 유위법(有爲法)만 익혔지 선(禪)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경산사의 대혜 선사가 겸(謙) 선사를 보내 안부를 물었는데, 그의 아들 위공(魏公)과 준공(浚公)이 겸 선사를 머물게 하고 조사의 도로 그의 어머니를 이끌어주게 하였다. 법진이 하루는 겸 선사에게 물었다.

"대혜 스님은 평소에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십니까?"

"스님께서는 오직 사람들에게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화두만을 들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말을 붙여도 안 되고 이리저리 헤아려도 안 됩니다. 오직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한데 대하여 조주 스님이 '없다'라고 한 말씀만을 들라 하십니다. 오직 이렇게 학인을 가르칠 뿐 입니다."

법진은 마침내 크게 믿음이 가서 무자 화두를 밤낮으로 참구하였다. 한번은 밤중까지 앉아 있다가 갑자기 깨달은 바 있어 당장 게송 몇 수를 지어 대혜 선사에게 보냈는데, 그 맨 마지막 송은 다음과 같다.

"종일토록 경문을 읽으니/ 예전에 알던 사람 만난 듯 하네/ 자주 막히는 곳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한 번 볼 때마다 한 번씩 새로워진다."

<전등록>과 <인천보감>의 기록을 볼 때, 법진 할머니는 대혜종고 선사의 무자화두 참구법을 통해 깨달았으며, 대혜 선사의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혜 선사는 깨달음에도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고 끝없이 초월하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보임(保任) 즉, 불행(佛行)수행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법진 할머니가 유위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행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다가 무위법인 화두참구로 깨닫게 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유위법이란 인연에 의하여 생멸하는 만유일체의 법을 말한다. 유위법은 위작(爲作), 조작(造作)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다. 생멸법, 인과법, 인연소생법, 중연취집(衆緣聚集), 공소작법(共所作法) 등이 유위법에 해당된다. 반대로 무위법은 조작, 위작되지 않은 우주만물의 실체, 본체를 가리킨다. "만약 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인(因)도 없고, 과(果)도 없다면, 무위상을 얻으니 이는 무위의 뜻이다(비바사론)"라고 한 말이 이 뜻이다.

수행은 인위적인 조작이나 분별심, 집착, '구하는 마음 없이(無所求行)' 무위법으로 '닦는 바 없이 닦아야(無修之修)' 한 법도 얻을 바가 없는 무소득법(無所得法)의 도리를 깨닫게 된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제17차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 개강**=한국위빠사나선원이 6월 16일부터 제17차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을 개강한다. 16일 오후 2시 개강식을 시작으로 9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5시 30분에 기초과정이 이어진다. 이종숙씨가 강사로 나서 수행에 대한 이론 60분, 경행 30분, 좌선 60분, 면담의 순서로 진행한다. 수강료는 무료에서부터 자유롭게 보시하면 된다. 한국위빠사나선원의 기초과정은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는 수련과정이다. 계속 알아차림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통한 알아차림의 이익을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02)215-5258

●**불광사 경전 강좌 개강**=서울 불광사가 6월 16일 기본교육 아침반, 저녁반과 〈반야심경〉·〈천수경〉 저녁반을 개강한다. 〈반야심경〉·〈천수경〉 아침반은 18일 개강 예정이다. 21~22일 구도철야정진, 26일 홍천지역으로 6월 문화기행도 마련되어 있다. 28일에는 백중49일 기도입재가 예정되어 있다. (02)413-6060

●**영평사 수행형 템플스테이**=공주 영평사가 2박3일, 3박4일, 5박6일, 7박8일 등 여러 일정으로 수행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좌선, 걷기명상,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염불 등을 주로 진행한다. 2박3일 과정에 참여하면 신묘장구대다라니 100독을 원만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주말에는 구절초 백련차 마시기, 생명의 소리와 함께 하는 108배, 백련꽃길 산책, 사찰음식 맛보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상설템플스테이는 매 주말마다 1박2일 일정으로 마련된다. (041)857-1584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원인을 알면 막힌 일이 풀립니다."
* 대자대비관세음보살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기도하시면서 몸소 보고, 듣고, 체험 하십시오
* 소승은 우리들의 몸에(빙의 되어) 방해 받고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밝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 (영가 천도재) 전문 기도 도량
<관세음 보살님 친견 스님이 천도재 기도 집전>
• 가출 청소년 귀가지도 • 이사 후 사건, 사고 잦으신 분(가정불화, 사업부진)
• 신내림(무병) 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 병원 치료 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해가 있는 분
• 빙의되어 정신이 흐리거나 몸이 아픈 종교인 상담 해 드립니다.
※ 각종 시험에 계속 낙방 하시는 분 → 행정고시, 사법고시, 고득점 대입합격
◆ 본 사찰에서는 영가 천도 기도중에 향 연기와 풍경(바람)소리로 영가 천도의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의 법은 대자연이며 그 법을 만난 인연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
· 1998년 7월 24일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미술 탱화 사사수행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김병룡)

천기누설을 가장 많이 한 책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의 70%이상은 귀신에 의하여 생기는 병이다. 귀신처리만 정확히 하면 정상인이 된다.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기가 있어 고생하시는 분, 어딜가도 답을 못 찾으신 분,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해지면 됩니다”

관념·신비주의 지양 실천적 생활불교 강조
정견 가지고 살면 삶 그 자체가 바로 수행

(재)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날이 맑았다. 경남 함양의 시골길은 하늘과 풀과 바람이 뒤섞여 고고하게 빛났다.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을 찾아가는 길. 선지식을 찾아가는 길이어서 일까 자연은 그저 ‘있는 그대로’ 아름다웠다.

스님은 현재 고즈넉한 전원을 자랑하는 행복마을에서 29년째 ‘동사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동사섭(同事攝)이란 ‘사섭법(四攝法)’ 중 하나로 보살이 중생과 더불어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전달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명상을 통해 ‖ㅇ복해지는 것. 그것이 스님이 동사섭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목적이다.

스님을 만나자 마자 행복에 대해 법문을 청해들으려 했더니, 기자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

“우리 모두 생태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해요. 일각에서는 10년 안에 지구 종말이 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남 · 북극의 빙산이 녹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로 다가온다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 신문에서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다뤄주기 바래요.”

스님이 우리 삶의 제반 조건인 환경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역시, 이 조건이 성립돼야 행복이니, 열반이니 하는 문제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일 터. 그 큰 문제들을 공감하며 우매한 중생은 ‘현실적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청했다.

“행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복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행복한 상태에 있어요. 현재에 있는 행복을 확인하는 것이 ‘행복론 1번’입니다. 지금 확인되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마치 현재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해 놓고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됩니다.”

스님은 이어 ‘천국론’을 꺼냈다. 내가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이 하나 당부하는 것은 ‘자가(自家)천국’을 평소에 꾸준히 구축하라는 것이다. 스님은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현재의 내가 천국인가, 정말 활구적(活句的)으로, 진정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것을 간단하게 ‘동심원 세 개’로 표현했다. 가장 작은 원은 자가천국, 그 다음 원은 소속공동체천국, 그 다음은 세상천국.

스님의 법문 특징은 일상적이면서도 불교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스님은 ‘활불교’를 중시한다.

“부처님이 대각을 성취하신 후 녹야원의 5비구를 비롯, 평생 수천 번을 설했던 4성제 · 12연기 · 8정도를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바로 그것이 활불교입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초기불교인 4성제 · 12연기 · 8정도와 달마 이후의 선불교를 통합, 현재 시행 중인 동사섭수련 프로그램을 개척했다. 수련 프로그램 중 일부를 알려달라 부탁드렸다. 그러자 스님은 ‘나지사’ 명상법을 이야기한다. ‘나지사’란 ‘구나’ ‘겠지’ ‘감사’로 정견에서 정사유로 이어지는 명상법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든 것이다.

“불행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내 인식주체가 무엇을 대함에 있어 그대로 수용하지 못할 때 괴로워집니다.”

스님은 이럴 때 위빠사나를 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어떤 판단을 하지 말고 그대로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 라는 것이다. 누군가 비난하면 보통은 감정적으로 저항하기 마련이다. 그 저항할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불행이다. 그 ‘아, 그렇구나’하고 수용하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까닭이 없다. 그런 다음,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는 사정이 있을 것이란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사정이 있다면 비난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겠지’다. 그러고 나면 ‘그만하게 끝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 더 크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그쳐준 것 자체를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잠깐 기자도 ‘나지사’ 명상을 해봤다. ‘탐진치(貪嗔痴)’ 3독 중 성내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져 갔다. 일상에서 화내는 마음만 사라져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스님은 현 불교계에 대해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특히 스님은 ‘관념불교’와 ‘신비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승불교로 오면서 초기경전이 너무 묻혀버렸어요. 화두타파, 염불삼매에 들어가 도만 통하면 된다는 생각이 온 불제자들의 머릿속에 박혀버렸습니다. 그 좋은 8정도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일 뿐인 정정(正定), 즉 정신집중법 하나가 행법의 전부인 것처럼 계속 지배해 왔어요. 또 우리불교가 너무 신비에 젖어있어요. 부처다, 니르바나다 하는 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근본불교에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석존 가르침의 강령에 해당하는 사성제 하나만 봐도 누구나 납득이 되는, 극히 이성적인 가르침입니다.”

스님은 팔정도 중에서도 정견(正見)과 정사유(正思惟)를 중시한다.

“이런 궁금증이 혹 없었습니까? 석존께서 보리수 아래서 큰 깨달음을 터뜨리셨는데, 무슨 방편으로 그 큰 깨달음을 얻어셨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출가 후 6년간을 그 당시 세상에 떠도는 모든 방편들을 다 섭렵하셨고, 아라라칼라마, 웃다카라마풋다와 같은 최고의 영성 스승을 모시고 스승의 경지인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과 같은 드높은 경지를 두루 깨달으셨고, 마지막으로 고행림에 들어가 극고의 고행을 끝장까지 가보시고도 원하는 생사해탈을 얻지 못하시자 결국은 스스로를 스승삼고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이때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입니다. 앉아서 무언가를 했으니 큰 깨달음이 왔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상당한 화두였습니다. 그 때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무엇을 했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치를 궁구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는 내가 부처님을 만난 것처럼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도 사유를 통해 ‘연기(緣起)’라는 이치를 이해하고 파지(把持)한 것입니다. 연기의 이치가 사유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스님은 8정도 중 정사유를 강조하며 각자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의지해 제대로 된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정사유를 통해 정견(正見)을 정립해야 하고 정견을 삶의 기준으로 하여 삶을 운영해야 합니다. 모든 삶, 모든 수행에 있어서, 부처님의 기초 가르침이신 팔정도의 정견(正見)과 정사유(正思惟)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견이란 바른 가치관입니다.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正見) 바르게 생각하고(正思惟), 바르게 말하고(正語), 바르게 행동한다(正業), 팔정도(八正道)의 1~4번입니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가르침입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 자체가 수행이란 점을 잊지 맙시다.”

요즘 스님은 궁극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밝혔다.

“우주신의 마인드에 상생(相生) 패러다임을 장착해야 합니다. 약육강식(弱肉强食), 적자생존(適者生存)식의 패러다임을 훨훨 넘어선 상생 패러다임입니다. 바로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한 스피노자 정신으로, 우리 모두 우주 흐름의 한 복판에 상생 패러다임이 장착도어지기를 기원합시다.”

스님을 뵙고 나오는 길. 스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프로그램의 일부만을 접했을 뿐이지만 활어로 되새긴 불교의 가치는 강열한 여운으로 다가와, 가슴 속 깊이 남았다.

함양/글=김강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용타

용타 스님은

1964년 8월 청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71년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까지 일선 고등학교 독어교사로 봉직했다. 이후 교사생활을 접은 스님은 1974~1983년 20안거를 결제 수선 한 바 있다. 현재는 (재)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부터 5박 6일 영성수련회 ‘동사섭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귀신사 회주, 미국 삼보사 회주, 성륜문화재단 이사 등도 겸직하고 있다.

SHC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41 엄나무순 더덕겉절이

엄나무는 험상궂은 가시가 줄기에 빈틈없이 나 있는 나무로 해동목(海桐木) · 자추목(刺秋木)이라고도 한다. 키 20m, 지름 1.5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큰키나무로 팔손이나무 잎을 닮은 큰 잎도 매우 인상적이다.

옛사람들은 엄나무 가시가 귀신의 침입을 막아준다 해서 엄나무의 가지를 대문이나 방문 위 등 출입구에 꽂는 풍습이 있었다. 간혹 마을 들목이나 동네 가운데 엄나무를 심으면 전염병이 비켜 가는 것으로 믿고 엄나무를 정자나무나 신목(神木)으로 받들기도 했다. 대개 가시가 있는 나무는 독이 없고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엄나무는 염증질환 치료에 큰 효과

귀신 막으려 출입구에 꽂는 풍습도

엄나무의 약효는 다양하다. 관절염 · 종기 · 암 · 피부병 등 염증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신경통에도 잘 듣는다. 만성간염 같은 간장 질환에도 효과가 크고, 늑막염 · 풍습으로 인한 부종 등에도 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 진통작용도 상당하다. 늘 복용하면 중풍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간염이나 간경화 초기에는 엄나무 속껍질을 잘게 썰어 말린 것 1.5kg에 물 5그릇(升)을 붓고 물이 1/3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인다. 한번에 20ml씩 하루 세 번 식사 후 혹은 식사 때 함께 복용한다. 이렇게 4~5개월 정도 음용한다.

잎을 달여 차로 수시로 마셔도 좋다. 신경통 · 관절염 · 근육통 · 근육마비 · 신허요통 등에는 엄나무 뿌리를 생즙으로 내어 마시면 도움이 된다. 무르고 두꺼운 뿌리껍질을 토막토막 잘라 믹서기로 갈아 생즙을 낸 후 맥주잔으로 하루 1잔의 양을 마신다.

산에서 단전호흡을 공부하다가 잘못해 늑막염이 생기거나 내장을 상한 데에도 엄나무 뿌리 생즙이 좋다. 기침이나 가래 끓는 병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 엄나무의 어린 새순은 나물로도 흔히 먹는다. 봄철에 연한 새순을 살짝 데쳐 양념을 해서 먹으면 독특한 맛과 향이 난다. 엄나무순은 개두릅나물이라 부르기도 한다. 매년 봄 새순을 따서 데치거나 겉절이를 쌈으로 먹으면 쌉쌀한 맛과 향이 일품이다. 엄나무순은 음식으로 먹는 보약이다. 산촌 (02)735-0312



엄나무순 더덕겉절이

재료 : 엄나무순, 더덕, 깨소금, 막걸리, 된장, 식초, 고춧가루, 설탕

만드는 법

① 엄나무순 잎사귀 각각을 포기에서 줄기째 떼어 내 씻은 후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다.
②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방망이로 두들겨서 부드럽게 한 뒤 손으로 가늘게 찢어놓는다.
③ 된장, 막걸리, 식초, 깨소금, 고춧가루, 설탕을 넣고 잘 섞는다. (이때 고춧가루는 약간만 넣는다)
④ 씻어둔 엄나무순과 찢어둔 더덕을 그릇에 먼저 담고 만들어 둔 양념을 그 위에 끼얹어 살짝 버무려서 싱싱함을 살린다.
⑤ 엄나무순 더덕의 씁쓸한 향기에 막걸리의 약간 발효된 맛과 각각의 양념 특유의 맛이 그대로 담겨있다.



청오 스님의 청다향 이야기 ❷

아버지 생업 도와 불모의 길로…

'목탁'이란 별명으로 군생활을 했다. 제대하던 날 낳아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절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찾았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운명을 바꾸게 했다.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 만남의 기쁨보다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홀로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파리가 알을 까도 파리 쫓을 힘이 없어 손짓도 못하고 그냥 파리에게 몸을 맡긴 채 방치돼 있었다. 세상의 죄를 내가 다 받는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일하다 척추를 다친 후부터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 남의 품삯 일을 하다 저녁 늦게 돌아왔다. 건강한 내 몸뚱이가 부끄러웠다. 아버지의 병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병원 응급실에서도 받아 주지 않았다. 의사들은 임종 준비를 하라고만 말했다. 그때 목이 메이도록 부른 것은 부처님이었다.

"부처님! 부처님! 저를 나아준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문 앞에서 통곡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 후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병원 문턱에서 응급실도 못 들어간 아버지를 우연히 병원장 부인이 보고는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다. 병원장 부인의 선처로 아버지가 가야할 곳은 외과인데 내과 과장이 싸인해 입원했다. 그 후 아버지는 점점 회복의 기미를 보이며 건강을 찾았다. 나는 집안을 돕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를 도와 식구의 생계를 책임졌다. 절 생활 첫째 계율이 불살생이 아니던가.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다른 생명도 방생하는데 목전에 죽어가는 부모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집안 대대로 불모의 집안에 태어난 인연에 불모의 힘든 일은 모두 내가 도맡았다. 범어사 내원의 한국 최초 금동 천수천안관음보살과 금동 입체 신중탱화를 청동



으로 조성했고, 통도사 보광전 삼존불과 문화재 등록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해운대 해운정사에 거대하게 조성된 금동 천수천안관음보살 그리고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해수관음까지 수많은 부처님을 조성해 봉안하며 30여년 가까운 세월이 꿈같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심장이 멎는 듯한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의 운명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고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맏상주인 나와 형제 4명은 모두 그날 삭발을 하고 예를 갖춰 영가 앞에서 목이 메도록 광명진언을 외우며 3일 밤낮으로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출상 전 새벽녘의 하늘은 환하게 빛을 발했다. 서쪽에서 오색 무지개가 마루 끝에 닿았고 다시 집 마루에서 서쪽으로 쌍무지개가 장장 한 시간을 구름다리처럼 놓았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 했다. 평소 <지장경>을 지송하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100만독하던 아버지 아니었던가! 마치 서방정토세계까지 무지개 다리가 놓인 것처럼 보였다. 믿음은 확신이 돼 눈으로 보여 줬다. 그렇게 아버지와 영원히 이별한 후 나의 심경에 변화가 왔다.(계속) (055)941-1083



health 치아 건강 칼럼 column

소중한 이 치과 안은영 원장 30 부정교합 교정

울퉁불퉁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가지런한 치아와 밝은 미소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 하지만 치아 건강이 저절로 이뤄지길 바란다면 무리한 기대다. 치아 이상 가운데 부정교합이 있다. 부정교합은 치아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존재하거나(덧니 등) 악골 크기와 모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관계(주걱턱, 새턱 등)를 말한다.

부정교합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구강위생 관리를 어렵게 해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풍치), 입냄새 등 여러 질환을 일으킨다. 음식물 씹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발음을 어렵게도 한다. 또한 치아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해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즈음은 덧니가 심한 콤플렉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 덧니는 단시간 내에 가지런한 치아를 갖기 위해 건전한 치아를 깎은 후 덧씌워 가지런히 보이게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예인들처럼 치료에 충분한 시간이 없는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권장할 만한 치료방법은 아니다.

부정교합 원인은 선천성 원인과 후천성 원인으로 나뉜다. 악골 및 치아 크기와 모양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데 치아와 악골 모양이나 크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부정교합이 나타난다. 후전성 원인은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입은 악골 손상, 손가락 빨기 등 구강 악습관, 구호흡, 유치가 너무 일찍 빠지거나 너무 늦게까지 남아 있을 때 등이 꼽힌다.

치아가 삐뚤어져 치열이 고르지 못한 부정교합을 바로잡아 주는 치료가 치과 교정치료다.

교정치료를 위한 최적 시기는 환자에 따라 다르다. 가능하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치료시기는 성장기가 좋다. 아동은 치료 후 적응도 빠르다.

최근 20~30대 성인은 물론 40~50대 중년에서 60대 노년까지 교정은 연령과 무관하게 심미적 또는 기능적인 목적으로 교정치료가 이뤄진다. 특히 부정교합으로 양치질이 용이하지 않거나, 치아 배열이 좋지 않아 치아의 힘 받는 방향이 나빠서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그 증상이 악화된다. 때문에 잇몸이 더 나빠지기 전 치료를 받으려는 중년층이 치과를 자주 찾는다.

교정치료 기간은 부정교합 상태, 연령, 환자의 치료에 대한 협조도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18~25개월 전후가 소요된다.

교정 치료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초진상담=전문의 상담 및 진단 준비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초진 상담때는 환자의 고민과 불만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하고 궁금점을 묻는다.

2. 정밀검사와 진단준비=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진단 정보를 모으는 과정으로 안면사진과 구강 내 사진, 치열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인상채득, 방사선 사진 촬영 등을 한다.

3.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정밀 검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분석해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세운 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치료방법, 사용될 장치 및 치료기간을 설명한다.

4. 교정치료 전 처치=교정장치를 붙이면 음식물이 끼기 쉬어 충치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장치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정치료 시작 전 구강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충치 치료를 진행한다.

5. 교정장치의 부착=메탈, 세라믹, 설측, 투명 등 교정 치료 종류에 따라 장치를 부착하면 교정치료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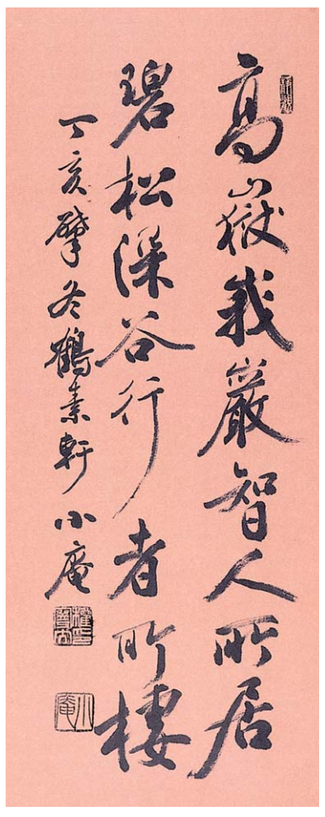
6. 주기적 내원=이후 3~4주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 이 때 지정된 약속 일자를 잘 지키면 계획된 치료기간 내에 치료가 끝난다.

8. 유지=치아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정 치료 완료 후 유지장치를 장착한다. (계속) (02)776-2882

광고 따로

붓끝에 실린 '수행자의 향기'

추공 권영대 서예전 11일까지 백악미술관서



<고악벽송(高嶽碧松)>. '깊은 산 험한 바위는 지혜있는 이의 거처할 곳이요,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이의 있을 곳이라.' <발심수행장> 중에서.

'빈 산 옛 절간에 목련이 홀로 피어 있었네. 동봉(東峯)에 달 오르자니 열경(悅卿)이 와 섰는 듯이.'

추공 권영대 선생은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6월 11일까지 서예전을 연다. 오세암에 홀로 핀 목련처럼 고요한 절간이 좋아 남양주 불암사에 기거하며 묵향을 즐겨오던 유유한 행서(行書)의 6년만의 외출이다.

그래서인지 소암추공(小庵秋公)이라는 선생의 아호(雅號)가 매화당 김시습 선생의 '오세암시(五歲庵詩)와 많이 닮았다'고 여겨졌다. 일면(불암사 회주) 스님과의 인연도 남다른 선생은 불암사 '거사림회'의 고문이기도 하다. 지장전과 장경각의 현판은 물론 국내 사찰 30여 곳에 부처님 말씀을 비롯한 주련(柱聯)을 써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선생의 필서를 도자기 위에 음각으로 새긴 '법성게(法性偈)'로도 만날 수 있다.

선생은 "구운 도자기에 먹이 아닌 흙물로 써내려 가야 하기 때문에 붓끝이 매끄럽지 않다. 화선지 하고는 색다른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10세부터 한학을 배웠고 18세부터 오늘까지 서예로써 구도의 생애를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해로 만 67세를 맞은 추공선생의 정신세계가 붓 끝의 울림으로 한 획 한 획 번져 나간다. (02)734-4205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소처럼 정직·우직하게…

리뷰 김진선 강원도 도지사 사진展 '소'

소와 강원도사람의 '닮은꼴 찾기' 첫 전시



김진선 지사

아이가 소를 찾아 나섰다. 길에서 소의 발자국을 보고 소의 뒷모습을 본다. 소의 몸통을 보고 고삐를 잡아 길들이기를 한다. 마침내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 온 다음 아이는 소를 잊어버린다. 그리고 스스로 저잣거리로 들어가 세상살이의 일부 가 된다. 심우도(尋牛圖)다.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고등학생이 3선 강원도지사가 되기까지의 시간. 그 시간을 소가 함께 걸었다. '심우(尋牛)'의 구도심으로 살아 온 김진선 도지사의 곁에 소가 있다. 그 소를 길들여 오는 동안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 섰고 그간 길들여 온 소의 모습을 대중들 앞에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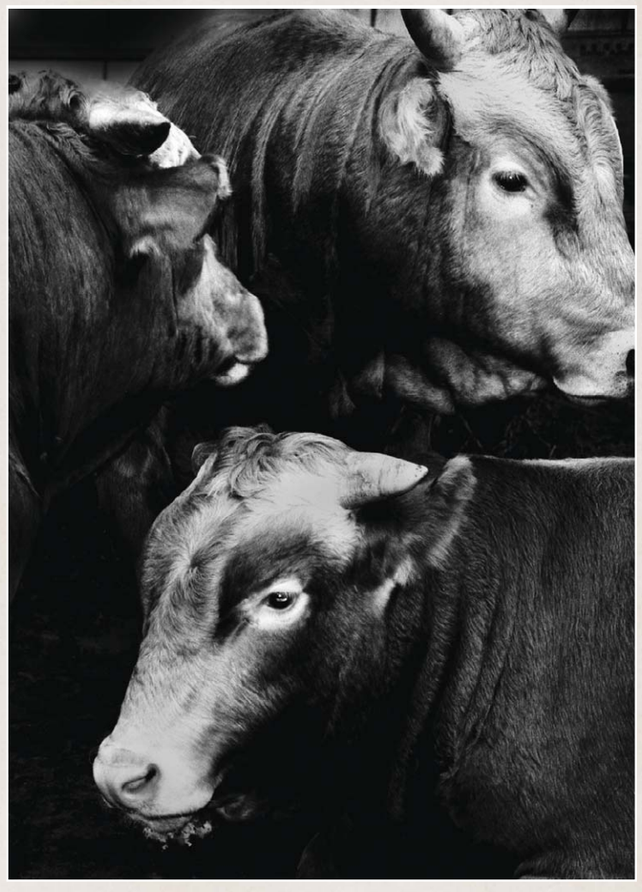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5전시실에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월간 <사진예술>의 초대전으로 열린 그의 첫 번째 사진전 '소'였다.

그는 소와 강원도민 그리고 사진을 하나로 보았다. 키워드는 '정직'이다. 농촌을 바라보는 객창감 언저리의 낭만이나 풍경보다는 소의 머리와 몸통을 바짝 끌어당겨 놓은 흑백사진은 수다스럽게 소를 예찬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소처럼 우직하게 꼭 필요한 말, 꼭 하고 싶은 말만 전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이 밤마다 수 만개의 촛불로 밝혀지는 동안 전시실에 걸린 강원도지사의 소들은 그렇게 침묵으로 더 많은 말을 하고 느린 걸음으로 더 긴 시간을 걷고 있었다.

사진작가로서의 김진선은 무엇을 보았을까? 소를 찾아 나선 아이의 마음을 읽는 일은 바로 '작업'에 비친 그의 마음을 읽는 일이 될 것이다. 그의 앵글에 들어 온 소는 도구로서의 소가 아니라 인간과 상생하는 존재다. 그는 뚜렷한 명암의 대비를 '주무기'로 소의 깊고 선한 눈망울을 강조했고 있는 그대로의 몸통을 드러냈고 혼자 있기 보다는 무리 속에 있는 개체들을 표현했다.

순리와 이치에 순응하는 것을 삶의 지순한 가치로 여긴 공직자로서의 작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본 것은 소이고 소의 품성에 비친 인간이다. 소를 길들인 다음 올라타고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는 유유자적을 통해 강원도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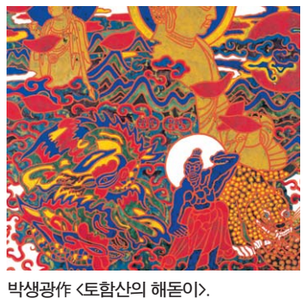
김진선 도지사의 '소찾기'는 그가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에서 피리를 불며 산길과 들길을 거닐고 다시 농가와 어촌을 두루 다니며 민초들과 한 호흡으로 어울릴 때 비로소 대단원을 장엄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의 '심우도'는 사진이라는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그려질 것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한국현대 미술 '새 장' 연다

이영미술관 개관 기념전



박생광作 <토함산의 해돋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영인미술관에서 8월 31일까지 한국 회화사의 전환점을 만든 대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안하는 개관 기념전이다.

특히 고구려 벽화를 비롯해 불화·단청·민화·무속화로 우리 민족의 혼을 화려한 오방색으로 재현해온 박생광(1904~1985) 화가의 작품과 만나는 뜻 깊은 기회다. 더불어 전혁림, 이경성, 정상화 등의 대표작을 통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미술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다. 한용진 등 지역 미술인들의 조형물 설치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예술상도 소개한다.

108번의 삶과 죽음을 108개의 모니터를 활용하여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아티스트 김현철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간 흘러온 한국 현대 미술의 가능성과 생명력을 모색한다. (031) 213-8223

가연숙 기자

마음대로 놀다보니 창의력 '쑥쑥'

마포아트센터 갤러리 맥 '어린이 체험놀이터' 진행

"다양한 재료를 통한 연상놀이로 우리 아이 창의력도 쑥쑥 자라요."

언어자극·소리자극·촉감자극·시각자극 등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이 표현될 수 있는 풀뿌리 복지문화공간이 눈길을 끈다. 7월 6일까지 만 4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마포아트센터 갤러리 맥에서 진행되는 체험놀이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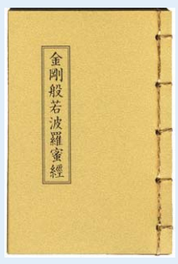
선생님의 안전지도 아래 아이들이 서로 협동하여 조형물을 만든다.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자동차도 타보고, 나무껍질로 만들어진 기린을 직접 만져보면서 '나는 무엇을 만들어볼까' 생각한다.

자연·재활용·영상을 주제로 만든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만져보면서 상상의 자유로움을 맘껏 표현할 수 있다. 흙·짚풀·나뭇가지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면서 어린이 스스로 자신만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작품 감상·만들기·놀이의 3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지루해하고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눈높이로 다가간다. (02)3274-8502

가연숙 기자



▶마음대로 놀이터에서 예술체험을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 영가천도

실물크기 (소)3.5×5cm (중) 5×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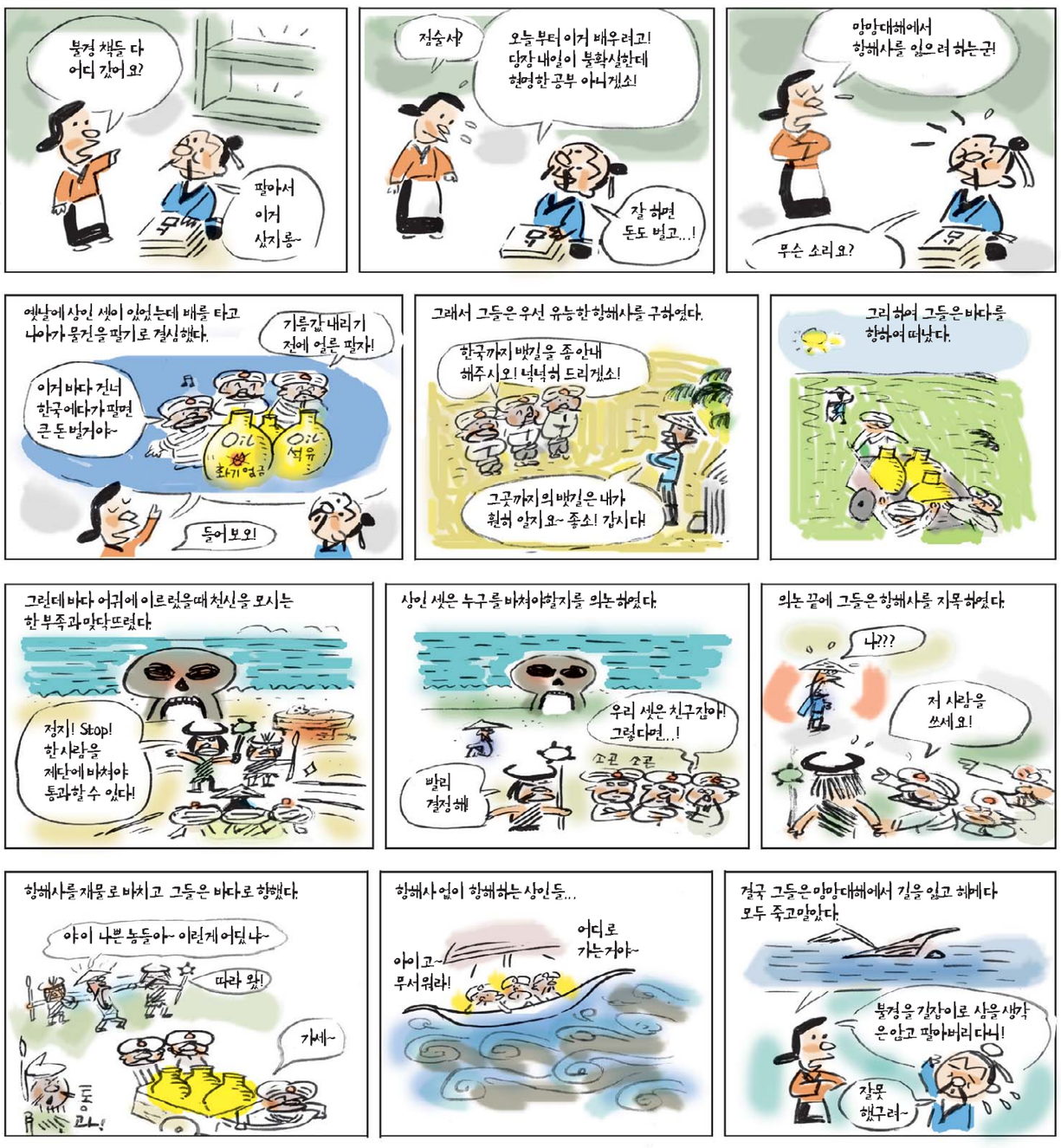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웃음보살 불등거사 <2>





상인들의 어리석음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상인들이 큰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다. 바다를 항해하자면 반드시 길잡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길잡이 한 사람을 구했다. 길잡이를 따라 바다로 나가는 도중에 넓은 들판에 이르렀다. 거기는 천신(天神)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 천신에게 제사한 뒤에 비로소 지나갈 수 있었다. 상인들은 서로 의논했다.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다. 어떻게 죽이겠는가. 오직 저 길잡이가 제물에 적당하다." 그들은 곧 길잡이를 죽여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마침내 지쳐서 모두 죽고 말았다. 모든 세상 사람도 그와 같다. 법의 바다에 들어가 그 보물을 얻으려면 좋은 법의 행을 길잡이 삼아야 한다. 하지만 도리어 선행을 부수고 생사의 넓은 길에서 나올 기약 없이, 세 가지 길[三惡道]을 돌아다니면서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가?

옛 판화의 세계

사부대중의 완성
야사의 득도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야사득도(耶舍得度)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불암사판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삽화 중에 한 장면으로 출가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첫 출가자가된 야사와 그의 친구 55명의 집단 출가, 아들 야사를 찾아 나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처음으로 삼보에 귀의해 재가신도가 된 야사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야사의 아버지 구리가 장자가 최초의 우바새가 되면서 승가가 완성되는 기념비적인 장면이다.

이 삽화 속에 등장하는 야사의 아버지 구리가 장자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부처님께 제자 되기를 청하고 있다.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듯이,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혹은 '눈이 있는 자는 보라' 하고 어둠속에서 등불을 밝혀주시듯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여 받들고자 합니다. 또, 세존의 가르침과 승단에 귀의하여 받들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재가신도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기까지 귀의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초발심을 내어 부처님께 수계 받을 때의 심정이 바로 구리가 장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서원 올리는 그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면 간절했던 초발심의 서원은 어디로 가고 습관적인 신앙심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구리가 장자의 서원을 읽어 본다면 수계 받을 때의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 삽화에서 하나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구리가 장자의 출가로 인해 승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출가수행자와 재가수행자가 모여 진정한 승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불교승단을 승가라고 한다. 승가는 화합대중을 뜻한다. 모든 승단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라는 뜻이다. 우리시대의 가장 큰 화두로 화합과 소통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 재세시로 돌아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 존중하는 자유스러운 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승가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방하착

눈을내리고
바지를내리고
똥을내린다.
아,
모든것을내리고보니
마음이 한가롭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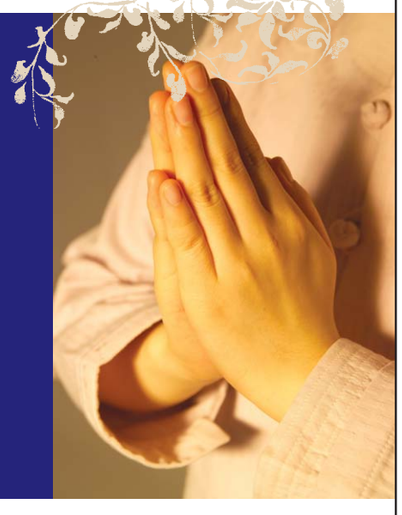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은데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변호사 강영화 · 김기현 합장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강영화 변호사 | 031)436-3114 |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054 | 017-535-0685

www.insammaket.com
귀하고 고마운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인 삼 마 켓

취급품목 : 홍삼액, 홍삼정, 홍삼편, 인삼, 홍삼청국장, 캔디, 제리, 분말

홍삼생식
학명은 파낙스 진생(Panax : gineseng)은 만병통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삼의 효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인삼만을 선별하여 겉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숙성합니다. 즉 인삼껍질의 바로 안쪽에 많은 망상조직이 존재하는데 홍삼은 이와같이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표피부분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포닌이 축척되어 효능이 우수합니다.
이런 홍삼을 액기스 추출과정에 90℃이상 고열로 추출하면 쓴맛과 검은색을 띠나 홍삼의 고유한 사포닌 성분과 향기가 많이 소멸되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수한 제조방법으로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홍삼 고유의 향기와 색깔을 유지하며 홍삼에 은은한 맛과 달라지는 건강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저희 풍기정품인삼제조창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품만을 생산합니다.

영농법인풍기정품인삼제조창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번지
TEL 054)636-2174 FAX 054)638-2177

현대불교 제 683호 2008년 6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사주 · 역학 · 비법전수
순한글과 숫자로만 30일을 공부하여 복없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참제자를 구합니다.
한문을 전혀 몰라도 사주를 통달함
(스님,법사,일반인 출장지도)
010-5668-5775
보현불교 역학대학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염불원 강습
•상주권공 : 겉채비 안채비 한글의식 포함
사찰정보안내
•부동산,소임,공양주,재도감
서울역 도보 남산 남대문근처
사찰거주房. 상담可(學人)
우리절 02)757-327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계룡산 손바닥 토종 선인장
영하 20~30도 노지에서도 얼어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성인병 예방에 신이 주신선물
(분 양 안 내)
019-9765-8052
공주시 계룡면 관음기도도량 원각사
•효능: 잇몸 염증, 당뇨, 퇴행성 관절염, 심한 가려움증, 아토피염, 쑥쓰림, 위염, 심한 변비등 탁월한 효과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학인수시모집 : 범음,범패, 바라,나비춤
•사찰행사 : 49재,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초능력 기공비법 무료전수
※봉사활동으로 평생직업 무료전수
㉮ 수강료 납부 곤란한 재정 형편자
㉮ 고졸이상의 신심견고한 불자여성
㉮ 40~50세의 숙식가능한 불자여성
㉮ 참신성 진취성에 걸림없는 불자여성
031)753-8484
011-354-8484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42)255-1186
010-6730-1186

氣 치 료
중풍, 오십견, 요통
관절통, 각종 질병
(대체의학 비법전수)
중국교포 출장 방문
010-9137-1667

신비의 일침요법 및 기치유 전수자모집!
일선의 포교에 힘드신 스님과 포교사님들께 23년간의 임상 노하우를 전수 합니다.
1개월이면 누구나 즉시 현장에서 통증을 없애는 신비를 발휘합니다.
속성비결 책임완성까지! *현장에서 체험하십시요*
▷개강일 : 2008년 5월 24일 토요일
* 스님 및 포교사 특혜 *
041)576-0633
네이버에서 '연화도법'을 검색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인덕사 주지 도안 합장

자 격 취 득 안 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역학)수강생모집
명리 · 궁합 · 택일 · 작명 · 육효 · 자미두수 그 외 기초반, 중급반, 연구반 1대 1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
역학연구 30년 유명교수 강의 속성완수
032)508-0381
019-9007-9746
인천 불광사

몸이 아프십니까?
목 어깨 척추 짝다리 등등
고질통증(허약,의욕,기력 상실자)기공활법교정
* 빙의 천도재,구병시식,신병,효력 못 본분
* 무료결혼식 올려드려요(晩婚)
인생사 www.mukuk.net 치세요
성왕사 무극합장 10~12시 전후 상담
TEL 02)835-2955
010-3817-3387
온라인 농협 712-12-003387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을 전혀 몰라도 한글로 한달만 배우면
(역학, 사주, 신수, 재수 등)을
통달하는 비법을 1대 1로 전수해 드립니다.
052)264-8183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2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2)939-3327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불화그림 배울분구함
남 · 여 20~30세
노원구 상계동 전철4호선 당고개역 부근 화실
011-257-4601
02)931-2287

미얀마 사야도 사마타 명상지도
명 상
뜻 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문의 033)433-3847
건봉사

대한전통불교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
영산 작법무, 범음범패, 고장법고,바라(천수바라)
•사찰행사: 천도재, 점안식
*양산서창
010-7579-8200
대진, 도광 합장

청정한 나반 도량에서 수행과 공부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약사기도도량 약천사에서 같이 도량을 운영할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30대 후반 40대 초)
▷전남 구례군
061)781-6328
017-621-6328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대)
▷지역 : 울산
052)243-3881
장난전화 사절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54)772-41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011-336-4665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 · 공부 · 요양 할분 모십니다
1인 1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016-9506-5706

공양주를 모십니다.
강원도 고성군(동해안) 사찰에서 근무하실 공양주를 모십니다
(초보자도 가능함)
010-8879-8400

절에서 사무보실 컴퓨터에서 능숙한 스님 및 거사님 모십니다
055)649-5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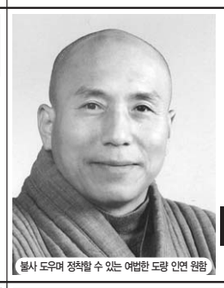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소재사찰)
019-515-51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031)584-1541
011-9723-0967

서울근교 대작불사중
•40~50대 사무장(女),
•30~40대 총무(女)
•화주보살 모십니다 (나이 제한 없음)
010-4540-3344

역 학 공 부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초급) 매 화요일 18: 30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주역, 풍수, 관상: 수요일 18:30 수강생 무료 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전과정 완성)=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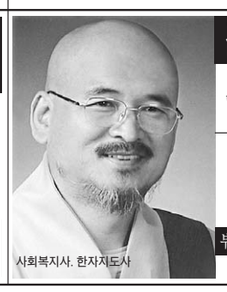
백도현 구성학강의
운명 · 운세 · 방위학 · 개운비법
참재미있고 쉬운 易學! 「천년지혜 밀교비전」
특별한 암기법 / 단기속성, 개인관리학습 / 실전임상
불교종단에 다년간 초청강사경력
011-9735-1742 [종로5가 7번출구 청계천방면]


(불사 도우며 정착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 안연 원함)

바라 · 작법무등은 원할경우에만 시연해 드리며 큰 법력으로 사물과 함께 우리말 · 한문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비구승 무진장 합장

중풍 오십견 요통 관절통 담결림
㉮ 장기 병원치료 했으나 효과없는 각종신병환자
㉮ 스님 포교사 기치료사 코치감독단장 비법전수
㉮ 무속인 지압시술 및 신묘한 령적비법 전수
※중국 초능력기공사 초빙 치료기법시술 및 전수
031)753-8484 / 011-354-8484
청계암 주지 만허 합장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회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승려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응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본각사 일두스님의 수맥파 상담
"지금 당신에 침실은 안전합니까"
수맥파를 알면 가정이 편안 합니다.
만병의 원인 수 맥 파
법당에 들어서면 무서움 오싹한기분 냉기가 돌고 신도가 줄어들고 의욕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적이고 매사 되는일이 없고 다툼이생기고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고 짜증만내고 남편은 귀가가 늦고 부부싸움이 잦고 법당,사업장,주택 사무실,기타영업장에도 사업이 부진하고 원인모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병에 시달리고 악몽,가위눌림 깊은잠 못자고 생체리듬파괴 각종 암,중풍,관절염,심장질환,학습장애,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모든 건강문제!
식욕부진,만성 소화불량, 신경통, 고혈압, 뚜렷한 병명없이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는 분.
만약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자거나 근무한다면 당신은 이미 병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큽니다. 수맥탐사 1급 자격증 소지한 일두승이 탐사를 도와 드리고 수맥을 중화 시키거나 차단하고 미세한 수맥은 자리이동을 시켜서 수맥파에서 해방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귀 사찰이나 단체에서 원하시면 생활수맥 강의를 경기도 서울지역은 출장 강의를 해 드립니다.
2-3시간 교육으로 수맥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시켜드리고 잠자리 이동을 가능하게 교육시켜 드립니다.
수맥을 중화 차단하고 난 후 약 5-7일간 경험해보신 후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문의하여주십시요.
사찰의 주지스님 및 단체 개인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로 수맥 다우징(탐사)을 해 드립니다.
02)391-8540 /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 조계종 (사단법인)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 각 사 일두 합장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古典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치만 太極四柱는 四柱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필자도 2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할것인가 실패할것인가,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하느냐 이별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나쁘냐, 자식덕이 있느냐 없느냐, 관재구설수와 교통사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승진운은 있느냐 없느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 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20기생 강의중, 수강희망자 상담환영)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테이프13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진주 사천
● 총평수 : 8,000평(100% 사용가능)
● 종교용지 및 버스주차장
● 법당 30평, 산신각 20평, 관음전20평, 대중방 15평, 요사채 70평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24억원 반값매각(개인사정 급)

임법당
● 위치 : 부산 범일동
● 대지평수 120평(시유지)
● 건물 : 약 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 3칸, 주방 및 화장실(초현대식)
● 마당 5층 석탑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만원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사찰부지 및 사찰, 임법당, 토굴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
● 법당 및 요사 : 70평
● 부지 : 220평
● 가액 : 2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25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7,000평
● 가액 : 6억

● 위치 : 서울 종로
● 법당 : 28평
● 요사 : 38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경남지역 내 1억이내에 사찰이나 임야 구합니다

● 사찰이나 임야 구합니다 (포교당 제외)
010-4457-6556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영주시 부석면
● 대지 : 300평
● 가액 : 1천만원
010-6304-5998

명당 암자터 별장지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영동역 2분거리, 버스 도로접
● 앞에는 금생수가 흐르고 북바위가 둘러싸여있는 복터
● 대지 200평, 300평, 600평, 1000평
● 평당 13만원
010-3545-9992
043)732-27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가 아파트 밀집 최요지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동화사 근교)전통사찰
● 대지 : 720평, 법당50평, 30평 요사채30평, 종무소 20평
● 가액 : 13억원

대구시내, 근교 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120평)
● 진신사리 봉안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최고의 시설,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지리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 요사,산신각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 평수 : 7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2채 방4개, 창고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적합
● 가액 : 2억원
011-9920-1224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송
● 대지 : 1223㎡
● 요사 : 37평, 법당 : 1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10-8861-9856

수행과 포교하기 좋은곳 양도

● 위치 : 대전시
● 2층 건물에 2층 50평
● 주차와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공원과 산이 있어 포행하기 좋음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천만원
● 관심있는분은 직접방문 후 결정하길 바랍니다
010-9315-91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5백만원
017-232-33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지하철 5분거리)
● 법당 시설 완비 차 진입가능,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1)294-1204
010-9998-2926

사 찰 안 내

괘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인생을 즐기십시오
● 위치 : 경기 김포시
● 법당 50평, 요사채 30평, 방3 대지 1206평 법당시설완비
● 가액 : 14억원(시설비 포함)
010-9112-9712
032)576-9712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대로옆(항공산업도시)
● 대지 : 42.5평(07.11월 준공) 시부지 터밭 약간
● 1, 2층 각24평 골조 5층 설계 2층 : 법당 15평, 방2, 주방1 포교원, 시민선방, 친견소 최적지, 현 기도중
● 가액 : 1억4천만원(절충가능)
● 사유 : 건강상(꼭 필요한분만)
010-4668-2061
(부재시 음성녹음요망)

사찰(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최고의 명당 자리)
● 정남향 약 2,000평
● 평당 23만원
010-3524-5677

사 찰 안 내

● 위치 : 이천시 부발읍
● 대웅전10평, 요사채25평 현 문중땅 300평 사용하고 있음
● 가액 : 3,500만원
010-3762-304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산1번지 여래암
● 대지 170평, 법당 36평 요사채 방 2칸 (앞 에 바다가 잘 보임)
● 가액 : 1억6천
011-9424-1005

암자(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금정마을(주차유)
● 대지 : 62평 ● 법당 27평
● 삼본불, 지장단, 산신당 2평
● 요사 : 방 2, 서실 등 공양간 27평 입구별도, 다용도실 4평 전기판넬(다락유)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 (융자 6500만원)
● 직접방문 후 결정, 절충하세요
011-842-6123 (주지 직)

사 찰 양 도

● 위치 : 경산시 용성
● 대지 237평, 텃밭 665평, 합 902평, 법당 약20평, 요사 30평, 심야보일러
● 동불 3존불, 후불,신중,지장탱화 마당까지 차 진입
● 양도가 : 2억2천5백만원
011-509-0124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도심속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역 7분)
● 평수 : 23평(2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전세 4500만원. 양도가 9000만원
010-7669-8600

사 찰 안 내

● 소백산 도솔봉에 불사중인 도솔사
● 전망 최고. 현재 산신각, 작은법당만 증축되었음
● 대지 345평
● 전체 터 약1,000평 (전 평수 다져져 있음).
● 장뇌삼 3,000평에 심어져 있음 (1년 -25년 생)
011-9426-756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 대지 : 약200평, 건물 1,2층 80평
●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탱화 법당, 주방, 방6 수세식 화장실, 욕실
● 보증금 3천만원(시설비 포함) 월 70만원
● 꼭 하실분 답사요망
010-4628-33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대지 : 300평
● 법당, 가사, 산신각, 구옥 2채 법당 : 와불(3m), 삼존불(관음, 약사, 지장), 미륵(160cm)
● 양도가 : 2700만원(절충가능)
010-9793-8977(달마스님)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근처 (석촌역, 송파역 2~3분 거리)
● 4층 건물중 2층, 평수 약70평 (법당 25평, 방4, 공양간)
● 삼존불, 후불탱화, 각단탱화 에어컨 3대, 연등 600등 실내 화장실, 샤워장
● 보증금 5천만원, 월200만원 시설비 5천만원
● 주지스님 건강관계로 급 안내함
010-7101-0858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군 풍각면소재지시내중심
● 대지 70평, 건물 40평
● 인법당, 방3, 주방, 욕실, 수세식화장실, 기름보일러
● 비구니스님 토굴로 적합
● 양도가 6700만원(급)
011-509-012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감만동 버스종점 앞(위치 최고)
● 건평 23평(시설최고)
● 아미타불, 지장, 관음
● 보증금 1천만원, 월2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051)638-11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김해재래시장 옆
● 단독 3층 : 46평 법당, 요사, 주방
● 현대식 최상급 시설 사찰 비품 일절
● 보증금 300만원, 월42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방문 후 절충가능
010-9308-79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천안 신부동(도로접) 2층 건물중 2층 독채
● 평수 : 25평. 삼존불
● 보증금 1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7676-2477

절터 · 요양원 · 기도원

● 위치 :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국도 귀래IC에서 5분거리
● 임야,농림 관리지역 71,124㎡ (21,552평)
● 가액 : 4억3천만원
011-3762-304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80평(슬라브 건물) 2층 47평(법당),1층 47평(요사채)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 10, 법당 시설완벽 석축 조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진주,고성,통영, 함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가액 : 3억(융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
010-3996-203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대구 서구 중리동
● 건물 40평(요사채, 법당) 편리한 1층으로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월70만원 시설비는 무료
011-807-0040

사 찰 안 내

A. 위치 : 대명산 팔공산 대지 80평
● 3층 건평 80평, 심야전기, 에어컨 최고급 시설이 갖추어짐(인공폭포)
● 오시는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2억6천만원
B. 위치 : 김천시 구성면 진흥리
● 대지 510평
● 기존건물 3채(전기, 전화가능)
● 가액 : 7,500만원
*교통 : 승용차 절까지 진입가능
010-8804-8041
053-982-8041

사찰(토굴) 안내

● 위치 : 합천 율곡 2차선 도로 접
● 대지 : 300평
● 법당,방,부엌,화장실 완비
● 가액 : 4천만원
011-9070-10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청송읍
● 종교부지 150평, 대지 500평, 농지 1000평, 법당 20평, 요사 50평, 외방 10평, 창고 60평
● 주왕산이 바라보이는 곳, 마을 인접하여 왕래편함
● 무형문화재 목수들이 지은 절
● 주지스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함
● 가액 : 협의 절충가능
054)874-1125
011-504-2398

사 찰 중 개

● 위치 : 서울, 종로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암자 급히 양도하실분이나 구입하실분 전화주세요. 만족을 드립니다. 성불하세요.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포 교 당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약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식당 겸)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3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9928-0005
061)544-048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법당 : 65평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전철역에서 5분 거리. 롯데백화점 근교, 주차자 완비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85만원
● 최고의 시설,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011-9850-134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포천시 송우리(의정부 경계)
● 평수 : 446평
● 2층 건물중. 1층 : 종무실, 공양실, 주지실, 화장실 2, 방 5, 2층 : 대웅전(47평) 별채 : 약 50평 건물, 위패단 및 지장도량
● 모든 집기 그대로 양도합니다
● 가액 : 15억(절충가능)
010-9757-724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011-9725-3196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대구
● 법당, 공양간, 방, 화장실 ● 시설완비
● 보증금 2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2078-3617

토 굴 안 내

● 위치 : 대전
● 법당, 삼존불, 요사채(건물 2동), 창고2칸(건물등기)
● 기존 시설물도 모두 양도함
● 가액 : 3천5백만원
010-9518-3177

포 교 원 (급)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 (국악문화회관 후문 건너편)
● 평수 : 90평(7층 건물중 7층 전체사용)
● 법당 : 40평(미타삼존불, 원불 200불, 인등 600개, 신중단, 영단, 연등)
● 주지실, 사무실, 상담실, 주방겸 공양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천만원(최상급, 절충가)
● 최신에어컨 4대 무상으로 드림 스님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
042)252-5450/042)252-5480
011-649-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 800평, 공유지 500 여평 활용
● 법당 :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대구 30분 거리
● 특징 : 강변고절처로 기도처 최고
● 용도 : 도시인근 포교도량 최적지
● 용처 : 평탄하여 노후생활 최적지
● 환경 : 경관도 좋고 도로포장 완료
● 가액 : 3억 2천 5백만원
● 사진 : 사찰넷에 첨부파일 있음
010-4600-0408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불자정보 계속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39>
(修習止觀坐禪法要)

정수행(正修行) ③

망상도 공이고 진심도 공이다

過去已滅 現在不住 未來未至 三際窮之 了不可得 不可得法 則無有心 若無有心 則一切法皆無 行者雖觀心不住 皆無所有 而非無刹那任運覺知念起

일체법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났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았다면 반드시 일체법을 일으키는 나의 한 생각이 끝내 어떠한 형상일까 하고 회광반조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마음은 둥근 모습일까 모난 모습일까, 푸른 색깔일까 누런 색깔일까, 또는 시간적으로는 과거 · 현재 · 미래에 있을까 아니면 내외 중간에 있을까. 과거에 있다고 말한다면 과거는 이미 소멸하였고, 현재라고 한다면 현재는 한 찰라도 정지함이 없이 흘러가고 있고, 미래라고 한다면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마음을 과거 · 현재 · 미래에서 추궁해 보아도 나의 한 생각을 관찰하는 마음은 끝내 형상을 얻지 못한다. 이 마음은 시간적으로 시작과 끝이 없고, 공간적으로는 특정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은 내외 중간에 있지도 않으며, 길고 짧고 모나고 둥글지도 않으며, 푸르고 누렇고 붉고 하얗지도 않으며, 과거 · 현재 · 미래 등 일체 처소와 일체 시간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당체를 구해보아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범부 중생은 만법이 내 마음밖에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여 목전에 나타난 산하대지와 명함색공과 인아시비와 견문각지 등 일체법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 때문에 하루종일 분별심으로 유전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마음은 끝내 얻지 못한다는 것과 마음을 따라 일어난 일체법 역시 얻지 못한다는 것을 추궁해서 명료하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해도 그 마음은 무감각한 허공이나 목석처럼 무지하지 않다. 그 때문에 한 찰라의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사물에 부딪치는 대로 모두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거울에 환하게 나타난다.

현재 일념은 유정과 무정의 경계에서 분명하게 지각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마음은 임의로 운행하면서 지각해 아는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말한 것이다.

又觀此心念以內有六根 外有六塵 根塵相對故有識生 根塵未對 識本無生 觀生如是 觀滅亦然 生滅名字 但是假立 生滅心滅 寂滅現前 了無所得 是所謂涅槃空寂之理 其心自止

앞에서 일념을 일으키는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돌이켜 관찰하여 보았는데, 과거 · 현재 · 미래에서 추궁해 보아도 끝내 처소가 없었다. 그러나 처소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찰라 일념이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각해 아는 마음이 임의로 운행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수행자는 이 마음의 일념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는지 다시한번 돌이켜 관찰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내적인 마음엔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육근이 있다. 이 '근(根)'에는 승의근(勝義根)과 승의근이 의지하는 부진근(浮塵根)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동일하지가 않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을 부진근이라 하는데, 이는 진실하지 않은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浮)'라고 하였고, 견문각지의 작용도 없기 때문에 '진(塵)'이라고 명칭하였다.

다음으로 승의근은 범부 육안의 경우엔 보이는 대상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오직 천안(天眼)만이 볼 수 있다.

경전에서는 이 승의근에 대해 "안근은 포도가 늘어진 것처럼 생겼고, 이근은 새롭게 돌둘말린 나뭇잎처럼 생겼고, 비근은 쌍으로 손톱이 늘어진 것처럼 생겼고, 설근은 초생 달처럼 생겼으며, 신근은 허리에 찬 북처럼 생겼고, 의근은 어두운 방처럼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승의근은 일을 이루도록 보조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 대상경계를 비추면 식이 승의근을 의지해서 발동하게 함으로써 그 작용을 성취한다.

가령 안근은 색경을 볼 수 있고, 이근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의근은 일체법까지도 알 수 있다. 이것이 내육근을 구별한 모습이다.

외적으로는 색 성 향 미 촉 법 등 육진경계가 있는데, 육근과 육진이 마주하여 상호간에 교대로 짝을 이루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육식이 일어난다.

만일 육근과 육진이 상대적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육식은 일어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육근만이 홀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육진만이 홀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육근과 육진이 일으키는 주체가 되고, 육식이 그 사이에서 생기하는 대상이 되며, 육근이 상대하는 주체가 되고, 육진이 상대되는 대상이 되어 피차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건립된다는 점이다.

육식 일으키지 않으면 육근·육진마저 소멸
망상 생멸은 허망한 인연 화합따라 상속해

따라서 주체로서의 육근과, 대상으로서의 육진과,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육진 · 육근과, 그를 의지하고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육진이 모두 다 허깨비 변화처럼 무상하여 끝내 실제가 없는 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허망한 인연이 화합하여 육근과 육진이 마주하면 육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허망한 인연이 따로 분리되고 육근과 육진에서 벗어나게 되면 망상인 육식심은 바로 소멸하게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식은 본래 일어남이 없는데, 육근과 육진이 허망하게 화합하는 인연 때문에 있게 된다는 점이다. 육근과 육진은 본래 일어남이 없으며 이도 역시 육식심의 인연으로 인해서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여러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나는 것은 실재하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당체가 공인 것이다. 일으키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 보았더니 이와 같고, 소멸하는 경계를 돌이켜 관찰해 보았더니 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해본다면 마음을 관찰해 보았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법을 관찰해 보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마음을 관찰해 보았으나 무상하며, 법을 관찰해 보았어도 역시 무상하다. 따라서 "마음을 관찰해보아도 이와 같고 소멸함을 관찰해보아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일어나면 소멸하고 소멸하면 일어나는 것처럼 생멸이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멸이라는 명칭과 문자는 단지 임시적으로 성립됐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연이 화합하면 일어나고 인연이 분리되면 소멸하여 허망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허망하게 생멸이라는 모습을 호칭했을 뿐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를 돌이켜 관찰한다면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법만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관찰하는 마음까지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인 마음과 객관인 경계가 쌍으로 없어져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고요해진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공하고 적멸한 이치가 내 목전에 환하게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생멸이 소멸하면 적멸이 현전한다는 의미인데, 이때를 당하면 산하대지가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허공까지도 분쇄되어 이곳엔 인상도 없고 아상도 없고 중생상까지도 없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영가(永嘉)대사는 "분명하게 보았더니 한 물건도 없고 역시 사람도 없고 또 부처까지도 없어 삼천대천세계가 물속에 거품이며 일체 범부와 성인이 순간에 사라지는 번개와 같다"라고 하였다.

육도범부만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세간 · 성문 · 연각 · 보살 · 부처님까지도 얻을 것이 없으며 단지 망상만 공일뿐만 아니라 진심도 역시 공인 것이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우주법계와 내 마음이 일심으로 평등할 뿐이다. 거기에 무슨 다른 물건이 있겠는가.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이상에서 살핀대로 오온법을 색 · 수 · 상 · 행 · 식의 순서로 배열한 것은 중생 심리작용인 분별심을 일으키고 업을 짓는 순서에 따라서 배열함으로써 모든 중생이 이를 보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하루 빨리 번뇌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방편교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오온을 낱낱이 분석하여 설명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색법과 심법을 낱낱이 해부해야만 총체적인 아집상이 분해되어 그 성립근거를 잃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정들은 오온법이 의타기성임을 모르고, 변계소집성으로 실아실법의 아집상으로 집착합니다. 그 때문에 이 같은 '총체적인 아상[五蘊]'을 낱낱이 분석함으로써 아집의 성립근거를 확실하게 없애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 아상 '오온' 낱낱이 분석
아집의 성립근거 확실하게 없애

다음으로 오온은 하나인가, 아니면 많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온의 명칭은 숫자적으로도 따로의 다섯이며, 그 하나하나의 '온'도 많은 요소들이 한 덩어리로 온축되었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가 아닌 다섯이라면 그것이 실아실법이 아닌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절대의 실아법은 이처럼 다섯이라는 많은 법이 상호의 존관계에서 구성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아상' 오온은 실아실법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온'역시 실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색 · 수 · 상 등 모든 낱낱의 '온'도 많은 요소가 중다하게 적취하여 한 덩어리로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온은 많은 법이 서로의 연관관계로 의지해서 임시적으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보편의 하나가 아니므로 상주하는 실아실법도 아닌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일체제법은 내적인 자아법이든 또는 여타의 법이든 모든 것이 무아상이며 공성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유정들은 이러한 오온을 의지하여 임시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실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실아가 성립되지 않는 낱낱의 유정들이 집합하여 하나의 가족을 구성하고, 그 임시적인 가족이 다시 집합하여 사회 · 국가 ·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떤 실아도 성립하지 않는 무아로서의 허상일 뿐입니다. ■정리=張如舟

불자정보 683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포항역 앞
● 평수 : 50평
● 법당 : 방3, 공양간, 종무소
● 집구조 : 아파트식 구조 해우소 2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258-1147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10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 약 260평, 법당 22평(현 불사중) 요사채 33평(현대식), 창고, 산신각
● 가액: 1억
010-3553-7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4445-5179

절터 · 별장 · 팬션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
● 자연녹지 450평(田)
● 야산 아래 남향 4차선도로 인접
● 가액 : 2억원(급 안내)
011-531-5562

포교당(급)안내
● 경주터미널에서 15분거리
● 대지 120평
● 2층 법당 24평, 1층 16평 방2, 욕실, 주방
● 요사채 기와집, 산신각
● 가액 : 8500만원
010-6288-97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주방, 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평수 : 111평(법당외부단청)
● 건물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등 4채 방 5개 심야보일러 설치 마당에 5층 석탑 있음
● 가액 : 1억 5천5백만원(절충가능)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영천 경찰서 부근
● 종교부지 200평
● 주차장100평, 텃밭70평 법당,목조 13평,요사채 50평 심야전기,지하수
● 가액 : 2억 3천만원
054)338-0048
011-769-7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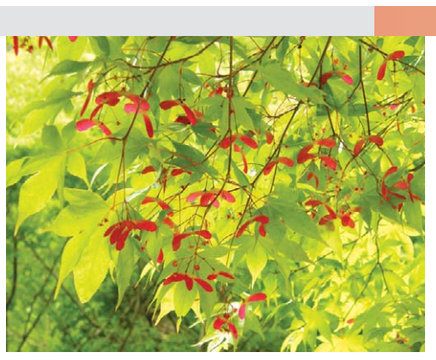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영월읍 동강에서 700m, 시내에서 3km
● 70년된 사찰. 법당 목조단청 25평 지장 목조단청 13평, 산신각 목조단청 8평 관음전 8평, 석불전 6평, 용왕정 4평, 요사채 30평, 15평, 화장실 2동
● 미륵석불1, 5층 석탑 2, 용탑 2
● 가액 : 3억5천 ●스님 노환으로 양도원함
011-484-0663
033)374-4459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광주에서 30분거리
● 산세수려, 청정계곡, 호수접
● 조립식 임법당, 황토방
● 평수 : 905평
● 가액 : 1억 4천만원
010-6440-5255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골무꽃.


단풍나무 종자.


보리수.


참세줄나비.


송어.

(99) 순창 강천산 강천사

계곡 위에 서면 '숲의바다'가 한눈에

내장산을 거친 호남정맥은 순창땅으로 넘어와 용추봉-강천산-산성산-광덕산 등의 암능을 만들어 낸다. 모두 500m급 낮은 산들이지만, 순창과 담양의 병풍이요, 전남북 도경계를 이룬다.

그 중 강천산은 산림청에 의해 '우리나라 100대 명산'으로 선정된 명산이다. 명산이란 모름지기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이 많다. 산체의 높이와 크기를 비롯해서 자연생태적 가치와 사람들의 접근성과 기호성도 비중이 크지만, 빼어난 풍광과 역사문화적인 요소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강천산이 100대 명산 가운데 49위로 꼽힌 것도 수려한 풍광과 신라고찰 강천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천사의 초창은 통일신라 진성여왕 때 도선 국사에 의해서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오랫동안 옛 영화를 찾지 못하다가 조선말에 와서야 재건되었으나, 다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고추장' 외에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는 순창에서 강천산은 거의 유일한 관광지이다. 그래서 군 당국이 198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온갖 정성을 쏟아왔다.

계곡 들머리에서부터 강천사로 가는 숲길은 비포장 흙길이다. 모래와 마사토가 적당히 혼합된 흙길은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아서 좋다. 절로 가는 길은 이렇게 걷고 싶은 숲길이 되어야 한다. 다만 노폭이 넓고 일부구간이 직선화된 것이 아쉽다.

흙길 좌우로 단풍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극상림의 활엽수가 우점하고 있는 강천산 식생과도 궁합을 잘 맞추었다. 가을이면 번잡스러운 내장산을 비껴서 강천산의 단풍을 찾는 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암절벽과 폭포와 맑은 계류가 함께하여 격조 높은 가을을 연출해낸다.

이곳 단풍나무는 열편이 5~7개인 일반 단풍나무이다. 봄날에 보는 빨간 씨앗이 단풍처럼 아름답다. 단풍나무 씨앗은 빨간 날개를 달고 있어서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간다.

계곡 곳곳에 자리한 낙차보(落差洑)는 용수를 쓰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물을 폭포처럼 떨어지게 하기 위한 보이다. 낙차보는 물속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시멘트 없이 자연석만으로 쌓아서 천연덕스럽기 그지없다.

강천산과 광덕산의 기암절벽들은 모두가 화산체이다. 강천산의 대명사인 아름다운 폭포들도 모두 이 화산체 단애가 만들어낸 것이다. 병풍폭포는 자연암벽 위로 물을 펌핑(pumping)하여 쏟아지게 하는 인공폭포인데도, 주위 환경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계곡의 소에는 갈겨니를 비롯해 몇 종류의 민물고기가 노닐고 있다.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송어이다. 순창군 당국에서 관광객들의 눈요깃거리로 방류한 무지개송어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들여와 전국에서 양식을 하고 있다. 육식어종은 아니지만, 생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지역에 이따금 멧돼지들이 출몰하는데, '저돌(猪突)'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공격성이 강해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5~6월은 어미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계절이라 더욱 난폭하다. 이와 함께 집에서 키우던 것이 뛰쳐나와 야생화된 염소도 보고 되고 있다. 강천사에 이르는 동안 많은 야생화들을 만난다. 벌깨덩굴, 골무꽃, 족도리풀, 둥굴레, 참나리, 지네고사리, 장구채, 선밀나물…. 더러 당국이 심은 것도 있지만, 산중에 들면 자생하는 꽃들도 많다.

벌깨덩굴은 줄기가 네모나고 전체에 향기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잎은 들깻잎처럼 심장형을 이루고, 꽃은 자주색이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사찰 조경으로도 쓰임새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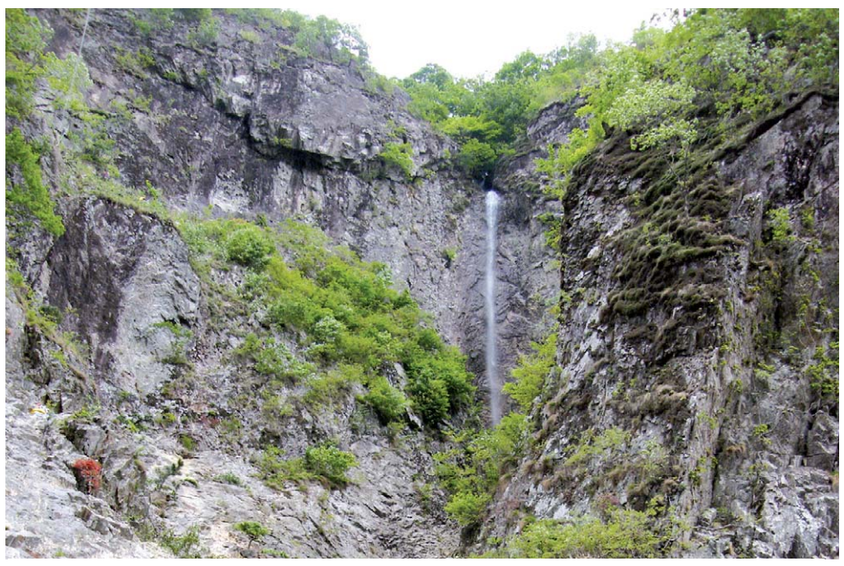
골무꽃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여러해살이풀이다. 숲 가장자리 그늘진 곳을 좋아하는데, 풀 전체에 짧은 털이 나고 줄기가 네모난 것이 특징이다. 옛날 절에서 어린잎을 나물로 무쳐먹었다. 계곡 물속에 이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수온이 낮은 데도 연유하지만, 이끼가 먹고 자랄 영양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물이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는 반증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강천사가 나타난다. 초라한 암자 규모가 신라와 도선을 무색케 해준다. 이 넓은 강천산에 절땅은 겨우 2000평, 전각이 앉은 경내지가 한눈에도 차지 않는다.

강천사 사세가 원래 이랬던 것이 아니다. 일찍이 열두 암자를 두었고,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다. 그랬던 강천사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것은 멀지 않은 과거에 무지몽매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승가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빌리면, 강천산을 당시 쌀 300가마에 팔아넘겼다고 한다.

유가(儒家)들이 승냥이처럼 설치던 조선시대에도 선대 조사들은 목숨 걸고 사찰 임야를 지켜왔다. 그런 사역을 현대에 들어와 사리사욕과 무지몽매로 알게 모르게 팔아넘겼으니 천재(天災)나 전화(戰禍)로 잃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다.

경내 대웅전 외에는 모두가 요사 성격의 당우들이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형편에 따라 하나씩 재건된 것이라 무질서한 느낌을 준다. 용화당 처마밑의 소쿠리들은 양식이 부족한 겨울산새들을 위하여 노스님이 마련해 놓은 먹이그릇이다.


강천산 구장군폭포.

기암절벽·병풍폭포 등 모두 화산체 단애 소산물
"쌀 300석에 넘어간 불국토…반드시 되찾아야"

경내외 팽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등이 있다. 이렇다 할 조경은 되어 있지 않고, 텃밭에 야채 대신 취나물과 두릅나무를 키우고 있다. 예로부터 취나물은 산중 수행자들에겐 밥이요, 찬이었다.

절 마당에서 보면 오른쪽 산자락에 기암이 서 있는데, 모습이 관세음보살을 많이 닮아있다. 건너편 광덕산에도 사천왕 바위가 서 있지만, 모두가 남의 땅에 서 계시니 바라볼 면목이 없다.

강천사에 승유배불의 시대를 반영하는 지네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지네는 도회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고 있다. 야행성인데다 음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산중사찰에서는 흔하게 나타난다. 거미나 곤충 따위를 잡아먹고 산다. 강천산의 나비들은 좁은 계곡 쪽보다는 강천사 주변과 구장군폭포 지역 등 일사량이 많은 곳에서 주로 관찰된다. 참세줄나비는 주로 숲 가장자리나 계류 주변에 서식하는데 늦봄부터 여름까지 연 1회 나타난다. 물가에서 물을 빨거나 탐방객들이 버린 음식이나 과일에 모인다.

곤충이 있는 곳에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개구리들은 저마다 우는 계절이 따로 있다. 5월 중 강천사 주변에서 우는 것은 거의가 청개구리들이다.

강천사 모과나무는 국내 최고령수라 하여 전북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사찰 주변에 모과나무들이 많은 것은 옛 스님들이 사중의 약목으로 중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이다. 원래 경내에 있었는데, 땅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담장 밖으로 밀려나버렸다. 땅을 잃으니 산천초목도 다 남의 것이 되었다.

모과나무를 조금 지나면 계류 건너 삼인대 비각이 서 있다. 조선 중종 때 폐비 신씨의 복위를 맹세한 이 지역의 세 관료들의 충정을 기린 비석이다. 당시 세 사람이 각자의 관인을 걸어 맹세했다는 소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계곡 위에 무지개처럼 걸린 현수교 위에 서면 계곡은 보이지 않고 숲의 바다만 끝없이 펼쳐져 있다. 군데군데 소나무가 있긴 하지만, 오래 전에 쇠퇴기에 들어섰다. 졸참나무와 신갈나무를 비롯해 참나무도 많지만, 남부온대수종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넓은 수목원을 연상케 한다.

그 중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들로는 층층나무를 비롯하여 보리수, 쉬땅나무, 고추나무, 물참대, 국수나무, 쪽동백나무, 팥배나무, 병꽃나무, 찔레꽃, 그리고 땅비싸리까지 다양하다.

보리수는 주로 남부지방에 자라는 작은 관목이다. 잎과 줄기에 비늘 같은 은빛 털이 나있는 것이 특징이다. 꽃은 시간이 지나면서 흰색에서 연노란 색으로 변한다. 한자로 '보리수(甫里樹)'라고 쓰기 때문에 부처님이 도를 깨우친 '보리수(菩提樹)'와 전혀 다른 나무이다.

현수교를 지나면 왼편으로 광덕산 정상으로 가는 산행길이 나 있다. 강천산의 조류는 아침저녁으로 많이 관찰된다. 여름철새로는 뻐꾸기, 검은등뻐꾸기, 노랑할미새, 붉은배새매, 쏙독새, 파랑새, 꾀꼬리, 호랑지빠귀 등이 있지만, 관광객이 드나드는 시간에는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 활동한다.

구장군폭포는 맞은편 광덕산에 있다. 세 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가장 높은 것이 100m나 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봄가을 갈수기 때는 물이 말라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갈수기 때는 펌핑을 통해 인공폭포를 만든다.

구장군폭포를 지나면 오른쪽으로는 제2 강천호로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는 선녀계곡과 연대암터로 이어지는 비룡계곡길이 이어진다. 대나무숲에 둘러싸인 연대암은 영조 때 편찬된 <옥천군지>에 명적암, 용대암, 왕주암, 적지암 등과 함께 나오는 5개 산내암자 가운데 하나이다.

모두가 전화를 입어 주춧돌만 남긴 것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강천산 산중이 모두 빨치산의 근거지였기 때문이다. 절터에 묘가 자리하고 있어서 만감이 교차한다. 호남의 소금강인 강천산은 우리 시대의 불교가 참회와 정성으로 반드시 되찾아야 할 불국토이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께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약사여래 도량 선광사는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심마니들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산삼 감정을 해오고 있으며, 인연 있는 분들께 산삼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여래도량 선광사 주지 대광 합장

연락처 : 031)222-8269 / 017-377-046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98-16 선광사

산삼이란?

●천종(진종)산삼 (天種, 眞種)
고산지대의 식물의 특성에 의하여 압력이 높고 바람이 세고 습기가 적고 등등으로 고생고생하며 자란것으로 뇌두는 가늘고 싹대 역시 작고 가늘며, 잎수와 가지 숫자도 적다. 열매 또한 작으며 숫자가 적다. 뇌두가 가늘고 길며 약통에서 미가 갑자기 가늘어져 미에 살이 안붙고 힘이 있어, 예쁘고 귀한 티가 난다.
30년 정도는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란 연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잘 크지를 못하며, 제일 커봐야 1냥 2~3돈 정도라 할 수 있다. 작지만 많은 세월이 느껴진다.
오리지널 산삼이란 것이며, 천종(진종)산삼이란 참으로 귀하며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지상 최고의 식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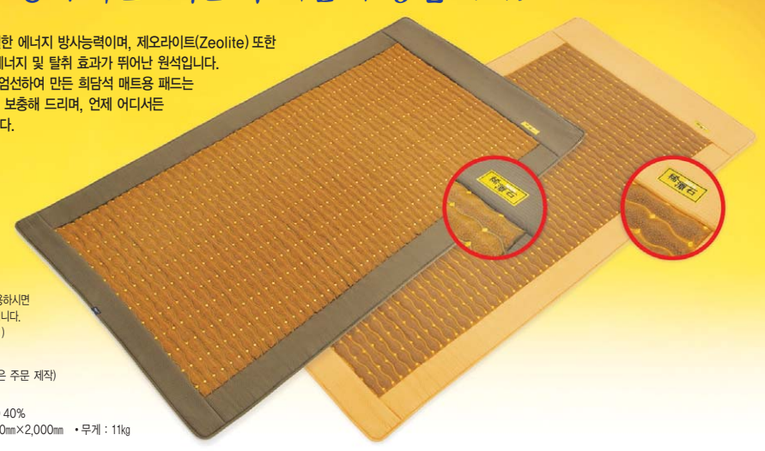
●지종산삼 (地種)
야생장뇌 산삼에서 씨앗이 떨어져 자라면 씨종이 한단계 진화하며 야생장뇌에서 1-2대 지난것이 지종산삼이며, 뇌두의 굵기가 진종산삼과 야생장뇌의 중간정도이고, 생긴 형태도 중간이다.

●인종, 야생장뇌 산삼(人種)
야생장뇌란 재배장뇌씨가 새등에 의해 깊은 산으로 옮겨져 자생하는 것으로 생명력이 한단계 진화하며 오래살 수 있는것. 인삼과 많이 닮았으며, 뇌두가 두껍고 미에 살이 많고 귀티가 나지 않는다. 현재 채취되는 산삼의 대부분은 (95%이상)야생장뇌 산삼이나 지종산삼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러나 천종(진종), 지종,야생장뇌의 어디에 속하느냐는 집착할 필요는 없고 야생산삼이며 년조가 같으면 약효는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 같은 년조일때 천종(진종)산삼은 야생장뇌나 지종산삼보다 크기가 작다.

희담석 稀潭石
www.jawonet.com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
생명에너지가 방사되는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용방법
돌침대, 매트리스, 전기매트, 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희담석의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뒷면의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희담석 매트용 패드
●1인용 : 35만원 ●2인용 : 60만원 (2인용은 주문 제작)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겉재질 : 모노망사, 황토면 • 크기 : 1,000㎜×2,000㎜ • 무게 : 11kg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방석
●가 격 : 45,000원
●크 기 : 45㎜×45㎜

사용처
최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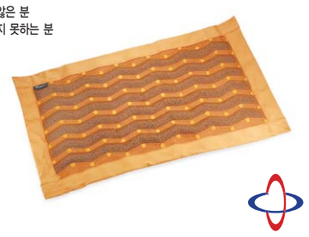


희담석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분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등

희담석 베개용 패드
●가 격 : 25,000원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린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함.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02)3476-2335 FAX:(02)3476-2505

제품문의 011-9230-2335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나에게 삼보가 있는 것이니 나로부터 삼보에 귀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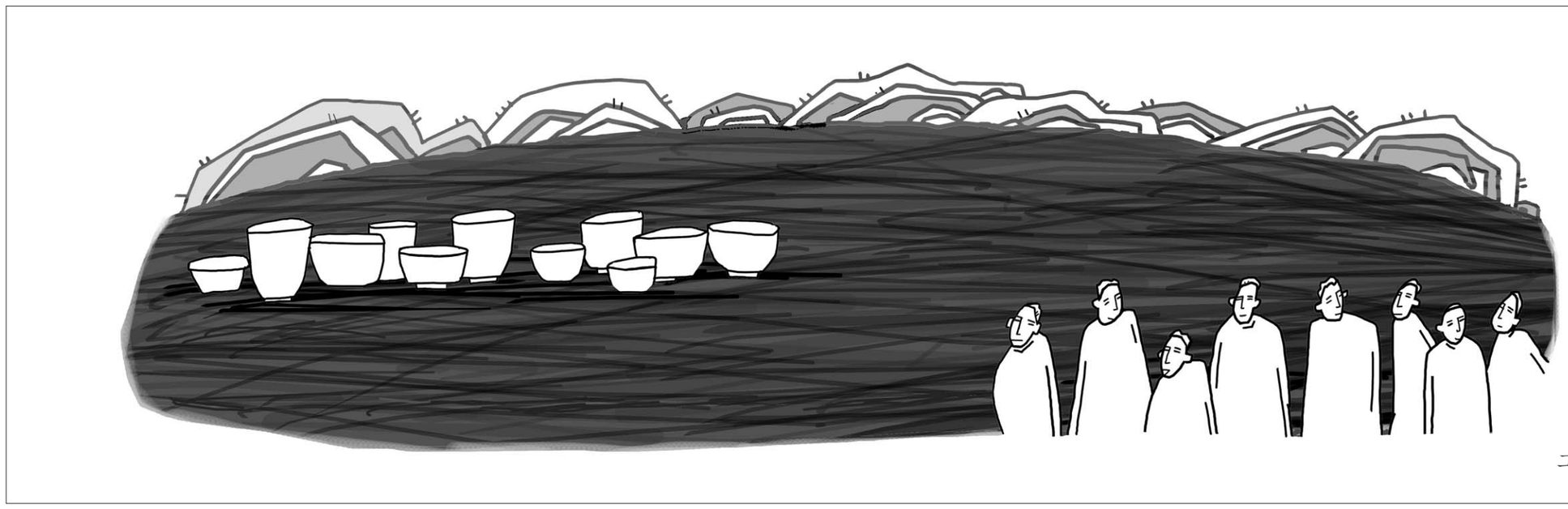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초발심의 경지가 어찌 바른 깨달음인지

문 초발심(初發心)이 곧 바른 깨달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부처님 가르침에 입문해서 수행해 온 지 오래지만 아직도 캄캄하기만 한데 초발심에 깨달을 수 있다니요. 어찌 초발심의 경지를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일러 주십시오.

답 우리가 삼천 년 후나 삼천 년 전이나 그냥 오늘인 것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히 믿고 진실히 놓는 작업을 할 때, 또는 진실히 구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닌 자기와의 만남의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한생각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은 그렇지 못합니다. 바깥으로 끄달리고 모든 행도 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발심에 깨치지 못하는 것이지, 초발심이 십 년이 갔든 이십 년이 갔든 하루가 갔든 일 초가 갔든 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초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한 찰나니깐.

그러니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동시에 뜻과 더불어 같이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고 믿고 놓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십 년이 갔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있어서는 십 년과 일 초가 맞먹습니다. 그러니 초발심이죠. 그러니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마음먹고 행하고 말하고 뜻하고 모든 것이 결부돼야 되는 것이지, 이 컵 하나라도 그것이 빠지면 안 되죠. 결부됐으니깐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산이 된 겁니다. 지수화풍 그 자체가 결부가 됐으니까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컵도 흙과 물로 개어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굽는 겁니다.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한데 결부가 돼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컵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그냥 겉벌로 볼 게 아니라 우주의 개공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빈 그릇이 나와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어야 이 컵이 컵이라는 빛이 있는 거지 뭐, 담아 먹을 수 없다면 아무 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깐 물 담아 먹고 음료수 담아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주개공이 이 컵에도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초발심에 삼천 년이 갔다 하더라도 행하지 못한다면 초발심도 없는 것이고 행한다면 일 초도 안된다 이 소리죠.

잡념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문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는 지원에 가서 예불에도 참석하고 설법도 듣고 그러는데, 가끔 설법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잡념이라고 할지 망념이라고 할지…. 또 제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도중에도 학생들이 잡념 즉,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처지의 도반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잡념이 많은 학생들이 일념 정진할 수 있도록 스님의 원력을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 그건 선생님께서 그렇게 집중해서 모든 애들한테 에너지를 베푸세요. 그러면 아마 70%, 80%가 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귀에 저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리를 틔워 주면 그냥 됩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실천해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애들이 얼마만큼 더 물리가 터졌나 하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댁에서 해 보고 댁에서 지켜보고 댁에서 느껴야지, 그게 바로 내 밥인 것이지, 내가 먹고 맛을 아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해 줘도 그걸 댁에서 느끼지 못하고 맛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게 해 보세요. 작으나 크나 다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스님은 용법(用法)만 가르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게 우습잖아요. 자기가 먹고 자고 깨고 하는 게 그대로 용인데, 그대로 여여한 우리들의 법인데 아, 용 빼놓고 송장이 되란 얘깁니까? 마음이 있음으로써 용이 있고, 생명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용이 있는 거지 아, 사람이 눈 하나만 치켜 떠도 용인데, 그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뭐 남는 게 있어서 송장 법을 가르칩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디다마는 용이다, 용이 아니다를 떠나서 생활 자체가 그대로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진전이 되고 물리가 터져서 지혜롭게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무심으로써 무전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법칙 그대로 진출할 수 있을까? 내 마음으로써 그대로 모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무심법으로서 그 진실을 행할까 하는 거 말입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문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부처님께 지극하게 삼 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어디에다 절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면서 '아, 불법승 삼보님께 하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디에다 절을 해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이 요만큼 알면 나도 요만큼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알면 나도 이만큼 알게 되고요, 여러분이 바다와 같다면 나도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한다는 거, 그 움죽거리지 않는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 자(自)의 근본에서 마음을 내는 것이 법이니까요. 마음을 내는 것이 법입니다. 자성삼보라는 것이 불법승, 그리고 승은 움죽거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움죽거린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자기 자성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삼보가 있고 삼심이 있어서, 삼심이 일심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살았고 현재에도 내가 살고 미래에도 내가 살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밤과 낮에 비유해서, 밤이면 저승이고 과거, 낮이면 이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승과 이승이 어떻게 둘로 나눠졌을까? 밤에 잠을 자야 낮에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이 바로 과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낮이 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밤과 낮이 한데 합쳐져야만이 생과 사도 같이 구르면서 이게 진리의 끈이 되죠. 진리의 끈이 됨으로써 그냥 끝없이 돌아가듯 말이에요.

☞26면으로 계속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언론회장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무료)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오! 쏘스연꽃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입 종 안 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종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buddhanews.com

어디다 절을 해도 바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하는 것!

☞25면에서 계속

그래서 조금 아까 무엇을 어떻게 했든 무엇을 들었든, 모두 벌써 과거로 돼 버렸어요. 과거가 돼 버렸다고요. 그런데 과거로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현실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과거는 벌써 없어졌지요. 그러니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의 내 한마음이 바로 삼심이요, 그것이 한데 합치면 삼보가 되고,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자기 전체 한마음으로써 더불어 같이 한가운데 삼보를 중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상대가 없죠. 내가 없다면 삼보도 없고, 상대도 없고, 세상도 없고 모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삼보에 귀의하라, 나로부터. 나에게 삼보가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면 그때 부처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하고 움죽거렸다 하면 법신이자 화신이고, 화신이자 보신이에요. 보신이자 또 금방 화해서 응신이 돼 버리죠. 그래서 예전 공부한 선지식들께서 '그대로 여여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니 저거니 이거니 저거니 할 거 없이 그대로, 생활 자체에 그대로 살아나가고 그대로 굴러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생활이 그냥 여여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주인공 속에, 즉 말하자면 우주 섭류의 소용돌이, 법계의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 속에 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마음 속에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을 믿고 다니더라도 둘 아니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당에 오면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니 어찌 일체 만물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다르며, 법이 다르며, 움죽거리는 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법이 둘이 아닐지언댄 승보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건 그냥 따라다니는 껍데기입니다. 그런 껍데기 차와 같은 거죠. 운전수가 가지는 대로 가는 차.

그러나 그 껍데기도 소용없는 게 아니죠. 그건 화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화두죠! 내가 없었더라면 우주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 세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상대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나왔죠. 그렇듯이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일체,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이 지수화풍이 모여서 움죽거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지수화풍이, 껍데기가 움죽거리는 것보다도 유(有)의 법과 무(無)의 법이 같이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움죽거리고 이러는 게 아니죠. 마음내는 것 따로 있고 움죽거리는 육체 따로 있고, 마음내는 놈 따로 있고 마음내기 이전 놈이 따로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놈이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벗어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몸이 내 몸이니 둘이 아닌 까닭에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놓고 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일정례를 올리더라도 마음을 둥글려서 내가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어디다가 절을 해도 바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경계에 대해서

문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모든 걸 놓아 가면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어느새 편안한 경계(境界)를 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고 놓는 마음 가운데 편안한 경계를 좋아하는 마음이 깃든다면 잘못 가고 있는지요.

답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 육체 안에 있는 중생들도 편안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한데 뭉쳐서 놓을 수 있는, 주인공에다 놓을 수 있는 작업이 물러서지 않는 진실이라면 바로 그 마음은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깐 편안함이 오고 끄달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우주 천체는 근본 하나로 돌아가지만, 평등하게 돌아가지만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둘로 보지 말고 주인공에다 모두 일임해서 놨을 때, 그리고 자기한테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그 모두를 건건이 거기에다가 놓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질 때,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다가만이 놓을 수 있을 때, 죽고 사는 것을 탓하지 않을 때, 그런 때에 비로소 편안하면서도 그 모두를 커버할 수 있고 자유스럽운 대권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항상 얘기하던 거와 같이 진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놓고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고 부드럽게 뜻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태세가 된다면 진실하게 구함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깨닫는 소식도 얻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편안함, 편안함도 여러 가지겠지마는 그냥 무조건 '옛다, 봐라! 죽기 아니면 살기지.' 이러고 놓는 거하고, 믿고 놓고 편안한 것하고 다른 거죠. 항상 얘기했듯이 모두가 내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진실로 그렇게 감응이 된다면 나 아님이,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그 한마음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뜻이니까 그대로 거기에 맡기고 믿고 진실되게 가야 하는데, 믿지 않거나 설 믿는다면, 잘했을 때 '아! 감사하다' 이렇게 했더라도 다음에 가서 안되면 아, 이건 또 도루묵이 돼 버려요, 안되니까.

이거 봐요.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에요. 그러니 선업 악업을 다 놔라 이겁니다. 만약에 회사를 경영한다면 높이 놓을 사람은 높이 놓고, 얕게 놓을 사람은 얕게 놔야 일이 되지, 그 작업을 못 한대서야 어떻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에도 악업 선업을 다 놓고 배워야 돼요. 그거를 비유해서 한번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승진을 시켜 달라고 아주 정성을 지극하게 들였어요. 그것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극하게 들였어요. 그런데 그만 뒷걸음질이 돼 버렸어요. 그러고는 남이 그 자리에 와 가지고 월남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월남에 가서 그만 전사를 했어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다시금 승진이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 진실히 했는데 후퇴가 됐으니 어떻게 됐겠소? 그 믿음이라는 게 산산조각이 났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뜻이 있으니깐 후퇴가 됐겠지요.

> 진실히 믿고 진실히 놓는 작업을 할 때
>
> 진실히 구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
>
> 그것이 바로 자기 아닌 자기와 만남의 소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악업 선업을 다 놔라 하는 것은,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다 하는 것인데 어떠한 까닭이냐?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이거죠. 자유인의 대권을 얻었다면 불리하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익하면 올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익하거나 해롭거나 올려놓을 줄만 안다면 그건 망하고 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도, 후퇴할 때는 후퇴하고 전진할 때는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수능란한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지휘를 맡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자유자재한다는 뜻은 아픔을 똑같이 느끼면서 모든 거를 이익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지만, 얼른 쉽게 말해서 아주 권력을 남용하고 모든 일에 부정으로 가고 그러면 그냥 부정으로 가게끔 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행해 봐야 '아이쿠!' 하고 그때 가서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도 알고 올려놓을 줄도 알아야 자유자재의 대권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잘 추려서 듣기를 바랍니다.

물의 신에 대해서

문 얼마 전에 강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저의 앞길이 열린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자연의 신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강과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복과 안녕을 빌고 있듯이, 저는 강이라고 하는 것을 대자연, 그러니까 저의 마음의 고향에다가 하라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인간의 삶이 바뀌고 재물과 복이 들어오고 이득이 생기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예전에는 열나흗날 저녁, 보름날 아침 사람들이 오곡 잡곡밥을 해 가지고 강가에 나와서 제를 지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내며 또 누가 동조해서 같이 거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지내면서, 또 스님네들이 그것을 호응을 해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을 형성시킨 그 장본인인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이날까지 끌고 나온 그 은혜를 모르고,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움죽거리게 하고, 모든 매사 거를, 전체 그 만법을 알게 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고 또는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서 강가에 나와서 강신, 즉 말하자면 물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경향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스님네들도 그걸 동조해서 그것을 지내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불화가 일어나느냐? 각자 자기 주인이 화해서 자기 마음들을 그렇게 쓰고 행동들을 그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이 오방신장이 돼 가지고선 그 눈을 부릅뜨고 몽둥이로 치고 해도 모릅니다. 철퇴를 맞아도 어디서 맞는지도 모릅니다. 칼로 자르고, 에는 듯하게 잘라도 그것을 어디서 그러는지도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만법을, 현재의 만법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가. 유식으로서 만법을 다스려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유식으로서 만법을 다스려 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문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주인, 근본을 감사히 생각하고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서 안으로 굴려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만법의 조절이 된다면, 바로 내 마음으로부터 나를 조절하는 만법의 근원이 돼서 그게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江際)를 지내는 거뿐만 아니라 모든 이치에 어긋나게끔 모두 하니 동그란 그릇에 네모난 뚜껑을 덮는 거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긋나고 사는 게 어긋나고 불화가 생기고 가난하고, 가난이 줄줄줄줄 불어서 돌아가면서 화근이 붙어 돌아가고, 이러한 문제들이 한두 건입니까? 한생각이 가난한데 어찌 행을 가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지르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다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그걸 동조하는 사람이나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바로 넝마 즉, 걸레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슬픔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고독함도 많고 허망한 일도 많은데, 그 모두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른다면, 어디로 가 도는지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디 인간을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삼계오온이 한 점의 마음이거늘 그 근원으로 돌아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점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배신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배신해서 무엇이 이득이 있으며,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서 무슨 이득이 있으며, 자기가 자기를, 은혜를 몰라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대통합종단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종단에 유의 하십시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 총무원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김해,창원종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교수

민심을 읽는 마음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라는 인물을 초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제임스 베이커는 누구인가. 부통령 조지 부시의 죽마고우로서 당시 부시후보를 도와 레이건을 괴롭힌 유능한 선거참모였다. 말하자면 적진(敵陣)의 장군을 최측근으로 기용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 미국의 언론들은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건달인줄 알았는데 사람볼 줄 아는구나"라는 논평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왜 인재를 구하지도 않고, 포용성도 없을까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졸개만 섬기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은 지난 10년간 진보를 내세운 설익은 정책에 염증을 느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말했다. 그런 차에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후보에게 531만 표차로 표를 몰아주었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 '청계천의 기적'을 기대했고, 버스전용차로제 같은 '신선한 충격'을 꿈꾸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요즘 국민은 화가 나있다. 성난 민심은 촛불로 광화문에서 청계천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한 채 '민심의 쓰나미'를 몰아 '광우병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심정적으로 배알이 틀려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보면서 의아해 했다. 장관직 임명을 끝낸 후 '돈이 많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대변인의 말에 국민은 우리들의 아픈 가슴을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박근혜도 껴안지 못하는 오만과 독선에 국민은 실망했고, 지지의 열정은 식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되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물론 건국 이래 최초의 별장 회담이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큰 업적을 염두에 두고 미국산 쇠고기 건에 관하여 미국 측의 의견에 동의해 버렸다.

30개월 이상의 소가 과학적으로 광우병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 학자들의 표현대로 수 억분의 일이거나,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먹는다는 말로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또 대운하 사업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지도 않고 마치 '숨겨놓은 연인'처럼 비밀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100일 동안에 일어난 국민의 배신감 비슷한 감정의 폭발이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면 어떠한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면 된다. 그런데 서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돈 있고, 유식한 '그들만의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직후 68.3% 지지율이 19~20%로 떨어졌다. 원래 대통령에게는 18%의 고정지지율이 있다. 이 통계는 노무현 때도 그랬고, 심지어 전두환 때도 그랬다. 그러니까 18%선을 약간 넘어선 지지선은 열성적인 지지층 이외 국민 지지는 없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처음에 중 · 고등학생이 시작한 '10대들의 반란'이 이제는 계층, 세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다. 처음에 많은 국민들은 좌파들의 선동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보수계층도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떨떠름한 처신이다. 노무현 정권 때 여당이었든 그들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듯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면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그야말로 정상배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은 앞이 안 보인다. 악재가 한둘이 아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 같다. 목표도 없고 전략도 안보이고 전술은 헛발질 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야당지도자들은 불교의 중도사상을 익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직시하며, 고통 받는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적의 장군이라도 유능하면 등용시켜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다.

불자의 눈

탈바꿈 하는 학술세미나

불교학술세미나가 열리는 곳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참가자가 없다는 것이다. 학술회의란 성격에 비추어 '관객의 부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발표자들이 시간에 쫓긴다는 것이다. 심지어 진행자가 시간 종료를 알리고 발표자는 주섬주섬 발표를 마무리 하는 모습도 익숙한 풍경이다. 발표 후 토론이 항상 부실하다는 것도 늘 회자되는 세미나 풍토다. 일반 참가자들과 발표자의 진지하고 열띤 토론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지정 토론자의 토론 내용도 발표내용의 수정 보완 요구 차원으로 흐르는 게 관례처럼 되어버렸다.

꽉 찬 객석 앞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그에 대해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함께 토론하는 학술세미나를 찾아 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다. 그런 가운데 밝은사람들이라는 학술단체가 불교학세미나의 진행 방식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는 소식이다. 이 단체는 학술연찬회를 앞두고 발표될 내용을 미리 책으로 묶어 서점에 배포했고 질의 사항도 미리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행사의 진행도 입체적으로 기획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도는 세미나를 주최하고 기획하는 사람들로서 바람직한 태도다. 타성에 젖은 준비와 기획이 재미없고 졸리는 세미나를 만든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밝은사람들의 세미나 분위기 전환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두고 볼 일이지만 '변화'를 위한 노력의 값은 100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결계신고 참여율 66%의 의미

조계종이 올 하안거부터 시행하는 결계신고 동참율이 66%로 집계됐다. 총무원은 더 취합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신고 기간이 5월 29일로 끝났음을 감안하면 신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설령 더 늘어난다 해도 마감 뒤의 독려에 의한 타의적인 신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처음 시행하는 결계신고의 모양새만 그르칠 것이다.

조계종은 수행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포살과 결계에 상당한 종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첫 번째 안거에서 나타난 66%라는 동참율은 상큼하지 않다.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은 결계신고와 포살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계(受戒)와 법계품서 등 각종 갈마에 권리제한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6할대로 낮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총무원과 종도들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로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 구성원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혼란만 야기하고 조직의 기강과 의사소통 구조에 상처를 남기게 된다. 조계종의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은 종단의 전통을 지키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합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선택한 제도다. 안살림과 바깥살림의 조화가 없이는 산중불교의 구태를 벗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계신고를 계기로 조계종 총무원은 보다 세심하게 종도들과 소통하는 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나를 그렇게 무시할줄 몰랐어!"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⑰ 내 옷 내가 고르기

왜 당신 마음대로

이씨는 30대 중반에 힘들게 결혼했다. 처갓집에서 이씨가 가진 것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을 이루기까지 아내와 이씨는 무진 애를 썼었다. 꿈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이씨에게 아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 것이 있어요"하며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뭔데?" "열어보면 알아요" 하면서 아내는 "큰 맘 먹고 샀어요. 당신 거예요. 다음 주에 아버님 생신에 가는데"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씨는 궁금하게 생각하며 포장을 풀었다. 남성 셔츠였다. 환한 색상에 고급스러워보였다. 아내는 "그 색이나 디자인이 당신에게 딱 어울릴 것 같았어요." 하였다.

그 말을 듣자 이 씨는 갑자기 거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뭐? 나한테 어울린다고?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씨는 무시당한 것 같아 미친 듯이 화가 났다. 놀란 아내에게 퍼부어댔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은 거야! 내 옷이지 당신 옷이야? 왜 당신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하고는 에이, 하며 상자를 바닥에 내팽겨쳐 버렸다.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세상에, 당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온 건데 내던져버리다니. 당신 생각해서 사온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씨는 '당신 생각해서'라는 말에 걸렸다. "정말 나를 생각했으면 내 의사를 물어보아야지. 당신 마음대로 사 놓고는 나를 생각했다고?"

아내는 너무 놀라서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난 안 입어! 가서 환불해 와! 내 옷은 내가 산다고!" 이씨는 도무지 분노를 자제할 수 없었다.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다.

"나를 그렇게 무시할 줄 몰랐다고!"하고 소리지르고는 밖으로 나와 버렸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밤거리를 정신없이 걷기 시작했다. 한 시간쯤 걷자 힘도 빠지고 마음도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왜 그랬을까. 나를 생각해서 사온 건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의 분노는 없어지질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이씨는 마음을 가라앉혀 보았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작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다. 사촌 형이 셋 있었고 누나도 있었다. 이씨는 항상 형들의 옷을 물려받아 입었고 대학교 전까지는 한 번도 자기의 옷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작은어머니가 하는 말은 "이게 너에게 어울릴 거다. 이번엔 이것을 입어라. 너를 생각해서 준다"였다. 그러나 체형이 자기와 다른 형들 옷은 너무 크거나 색이 바랬고 아무튼 제대로 어울린 적이 거의 없었다. 이씨는 어떤 옷이든 한번이라도 자기가 골라서 입어보고 싶었다. 아무리 싼 옷이라도 상관없었다. 직접 내가 골라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일방적으로 물려주거나 사주는 옷을 입어야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열등감과 억울함 속에서 내 옷을 고를 수 없다는 분노가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것이다.

자생중생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준 옷이지만 자기에게 묻지 않고 샀다는 사실에 그토록 화가 났던 것이다. 무시당한 느낌과 분노가 그 정도로 깊은 줄은 몰랐다. 정작 작은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화를 내지 못했다. 엉뚱하게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준 아내에게 화살을 돌리다니, 이씨는 너무 괴로워졌다. 이씨는 밤중에 집에 들어갔다.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아까는 당신이 꼭 작은 어머니처럼 생각되더라고."

이씨가 놀란 일은 아내는 아내이지 작은 어머니가 아닌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하는 점이었다. 며칠 동안 내내 그 생각만 했다. 그러다 우리 속엔 자생중생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중생들은 자기가 알고 겪은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법어가 떠올랐다. 어릴 때 화가 난 중생의식은 해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표현을 할 수 없었을 뿐 분노는 그대로 쌓여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유사한 상황이 되자 그 중생이 나서서 걷잡을 수 없이 화를 폭발시킨 것이다.

"자생중생들은 잘 되고 잘못되고 선하고 악하고를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내 마음이 그것을 다스려서 조복 받아야 합니다."

법어를 마음에 새긴다. 이씨는 그러려면 자성의 힘을 길러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광암
- 법 명 : 덕 산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동 1058-7번지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한국불교내외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칠보사
- 법 명 : 경 보
- 속 명 : 김요식
-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 1동 93번지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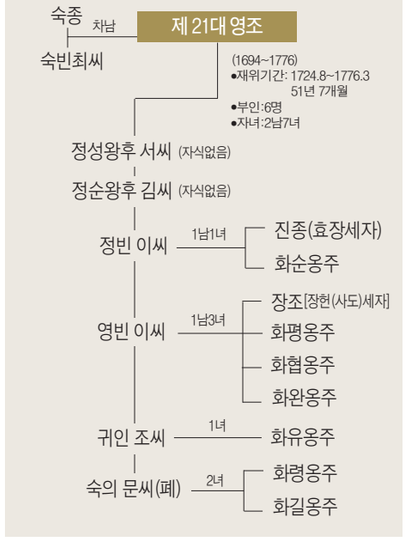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재위 51년…치적도 사연도 많은 조선 최장수 왕

45 21대 영조와 계비 정순소왕후 – 원릉

영조 1694~1776(83세)
재위 1724.8(31세)~1776.3(83세), 51년7개월

제21대 영조 가계도




❶


❷


❸

❶영조의 원릉 전경. ❷영조가 청계천 준설 현장을 방문한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수문상친림관역도. ❸영조 때의 국새.

정치적 갈등 탓에 아들 사도세자 죽음으로 내몰아
천출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 극복은 평생의 과제

영조는 조선 역대 왕 중 최장수 했고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다. 세계사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83세, 1819~1901), 유럽 최장수 왕조 합스부르크가의 마지막 황제 프란츠 요제프(87세, 1830~1916), 일본의 쇼와 덴노 히로히토(89세, 1901~1989), 이들은 셋 다 80세 이상 살고 60년 이상 재위한 군주의 트리오다. 재위 기간은 프란츠 요제프 68년, 빅토리아 64년, 히로히토 63년이다.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은 98세까지 살았고 재위기간은 79년이다.

영조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66세에 15세인 정순왕후를 맞아들일 정도로 정력가였다. 장수와 노익장의 비결은 검소함과 금욕생활이었다. 제사 때 술 대신 식혜를 쓰게 하는 등 음주를 멀리 했다. 그의 침실을 본 사관은 이렇게 적었다. '임금이 목면으로 된 잠옷을 입고 명주로 만든 요 하나, 이불 하나가 전부다. 병풍도 없다. 몸을 편하게 하는 도구는 민간의 부잣집 침실만도 못하다.'

영조는 재위 기간이 긴만큼 치적과 사연이 많다. 군왕의 지혜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정책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영조 대는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첨예했다. 당파라고 비난일색으로 규정하는 것은 식민사관의 결과물이다.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정당이다. 정책 정당이 아니라 이념과 이익을 중심으로 뭉친 정치집단이다. 현대에도 명확하게 정책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정당이 있나?

노론 세력과 성향이 같은 영조와 소론 측에 동조한 세자와의 갈등으로 결국 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스물여덟 팔팔한 청년을 뒤주 속에 처넣어 질식사시킨 전대미문 사건의 총감독이 영조다.

영조를 평생 괴롭힌 업장은 두 가지다. 어머니인 숙빈 최씨가 천한 신분이란 것과 선왕이자 이복형인 경종 독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다. 영조는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간절한 노력을 기울였다. 숙빈 최씨의 아버지, 증조부, 고조부에게 벼슬을 추증했다. 외가 자체를 양반으로 승격시켜 어머니의 출신 성분을 격상시키려했다. 재위 29년(1753)에는 어머니에게 화경(和敬)이란 시호를 추서했다.

서얼에 대한 규제완화도 영조의 출신 성분과 유관하다. 서얼에 대한 차별규정은 태종 대에 만들어진 '서얼금고법'으로부터 시작된다. 양반 소생일지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광해군 때 '홍길동전'이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양반 출신 첩의 소생을 서자(庶子), 천비 출신 첩의 소생을 얼자(孼子), 이 둘을 합쳐 서얼이라 한다. 당시 양반들은 주로 자신의 집에 거느리는 인물 반반한 계집종을 첩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서자보다 얼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것이 서얼을 더욱 멸시하는 이유였다.

선조 대에는 서얼 1600명이 서얼차별을 없애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선조는 서출 출신으로 왕이 된 첫 번째 임금이다. 영조 즉위 원년인 1724년에는 서얼 5000명이 집단 상소했다. 영조의 출신 성분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아울러 서얼 인구가 전 백성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영조는 이들이 주장하는 '서얼통청'을 무시할 수 없었다. 사회적 환경과 자신의 콤플렉스의 합의점을 찾고자 했다. 차별을 철폐하면 사회 기강이 문란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했다.

1772년 영조는 서얼도 관직에 나갈 수 있다는 통청을 허락하는 교서를 내렸다. 서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긴 자는 처벌을 받게 했다. 물론 왕의 교서로 오랜 관습이 하루아침에 획일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서얼차대 철폐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이 영조다. 허균의 <홍길동전>도 시대적 배경을 세종 시대로 설정하고 있다. 그때부터 홍길동과 같은 의식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는 암시다.

영조 자신이 정비 출신 소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정비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했다. 두 명의 정비는 아예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고 4명의 후궁에게서 2남7녀를 얻었지만 두 아들의 운명은 불행했다. 정빈 이씨 소생의 맏아들 효장세자는 10세에 죽었다. 영빈 이씨 소생의 둘째 아들이, 영조가 마흔이 넘어 얻은 금지옥엽, 바로 사도세자다.

왕실의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라 공들인 작품이다. 무지렁이 백성들은 밭을 매다가도 덜컥, 해우소에서 나오다가도 쑥쑥, 아들을 낳지만 왕실의 아들은 공들여 만든 유리 작품이다. 화려하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다. 중전이나 후궁이 간신히 회임을 하면, 조정 대신들이 거짓 웃음을 철철 흘리며 경하드리옵니다라고 법석을 떤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작품은 곧잘 동백꽃 망울처럼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거나, 혹여 청년으로 성장하면 권력 암투의 주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여법하게, 축복 속에 왕위를 승계한 경우는 없다. 사도세자를 사도세자로 만드는데 한몫을 톡톡히 한 여인이 지금 영조 곁에 묻혀있다.

영조는 정비 정성왕후가 66세로 승하하자 중전 자리를 잠시 비워두었다가 15세의 정순왕후와 가례를 올렸다. 이때 영조의 나이 66세였다. 정순왕후는 어두운 그림자를 몰고 왕실에 입장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정순왕후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낙으로 삼았다. 친정아버지 김한구와 더불어 영빈 소생인 세자를 모함하는데 앞장섰다. 영조는 그녀의 책동에 분개하기도 하고 눈감아주기도 했다. 어린 신부의 책동에 늙은 신랑은 애증이 갈팡질팡했다.

결국 그녀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물꼬를 텄다. 나아가 미래의 위험인 세손(정조)의 등극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싸움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와중에 영조의 천수가 마감되었다. 늙은 영조는 세손에게 그녀의 목숨만은 보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83세로 승하했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유훈을 지켰다. 자신보다 겨우 일곱 살 연상인 할머니를 지켜주었다. 구원(舊怨)을 따지지 않은 덕분에 그녀는 손자 정조보다 오래 살았다. 증손자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수렴청정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원릉(元陵)**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능역 안에 있는 21대 영조와 그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金氏)의 능이다. 사적 제193호. 왕과 왕비의 능을 쌍릉으로 나란히 두었고, 각각 혼유석 1좌(座)를 앞에 놓았으며, 난간 중간에 사각옥형(四角屋形)의 장명등을 세웠고, 공간은 꽃문양으로 장식했다. 망주석의 세호(細虎)를 우주상행(右柱上行)·좌주하행(左柱下行)으로 새겼으며, 석상들은 왜소하다. 영조가 숙종의 교령을 근거로 능제도를 정비하여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펴낸 관계로 이 능의 석물제도는 숙종·영조연간에 정비된 <국조상례보편>의 표본과 같다.


망주석의 세호가 왼쪽은 땅으로 향하게 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LED전구 (국산정품)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40cm,50cm,
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卍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